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2월 11일(음력 1월 17일) 수요일(주간)

불교로 통일을…

조계종 통일종책연구위, 장·단기 '통일 로드맵' 내놔

북맥경화(北脈硬化)로 마비상태인 남북통일에 '불교'라는 만병통치약이 처방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전면대결태세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남북교류 개선 · 발전에 대한 불교계 최초의 통일 로드맵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통일종책연구위(위원장 세영)는 2월 2일 종책보고서 <민족통일과 불교통합: 남북불교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조항폐기 선언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등 강경입장의 근본요인이 미국, 남한 정권교체에 따른 '핑퐁식 교류'라는 점에서 이번 종책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불교교류로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교계 내부적으로도, 교류사업과 각 사찰의 통일법회 등 협력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 성과가 있다.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발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통일정토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불교교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불교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남북불교교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장 · 단기적 종책연구를 진행한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통일종책연구위가 발표한 이번 불교 통일 로드맵은 △남북불교 상호인정 및 교류협력 △불교도왕래 및 남북불교종단협의회 등 조직구성 △통일종단 · 종법의 3단계로 이뤄져있다. 현 정부의 통일 로드맵인 화해협력단계, 국가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에 불교의 통일관을 접목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위원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불교 통일 로드맵은 삼국통일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일심 · 화회 · 무애의 원효사상을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 통일 로드맵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대북지원협력사업 △문화유산교류 △시민사회영역으로 세분화됐다. 대북지원협력사업에서는 불교계 대북 지원협력사업의 성과와 의미, 단계별 지원협력 사업의 전략과 과제, 지원협력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유산교류에 있어서는 북한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제도적 차원을 넘어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역할을 위한 대안도 모색됐다. 교류사 정리를 통한 흐름 파악도 강조됐다.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는 보고서에서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범불교 차원의 조직체 마련이 요구되고, 불교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과 구체적 실천도 이뤄져야 한다"며 "불교계는 남북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북한지원을 둔 남남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종책보고서에 담긴 로드맵에 따른 세부시책 마련으로 향후 남북불교교류가 탄력을 받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보도자료집은 전국교구본사 및 통일부, 국회외통위, 각 통일관련단체 및 불교대학을 비롯한 포교신도단체 등 총 213곳에 500부가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02)2011-1820~5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통일고문회의' 신임 고문에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 외)는 2월 5일 조계사에서 '용산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스님 50여 명을 비롯해 유가족 10여 명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 날 법회에서 수경 스님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싶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시국법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행진했으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소전의식으로 회향했다. 박재완 기자

봉암사, 국내 최대 규모 국제선센터 건립

2월 9일, 문경시와 MOU 체결

조계종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에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릴 국제선센터가 들어선다.

문경 봉암사(주지 함현)와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2월 9일 국제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을 통해 봉암사와 문경시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전 세계에 홍보할 국제선센터 설립과 관련해 예산과 행정지원 등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제선센터는 봉암사가 인근 석탄공사 소유 부지 34만평을 매입해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22일 대구 동화사가 대구 동구청과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올해에만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센터,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 등을 개원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표어 확정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이하 봉축위)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 결과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선정했다고 2월 3일 발표했다.

봉축위는 "표어로 선정된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은 사회적 어려움을 자비 나눔 운동으로 극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봉축 제등행렬은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불교의 통일 로드맵을 위한 구상과 전략



"밝고 원만한 생각이 극락"
선지식을 찾아서 ▶14 명정 스님

"선차의 정신문화로 도약해야"
창립30주년 한국차인연합회 ▶8 박권흠 회장

생활속의 요가수행 ▶5
봉암사 대중공양현장 ▶9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법보시 나눔마당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참선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평등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 11회 마음공부 포럼
일시 / 2009년 2월 22일(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주최 / 한마음선원
주관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한마음과학원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울산불교방송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031)471~69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구경
진실을 진실로 알면
지혜의 빛 속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정성이 맺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숲 향산화 원액 100%"
청다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명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주민과 상생하는 지혜

엠브레인 리서치가 10대 이상 대한민국 남녀 20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및 신부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 응답자 73.8%가 "글로벌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4.9%가 "일자리를 뺏는 존재"라고 응답했다.

경기도 김포, 안산시 단원구, 서울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 가면 이주민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된 것을 봐도 느낄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은 170여 개국에서 건너온 100만 외국인들과 공존해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주민들은 주로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불교국가 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의 생산직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마다 이주민들이 투입돼 그동안 국내 산업을 유지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인원 감축 바람이 부는 요즘, 1순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한국인들은 이주민 유입을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뺏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결과다.

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기업인에게 '직원을 해고할 때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국에서는 포르투갈 출신 외국 노동자들의 고용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고, 스페인은 정부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쥐어주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 종교별 이주민 지원단체 가운데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76%에 달하지만, 불교계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계종의 이주민 지원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올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 한 예다. 게다가 마하이주민지원협의회(회장 보림) 소속 15개 단체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세영)의 불교계 이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먼 이국땅에서 맞는 경제 한파에 몇 배나 더 추운 하루하루를 보낼 이주민들에게는 봄소식보다 더한 따뜻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주민과 공생 · 공영하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한 때다.

"난관극복 위해 불교계 힘 보태 달라"

한 총리, 지관 스님 신년예방 자리서 협조 요청



한승수 국무총리(사진)는 2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경제난 등 난관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 미륵사지 수습에 불교계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불교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계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경청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관 스님과 한승수 총리는 한중 · 한일 불교교류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고, 10 · 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동섭 기자

무자년 동안거 해제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에

"어디에서 구슬을 찾으려고 하는가"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남전(南泉) 선사와 종남산 운제(雲際) 땅에 머물던 사조(師祖) 스님이 나눈 문답입니다.

"마니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래장 속에서 몸소 얻었다고 하였으니 어떤 것이 장(藏)입니까?"

"그대를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왕래한 것이 장(藏)이니라."

"본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것도 장(藏)이니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구슬입니까?"

이에 사조를 부르니 '예'하고 대답하며 다가오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대는 나의 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에 사조는 깨쳤습니다.

한 철 동안 열심히 정진하여 해제 때 제대로 안목이 갖추어진 납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그토록 물을 일이 있을 것이며 또 대답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눈 밝은 이가 볼 때면 선상을 뒤엎어야 할 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문답 와중에서 사조가 깨쳤다고 하였으니 남전 선사의 자비심은 끌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대중에게 이 산승이 묻겠습니다.

"사조가 깨달았다고 함은 구슬을 깨달은 것입니까? 장(藏)을 깨달은 것입니까?"

만약 이런 질문에 휘말려들어 이러쿵 저러쿵 답변하려고 한다면 만행 시에 스스로의 공부 살림살이를 다시 점검하면서 천하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치를 알고서 제대로 본다면 온 땅덩어리가 온통 여래장인데 어디서 새삼 구슬을 찾을 것이며, 또 온 땅덩어리가 마니주이니 다시 무엇을 장(藏)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가보장(自家寶藏)은
불용종인차차(不用從人借借)하고
자연응용무휴(自然應用無虧)리라
자기 집에 보배창고가 있으니
남에게 빌리려고 하지 말라.
자연히 응용되니 모자람이 없으리라.

2553(2009)년 동안거 해제일에

"혼탁한 세상속의 역할 깊이 생각하라"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요즘 경제 사정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욕망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경제를 소리 높여 외쳐보아도 불을 끄기 위해 입바람을 불면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집만 커지듯이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성을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자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실천없이 부처를 구하는 것은 농부가 알곡은 경시하면서 껍데기만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없는 헛수고지요.

누누(累累)이 말씀드리거니와 해제(解制)는 결제(結制)동안 갈고닦은 지식과 지혜를 중생과 사회를 위해 베푸는 이타기간(利他期間)임을 명심하여 어렵고 혼탁(混濁)한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계유일심 만법개유식(三界唯一心 萬法皆唯識)
우치미중생 대각명위불(愚癡迷衆生 大覺名爲佛)
삼계가 오직 한마음이요 만법이 알음알이에 불과하니
이 도리에 어두우면 중생이고 이를 알아 깨달으면 부처라네.

삼계지중분요요 중생도노총망망(三界之中紛擾擾 衆生徒勞悤忙忙)
일념불생심징연 무우무쟁불생멸(一念不生心澄然 無憂無爭不生滅).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사람들이 모두 바삐 날뛰고 있네.
한생각 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여 걱정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생멸 또한 없어진다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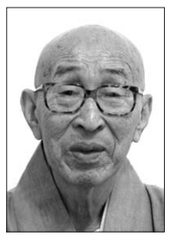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수연방광 할 줄 알아야 참다운 대장부"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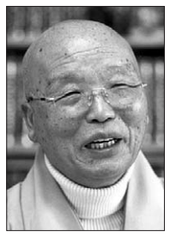
대장부는 본분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연방광(隨緣放光) 할 줄 알아야만 참다운 대장부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더불어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가 녹아있는 지혜여야 참다운 지혜입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사특해져서, 만물을 해칠 뿐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조금 더 풍족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여러 사람들의 신심(身心)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욕지족(小欲知足)이라 하였습니다. 욕심을 없애면, 만족할 줄 알게 되고, 만족함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더욱더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적 없는 지혜와 흔적 없는 자비의 실천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후략)

"생사문제 지금 바로 해결해야"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전략)

폐침망찬주공부(廢寢忘餐做工夫)하니 화두일념사화단(話頭一念似火團)이라

화단소진대천계(火團燒盡大千界)하니 아비범부역비불(我非凡夫亦非佛)이로다.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니 화두 한 생각이 불덩이처럼 뜨겁구나.

불덩이가 대천세계를 다 태워버려야 나는 범부도 아니지만 부처도 아니라고 큰소리 칠 것이다.

금일 대중 가운데 작년 결제 때 내가 심은 나무에 꽃을 피운 이가 있거든 한 가지 꺾어다 보여주기 바란다.

차수불수우로은(此樹不受雨露恩)하니 화개위음미생전(花開威音未生前)이로다.

이 나무가 비와 이슬의 혜택을 받지 않으니 위음왕(威音王, 부처님) 오시기전에 꽃이 벌써 피었도다.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전략)

매 순간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간절하게 본래면목을 깨닫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도달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 하나를 다지기 위해 오늘 해제라는 이름으로 쇄신(碎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야천개합(晝夜天開閤)하고
춘추지사생(春秋地死生)이라
기재자일물(奇哉這一物)이여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이로다.

주야로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고/ 땅은 춘추로 생사를 바꿈질 하는 구나/ 기이하구나, 이 한 물건이여!/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도다.

잘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략)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행자 모집

태고총림 선암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원 신입생 · 편입생 및 행자**를 모집합니다

강원학인 모집안내

◆ **강원생 모집**

신입생 : 치문반 …… ○○명　　편입생 : 사집 · 사교반 …… ○○명

◆ **모집기간** : 2009년 3월 2일 (월요일) 까지

◆ **강 사 진** : 강원장 주지 경담스님(불교의식)
강주 성천스님(대교 · 사교반) 강사 청해스님(치문 · 사집반)

◆ **구비서류**

1. 입 학 원 서 (본강원 소정양식) …… 1부
2. 승 적 증 명 서 (또는 수계증사본) …… 1부
3. 주민등록등본 …… 1부
4. 건 강 진 단 서 …… 1부
5. 승복차림사진 (3×4㎝) …… 4매
6.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 …… 1부
7. 입 방 비 30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 발우 · 필기도구
※ 강원학인스님에게 범음, 범패, 불교의식 교육
※ 타 종단 스님도 입학가능

태 고 총 림　선 암 사　강 원 장

행자 모집안내

◆ **행자자격**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동등한 학력소지자

◆ **모집기간** : 2009년 3월 10일 (화요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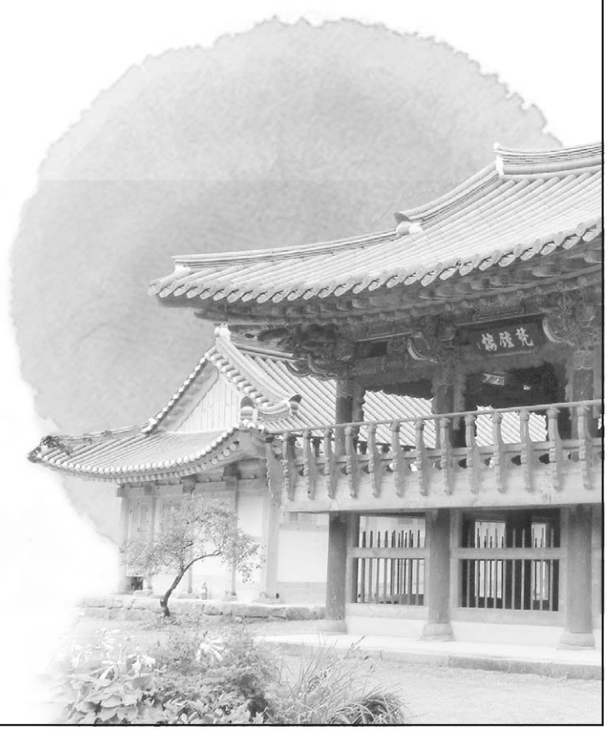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이 력 서 …… 1부
2. 가족관계 확인서 …… 1부
3. 건강진단서 …… 1부
4.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 …… 1부
5. 사진 (3×4㎝) …… 4매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 졸업식 · 입학식 공고

◆ **졸 업 식** : 2009년 3월 3일 오전 10시 대웅전
◆ **입 학 식** : 2009년 3월 3일 오후 2시 대웅전

태 고 총 림　선 암 사



"바라밀 운동 잇겠습니다"

불광사 광덕 스님 10주기 맞아 '전집' 발간·토론회 열어

"순수불교 행원불교 실천불교를 삶 속에 구현하고 인간완성 국토완성 역사완성을 지향하며 펼치신 반야바라밀 운동을 지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가 불교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로 존경 받았던 광덕(光德 1927~1999) 스님의 유지를 이어 현창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했다. 불광사는 2월 6일 광덕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법회에서 '광덕 스님 전집'을 봉정하고 유지를 계승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법어를 한 이날 법회에는 지홍 스님과 지정 스님(불광사 2대 법주),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 했다.

불광사가 모두 10권으로 묶어 발행한 '광덕 스님 전집'에는 광덕 스님이 생전에 남긴 육필원고 전체와 생애와 사상, 법어, 찬불가 가사, 강설원고 등이 망라됐다. 불광사는 앞으로도 녹취된 법어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전집 발간 축하 법어를 통해 "상족(上足) 지홍 수좌 등 출재가자들이 열반 10주기를 보은행으로 종사의 문자반야 10권 전집을 결집케 하였으니 문도의 기쁨이요 종문의 경사이며 시대의 지남(指南)이로다"고 간행을 찬탄했다.



불광사는 광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광덕 스님 전집'을 발간, 2월 6일 봉행된 추모법회에서 봉정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광사는 전집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7일 개최했다. '반야바라밀과 순수불교의 광덕 사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영태 동국대명예교수는 '광덕 스님 연구에 대한 조그만 견해'를 제목으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광덕 스님과 불광법회의 시대사적 의의와 향후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도 기조발제를 통해 불광법회와 반야바라밀운동의 성과와 의의, 향후 과제 등을 상세하게 짚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미륵사지석탑 졸속 해체 사과하라"

민주당 연등회, 문화재청에 질의서 제출

"문화재청이 사리에 대한 예를 다하지 않고 졸속으로 미륵사지석탑을 해체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가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해체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문순 의원은 "불교에서 사리는 감정대상이 아닌 신성한 존재"라며 "이번 미륵사지 석탑해체과정은 문화재 없는 문화재청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미륵사지 석탑 졸속해체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문책이 이뤄져야한다"며 "문화재청은 불교계에 사과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통일신라시대 불교유물 대규모 발굴

군위 인각사 제5차 발굴조사 중 출토



군위 인각사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불교의식구 일괄유물'.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으로 알려진 군위 인각사(사적 제374호)에서 통일신라시대 불교유물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는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중 '통일신라시대 불교의식구 일괄유물'을 발견했다고 2월 9일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했다.

발견된 유물은 통일신라시대(9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금동병향로, 청동정병 2점, 청동반자 등 10여 점이다. 특히 금동병향로는 부여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비교되는 발견으로 눈길을 끈다.

범하 스님은 "이번 발견은 고고학·미술사·불교사 등 관련 분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동국대, 2월 13일 새 이사장 선임

재단임원 간담회 통해 이사회 소집결의

동국대 새 이사장이 빠르면 2월 13일 선임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직무대행 영담)는 2월 3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재단임원 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 오후 3시 이사회 개최를 결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사들은 △이사장 선임건 △2009학년도 예산안 심의건 △산학협력관 및 국제관 건립에 대한 건 등의 안건을 주제로 13일 이사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과 전순표 회장(총동창회)을 제외한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서불대 다시 분규 속으로?

서불대 이사회, 황 총장 및 교수 2인 해임

지난해 무더기 학생 제적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가 다시 분규에 휘말리고 있다.

서불대는 2월 3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직위보전 소송을 통해 복귀한 황윤식 총장을 해임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박성현, 성승연 교수에게 '재임용 불가'를 통보했다.

황 총장 해임사유는 규정상 3급 직원이 1인이나, 2인으로 발령한 점, 인사위 위원장(김영란 교수·前 총장대행)의 인사위 소집 거부에 총장이 직접 인사위를 소집한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불대 이사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로 복귀된 황 총장 해임과 인사위 제청을 '사립학교법' 상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전망이다.

서불대 한 관계자는 "1월 30일 서불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前 이사장)에 관한 법원 판결이 종결돼 덕해 스님이 이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욱 스님측이 이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황윤식 총장은 현재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재임용이 거부된 박 교수 등은 4일 교과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6일 서불대 교수협의회(회장 김명권)는 성명서를 통해 지욱 스님의 이사장직 사퇴와 부당해임 철회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종평위, "대학 안 종교시설 안돼"

국무총리 규제개혁실로 반대의견 뒷북 접수

조계종 총무원이 대학 내 종교시설 설립 개정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뒤늦게나마 표명했다. 조계종의 종교편향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담하는 종교평화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세영, 손안식)는 2월 5일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종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대학설립자가 소유한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데에 더해 일반 종교단체까지 시설 건립을 허락할 경우 각 사립대학이 선교경쟁의 장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종교편향 및 차별논란이 예상되는 제3조 2항의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한다)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교과부가 1월 9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공포한 개정안 이의접수 기간(20일)동안 대응하지 못해 교계 언론에 비판을 받아왔다.

종평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기일이 지나, 법안을 검토중인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로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덕현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문광부, 서울시청에 십자가 철거 공문 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종교차별신고센터는 2월 2일 서울시청 앞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 설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광부는 "공직자 종교차별자문회의 결과 시청광장 크리스마스트리의 십자가가 타종교 기념일의 상징물과 형평성 관계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종교상징물로 인해 일반 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관심과 시정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십자가 트리가 설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교구본사주지회의 국립공원구역 조정 논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삭도 설치 완화 등 사찰 수행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국가 환경정책에 대한 조계종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2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문화재사찰위원회의 국립공원 사찰회의 등을 거쳐 정부 환경정책 과정에 불교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2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축년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2008년 중앙종무기관 결산과 2009년 주요사업, 자비나눔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문화재사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국가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오후 2시에는 국립공원 내 사찰주지 회의를 통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2045 FAX 02)730-8528

* 작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韓國民俗哲學研究所 所長 方弼錫

주역 개인지도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寶明寺 周易講義 講師
前 世界佛教徒 友誼會 弘報次長
現 韓國易理學會 中央學術委員
現 韓國民俗哲學研究所長

한인, 아이비리그에 150만 달러 쾌척

컬럼비아大, 기부금으로 한국불교학과 개설



조일환 회장(가운데)은 2007년 동국대에 50만불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 1월 컬럼비아 대학교에 한국불교학과 개설을 위해 150만불을 기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불자 기업인의 기부로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에 한국불교학과가 개설돼 화제다.

주인공은 미국 이민 1세대로 성공 신화를 이룬 동포기업인 조일환(71) 회장. 뉴욕 · 뉴저지 지역에서 의류업체 코만스포츠웨어를 경영하고 있는 조 회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기부금 150만 달러로 컬럼비아대학에 한국불교학과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대는 현지시간으로 1월 28일 한국불교학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컬럼비아대는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중 종교학과 동북아시아학과에 강점을 두고 있는 학교다. 컬럼비아대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불교 전공 교수를 확보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0년부터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1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평소 불교 연구에 심취해 온 조 회장은 올 2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을 앞둔 만학도다. 조일환 회장은 졸업과 동시에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1971년 미국 뉴욕 외곽지역에 위치한 원각사에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는 컬럼비아대에 티베트, 중국, 일본 등의 불교학과는 있으나 한국불교학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 1년 전부터 대학에 기부의사를 밝혀왔다.

"컬럼비아대에 한국불교학과가 개설되려면 필요자금 300만불 가운데 반액이 한국 측에서 부담돼야 합니다. 컬럼비아대 측이 오래전부터 한국불교단체에 학과개설 펀드기금 요청을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펀드 조성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 회장의 기부금 쾌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생들이 해외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게 장학금 50만 달러를 기부했고 코넬대와 영국 옥스포드대에 한국학 관련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수 십년간 한국불교학 연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일환 회장은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연기법에 의해 전부가 서로 얽히고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조화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듯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받은 걸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하다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를 수행으로 실천중인 조 회장은 "여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불교를 서양인과 한국인이면서도 한국말이 서툰 2 · 3세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여생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불교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곳은 UCLA, 아리조나주립대, 하와이대이지만 한국불교학과 학부를 개설하고 석 · 박사 과정을 모집하는 것은 컬럼비아대가 최초다. 이나은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위빠사나 명상마을 가평에 조성

한국위빠사나선원 내년 완공 계획

위빠사나수행은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다.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등을 끊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법을 보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1990년대 한국에 소개된 위빠사나는 최근 근본불교의 대표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하지만 집중수행을 하려면 미얀마 · 태국 등 남방불교국가에 가서 수행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위빠사나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재가수행자들은 한국에도 여법한 수행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위빠사나 집중수행처 겸 명상마을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국내 위빠사나수행이 정착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위빠사나선원(선원장 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가평 설악면 유명산 자락에 7600㎡(2300평) 토지를 매입, 명상마을 조성을 시작해 2010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08년 12월까지 1200여 평의 집중 수행센터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축 설계 허가 등록을 마친 명상마을은 올해 5월 착공해 2010년 상반기 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명상마을 수행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된다.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 수행을 하거나 인터넷 카페(cafe.daum.net/vipassanacenter)를 통해 위빠사나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집중수행센터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개인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정기적인 단체수행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은 수행센터 주변에 자연 친화적 전원주택을 마련해 여생을 수행으로 보내기 원하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모든 허가 등록을 마친 상태로 설립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건립기금을 자율적으로 보시 받는다.

한편 한국위빠사나는 2월 11~28일 19명의 수행자들이 미얀마 마하시 선원으로 집중수행을 떠난다. 수행과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고아원 및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 문구, 약품 등을 전달해 왔다. (02)512-5258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한국위빠사나선원이 조성하고 있는 위빠사나 명상마을 조감도.

직장 불자회 '봄소식' 전하다

교사부터 공무원까지 전법통한 신행활동

직장불자회들이 봉사활동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창홍)는 1월 7~14일 미얀마 아웅 빠라히따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성금 600여 만원을 전달했다. 1월 초에는 서울경인지부회원들이 '미얀마 아웅 빠라히따 학교 재건 108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5월 '나르기스' 태풍의 피해로 흔적도 없이 쓸려간 양곤시에 위치한 아웅 빠라히따학교는 현재 임시 비닐천막교실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2000만원이면 초 · 중 · 고 1300여 학생들이 공부할 기본 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재건 추진위원회는 '108인의 추진위원' 동참과 더불어 건립비용 후원모금을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는 올해 상반기 내과, 동서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2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한 가운데 미얀마로 해외의료 봉사를 떠난다.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는 5월경 몽골에서 안과, 치과 등 4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이동우, 이하 서울시공불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영제 스님(관문사 주지)이 법문하고 서울시공불련 회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공불련은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불자회가 만들어진 20개 구청불자회가 모여 연합회를 구성한 것으로 2000여 불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시도지방공무원불자회 중에서는 가장 큰 불자회로 서울지방공무원불자들이 단위 기관에서만 활동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 구청과 교류하며 연 1회 성지순례와 연합법회 개최,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돕기, 신행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서로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불자회의 저변을 넓혀왔다. 이상언 기자

'M · Y리더스 클럽' 6기 2월 28일까지 모집

(사)불교아카데미는 실천형 재가불자 육성 교육 프로그램인 'M · Y리더스 클럽-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 6기를 모집한다.

3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관에서 진행된다. 6기 프로그램은 리더십 응용불교를 강화를 목표로 '붓다의 리더십'과 '명품 스피치' 강의를 박희택 교수(위덕대 사회복지학부)와 이현정 대표(타니아커뮤니케이션컨설팅)가 강의한다.

종단, 사찰, 불교 및 일반 NGO단체, 신행단체 등에서 불교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시작된 'M · Y리더스 클럽'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57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모집 마감은 2월 28일까지. (02)2278-1087 ring0226@naver.com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사)광주불교교육원 불교문화 무료특강=(사)광주불교교육원은 광주불교교육원에서 2월 12일 오후 2시 금강 스님이 '탁본문양으로 바라보는 불교이야기', 19일 오후 2시 이순규 법사가 '대승불교와 다불신앙' 특강을 한다. (062)228-9098

●남양주 봉인사 '선정과 지혜수행'=남양주 봉인사는 2월 13~22일 선정과 지혜수행을 봉인사에서 실시한다. 일반인 1박 3만원, 스님은 1박에 1만원으로 전화, 현장, 인터넷 접수가능하다. (031)574-5585 www.bonginsa.net

●비로자나국제선원 '성인영어 담마스쿨' 개강=비로자나국제선원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7시 화 · 금요일 오후 7시에 선원에서 초보자를 위한 성인영어 담마스쿨을 개강한다. 참가비는 월 4만원이고 선착순 15명 접수받는다. (02)6012-1731

●다보사 위빠사나 집중수행=괴산 다보사는 2009년 2월 13~22일 다보사 수련원에서 사마타 위빠사나(止觀)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1일 수행보시금은 1만 5000원으로 선착순 40명 접수 가능하다. (043)833-7789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 6기 100일 출가자 모집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대표 법륜) 행자원이 2월 11일까지 일반인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100일 출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2월 13일 면접을 거쳐 3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가생활 한다.

출가자는 출가 기간에 일만배 정진과 발우 공양, 일문일답을 통한 개인수행지도, 사찰순례, 수행공동체 생활, 생태농사, 마음나누기 등을 경험한다. 또 법륜 스님에게 매일 법문을 들으며 실천적 불교사상과 근본불교를 비롯한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강좌를 듣고 NGO 실무실습을 경험한다.

100일 출가체험 신청은 정토회 홈페이지(www.jungto.org)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gilsang@jungto.org)로 하면 된다. (054) 571-6031 이상언 기자

서초반야회 신년법회 '수행과 나눔의 해'

법조인 불자 단체인 서초반야회는 1월 21일 서초동 대성사에서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법회에서는 박홍우 신임회장(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부회장에 조희대 고법부장(서울고등법원), 총무에 박희승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선임됐다.

신임회장 박홍우 고법부장(서울고등법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수행과 나눔의 해'로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로터스불교대학 2009학년도 신입생모집

로터스불교대학에서는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과정, 교육시설을 갖추고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쉽고 바르고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충만한 행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2기 로터스불교대학(1년) - 포교사 과정

• 개 강 일 : 2009년 3월 9일(월) 오후 7시 • 수업일시 : 매주 월, 화요일 오후 7시 ~ 9시
• 입 학 금 : 5만원(교재비 포함) • 수 업 료 : 월 4만원
• 교육내용 : 아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경 / 인도불교사상 / 중국불교사상 / 한국불교사상 / 불교사 / 불교문화 비교종교 / 포교론 / 불교상담과 복지 / 수행실수 / 의식실수 * 사찰문화탐방 * 집중수련회
• 구비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증명사진 5매, 기본과정 수료증서
• 교 수 진 : 스님 - 지안스님(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통광스님(칠불사 회주), 월호스님(쌍계사 강사), 상현스님(정혜선원장) 정법스님(봉룡사 주지)
재가 - 이태성 교수(위덕대), 원필승 교수(위덕대), 이철헌 교수(동국대), 김준호 교수(부산대) 그 외 권위 있는 교수진 다수
• 특 전 : 부부, 가족 2인 입학시 1명 수업료 50% 감면, 수계식, 초청법회 및 순례법회

제2기 수행학교(6개월) - 불교입문자 과정

• 개 강 일 : 주간 - 2009년 3월 12일(목) 오후 2시 야간 - 3월 12일(목) 오후 7시
• 수업일시 : 주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입 학 금 : 3만원 (교재비 포함) • 수 업 료 : 월 2만원
• 교육내용 : 불교신행과 사찰예법 / 부처님 생애 / 불교근본사상 / 불교의식 / 수행법 / 불교문화 / 예불 / 반야심경 * 사찰순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로터스불교대학 TEL 051)853-8539 FAX 051)853-2036

2009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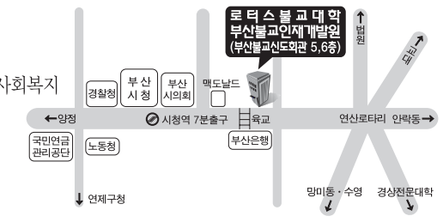
제2기 부산불교전문강당(3년) 신입생 모집

부산불교전문강당에서는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100년대계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부산불교전문강당 학장 지안 합장

• 개 강 일 : 2009년 3월 11일(수) 오후 7시 • 수업일시 : 매주 수요일 7시
• 입 학 금 : 20만원 (전 과정 교재 제공) • 수 업 료 : 월 5만원
• 교육내용 : 초발심자경문/ 도서/ 절요/ 서장/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선요/ 화엄경
• 교 수 진 : 지안스님(본 강당 학장,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통광스님(칠불사 회주), 각성스님(화엄사 회주)

제2기 로터스 청년불교대학(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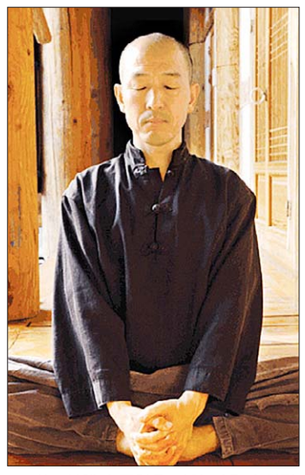
• 개 강 일 : 2009년 3월 13일(금) 오후 7시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입 학 금 : 없음
• 수 업 료 : 월 1만원 (교재비 포함)
• 교육내용 : 불교의 세계관 / 인간관 / 사회실천관
현대사회와 불교 - 미래문명, 생명과 환경, 인간과 사회복지
예불 / 반야심경 / 사찰예법 및 불교신행
* 사찰문화기행
* 집중수련 및 연찬회



부산불교인재개발원 TEL 051)853-2034 FAX 051)853-2036

몸과 마음의 안정 찾아 고통 · 비애 떨쳐 버리자

9 생활 속의 요가수행(상)



요가는 신체의 균형을 맞춰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청량선원 요가 수련 모습(오른쪽)과 동작 시범을 보이는 현천 스님.



#지친 삶, 극복의 길은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적 성공을 위한 경쟁에 매몰된 삶을 살고 있다. 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우리 몸의 건강은 등한시되기 일쑤여서, 삶에서 오는 긴장이 축적됨에 따라 몸은 통증이나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은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점점 더 견디기 힘들게 한다. 결국 신체적인 이상 증세와 더불어 결핍감, 소외감 혹은 무력감 같은 정신적 고통에까지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살피며,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삶의 혼란에 확고하고 안정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육체와 균형 잡힌 마음이 필수적이다. 요가는 외부 환경에 지친 육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마음을 명료하게 하며 지성을 날카롭게 연마하여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행 방편이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난, 불운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요가의 수행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고 요가 수행을 시작해 보자. 다음의 간략한 길잡이 이야기들은 요가 수행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감 제어해 마음을 정지 시켜라

요가는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안정을 다루면서 고대 인도로부터 수천 년에 걸쳐 발전돼온 시간을 초월한 실용 과학이다.

요가를 체계화하고 있는 최초의 책은 A.D. 200~300년 경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탄잘리의 고전적 학술 보고서 <요가경Yoga Sutra>이다. 파탄잘리는 이 책의 두 번째 경구에서 요가를 '치타 브르티 니로다(chitta vrtti nirodhah)'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chitta) 변화(vrtti)의 제지(nirodhah)' 또는 '의식(chitta) 동요(vrtti)의 억제(nirodhah)'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요가란 명상을 통해 오감을 제어하여 산란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요가 철학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저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요가를 '고통과 비애로부터의 해방'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요가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넘지만 크게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로 나눌 수 있다. 라자 요가는 파탄잘리의 고전적 요가 <요가경(Yoga Sutra)>에 근거해 정신적 수행을 강조하는 선, 명상 요가를 말하고, 하타 요가는 스와트마라마의 <하타 요가경>에 근거를 두고 먼저 육체 수련을 강조하는 힘의 요가, 에너지 운용의 요가이다. 즉 보이는 육체를 먼저 다룬 다음 정신수행으로 나아가는 요가이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육체로부터 출발하는 하타 요가를 먼저 수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타 요가 또한 건강에 중점을 둔 요가, 휘트니스에 중점을 둔 요가, 호흡 수련에 중점을 둔 요가 등으로 브랜드화돼 많은 종류가 있다.

#요가와 불교의 같은 점 다른 점

요가와 불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부처님이 출가하여 만난 첫 번째 스승 알라라 칼라마와 두 번째 스승 웃다카 라마푸트라가 그 당시 요가의 대가였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 불교는 요가의 풍토 속에서 싹이 텄다. 다만 부처님은 그 당시 사마타[止] 수행만을 추구하던 요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위빠사나[觀]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불교와 요가의 길이 갈라지게 된다. 부처님에 의해 불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고등 종교로 발전해 이론과 수행 체계가 정립됐다. 요가는 이러한 불교의 발전된 이론과 수행법을 받아들여 수행 체계를 더 보완, 발전시켰고, 요가 수행의 우수한 장점들은 다시 불교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요가와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사상 및 이론 체계와 궁극의 목표점이 비슷하다. 단지 우리 불교는 무아 사상을 견지하고, 요가는 아트만, 즉 참된 자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부처님 당시의 요가를 예로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요가를 차원 낮은 수행법으로 잘못 이해하게 하고 있어 요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타 요가는 육체수련, 라자 요가는 정신수행 강조
불교와 궁극 목표 비슷… '낮은 차원 수행' 오해 말길

#8가지 수행 단계

요가는 야마Yama, 니야마Niyama, 아사나Asana, 프라나야마Pranayama, 프라티아하라 Pratyahara, 다라나Dharana, 디아나Dhyana, 사마디Samadhi의 8단계로 구성된다. 이 8단계가 통합돼 요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각의 단계는 편의상 독립된 구성 요소로 다루어진다.

① 야마Yama: 금계를 말하며, 전 인류에 공통되는 보편적 도덕률을 지키는 것이다.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금욕, 불탐 등 다섯 가지의 계율이 포함된다. 이들 중 네 가지는 불교의 5계와 일치하지만 요가에서는 불교의 불음주 대신 불탐을 금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니야마Niyama: 권계를 의미하며, 계행에 의한 자기 정화의 단계이다. 신체의 청결saucha, 만족santosa, 고행tapas, 성전을 통한 자아 교육svadhyaya, 절대 신성Isvara에 대한 헌신 등 다섯 가지의 계행을 포함한다.

③ 아사나Asana: 흔히 요가 자세(자세 행법)라 하는 것으로 요가의 3번째 단계이다. 요가 자세는 안정감과 건강을 얻게 하며, 수족을 가볍게 해 준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통해 정신의 평정을 이루게 하고, 마음의 변덕스러움을 자제하게 해 준다. 아사나는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행의 단계로 육체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닦는 데 의의가 있다. 명상으로 나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다.

④ 프라나야마Pranayama: 호흡법으로 요가 자세를 통달한 뒤의 4번째 단계이다. 프라나야마는 호흡의 확장과 조절을 의미하고 생명의 바퀴(차크라)를 돌리는 중심축이다. 호흡법의 수행은 안정된 마음, 강한 의지력, 건전한 판단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호흡 수행은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처럼 위험하므로 개인의 능력과 신체적인 한계에 따라 신중하게, 서서히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를 죽게할 수도 있다고 <하타 요가경>에서 경고하고 있다.

⑤ 프라티아하라Pratyahara: 제감, 즉 감각의 제어를 의미하며 욕망, 감정 및 외적 대상에 의한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자율 훈련 단계이다. 호흡 조절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욕망의 외부적인 목표를 따르기보다는 감각 기능들이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는 욕망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된다.

⑥ 다라나Dharana: 정신 집중 · 통일 행법의 단계로, 아사나에 의해 육체가 단련돼지고, 프라나야마로 마음이 가다듬어지며, 모든 감각 기능이 프라티아하라의 통제 아래 있게 될 때 다라나라 불리는 여섯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한 점이나 한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집중(응념)이 이루어질 때 마음은 동요되지 않고 평정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⑦ 디아나Dhyana: 명상의 단계이다. 기름이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겨질 때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게 되듯, 집중이라는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연장되어 일어나는 상태가 디아나이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이다.

⑧ 사마디Samadhi: 삼매로 알려진 단계이다. 명상(디아나)의 절정에서 수행자는 사마디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육체와 감각 기능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맛보고, 마음의 작용과 이성은 마치 깨어 있는 듯 성성하나 구도자는 의식의 선을 넘어섰다. 사마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성적적星星寂寂한 경지에 있다. 이 경지에서는 아는 자(알려는 주체), 알 수 있는 것(알아야 할 객체), 그리고 알려진 것(알아진 실체)이 하나가 되고, 여기서 깨달음이 온다. <계속>

현천(청량선원장 · (사)아헹가 요가협회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식 소장사 영가천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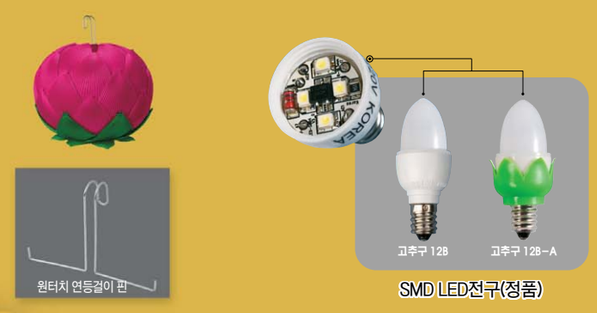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장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SMD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해 외 WORLD

법고산 개산조 성엄 스님 입적

대만 4대 큰스님으로 불려



대만 불교중흥에 헌신한 법고산(法鼓山)불교재단 설립자 성엄(聖嚴 · 사진) 스님이 2월 3일 오후 4시경(현지시간) 입적했다. 세랍 80세.

대만 불광사 성운(星雲) 스님, 자제공덕회 증엄(證嚴) 스님, 중대선사 유각(惟覺) 스님과 함께 대만의 4대 큰스님으로 불린 성엄 스님은 1930년 중국 강소(江蘇)성에서 태어났다. 13세에 출가한 그는 19세에 군인으로 강제 입대돼 10년간 군생활을 한 뒤 30세에 재출가했으며, 1975년 일본의 입정(立正)대학에서 문학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해 대만 불교계의 1호 박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1978년 임제종 법맥을 이어받은 스님은 16년 전 대만 타이베이(臺北)현에 위치한 법고산재단을 창설, 전 세계로 불교를 포교해왔다.

자유시보(自由時報)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법고산재단에 마련된 빈소에는 평소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3일 밤 조문한데 이어 샤오완창(蕭萬長) 부총통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성엄 스님은 입적하기 전 "내 개인 재산은 없다. 나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시방의 보시로 들어온 것이니 교단의 법도와 법원에서 공증한 유언대로 모두 도량에 귀속된다"며 9가지 유훈을 남겼다. 스님은 이어 "할 일 없이 바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구나(無事忙中老). 허망한 세상에서 기쁨도 슬픔도 겪었지(空裡有哭笑). 본래 내(我)가 없으니(本來沒有我), 생사를 모두 떨쳐버릴 수 있다네(生死皆可拋)"란 게송을 남긴 뒤 열반했다.

성엄 스님의 다비식은 8일 법고산 총본부에서 거행됐으며, 15일 법고산 생명단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中 제2차 세계불교포럼 개최

중국불교협, 3월 28일~4월 2일

중국불교협회(회장 일성)가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3월 28일~4월 2일 중국 강소성(江蘇省) 무석시(無錫市)와 대만에서 제2차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한다.

2006년 중국 항주(杭州)에서 열린 제1차 세계불교포럼은 1949년 공산화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종교행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49년 공산당 집권 이후 최초의 행사"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화로운 세상(和諧世界 從心開始)'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종단 불교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세계 35개국 불교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 종교사무국과 중국불교협회는 포럼에 대비, 2008년 11월 11일부터 상하이 국제연구대학에서 불교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모두 상위급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교사무국은 이들 중 20여 명을 선발해 세계불교포럼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學誠) 스님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포럼에는 한국, 인도, 미국, 영국, 스리랑카, 태국 등 각국의 스님과 학자, 단체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 1차 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불교포럼 준비위는 2008년 11월 23일 제2차 세계불교포럼을 위한 타종식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달라이 라마

러시아 방문 가시화

인도 뉴스 사이트 Zeenews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는 "러시아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그의 추종자들을 만나는 '종교적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소련 붕괴 이후 1992 · 2003년 러시아 방문이 허용됐지만, 그 후 중국의 압력으로 비자를 거절당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에는 달라이 라마가 그의 추종자들을 만남에 있어 애로 사항이 없다. 우리는 달라이 라마의 종교적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방 의회에서 말했다.

한편 AP뉴스는 "달라이 라마가 팔 부상으로 뉴델리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나은 기자

중앙신도회관 2층 치과전문병원 개원

반갑다연우야 의료지원 확대

불교의료봉사단체인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가 5월경 치과전문병원(가칭 연우 치과)을 개원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반갑다 연우야'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부설 (사)날마다좋은날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석현)이 공동 설립한 의료지원단으로 중앙신도회의 불교사회화운동 추진을 위해 2006년 발족됐다. 종합검진버스 1대, 치과진료버스 1대 등을 갖추고 2006년 1800여 명, 2007년 1700여 명, 2008년 2400여 명에게 무료 진료의료 봉사를 해왔으나 진료 시간, 인원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관 2층에 치과전문병원을 개원해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전문병원을 개원하게 됐다.

(사)날마다좋은날 이승복 팀장은 "개신교나 가톨릭과는 달리 불교계는 특별한 후원이 없는 상황에서 1회 당 평균 300여만원 가량의 진료비 부담이 컸으며 이동식 진료는 응급치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병원을 개원하면 의료 봉사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보육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치과 이외의 진료를 위한 병원 연계를 비롯, 더 폭넓고 질 좋은 의료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반갑다연우야는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 등과 연계해 1년에 2회 집중진료 실시와 해외진료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의료봉사단체 '반갑다 연우야'는 1월 31일 남산보육원에서 어린이 60명에게 올해 첫 이동진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반갑다연우야는 1월 31일 남산보육원에서 어린이 60명에게 올해 처음 치아진료를 실시했으며, 7일에는 성북구 소재 장애아동시설 승가원 치아 진료를, 14일에는 강서구 소재 강서아동복지센터와 15일에는 지온보육원에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후원 : 농협 053-01-266995 (사)날마다좋은날, (02) 733-7277 이상언 기자

"인재불사 중요시하겠다"

팔공산 제2석굴암 청소년 장학금 전달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힘쓰듯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일꾼을 키우고 싶습니다. 사찰불사보다 인재불사를 중요시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제2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은 1월 31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구 · 경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은 1월 31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구 · 경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한 법등 스님은 총 29명의 학생(고등학생 18명, 대학생 11명)에게 각 100만원(고등학생)과 200만원(대학생) 씩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법등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계도해나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작불사"라며 "남녀노소,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지 못하는 일체중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그들로 하여금 세상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학생들에게 "먼 훗날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자비의 등불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4년 6월 발족된 연등장학재단은 현재 8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올해로 4회째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나은 기자

위안부 돌아보는 '피스로드'

나눔의집 2월 15~21일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2월 15~21일 6박7일 동안 워크숍 '피스로드(peaceroad, 평화의 길)'를 개최한다.

'피스로드'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젊은이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다.

이번 행사에 모집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6박7일 동안 피해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참가 기간 동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견학 △피해 여성의 '증언' △참가자들끼리 의견교환과 주제 토론 △현지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031)768-0064 이나은 기자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자양사회복지관

입춘이 지나고 절기상 봄이 도래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춥고 싸늘한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이 많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내 위기가정보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는 저소득어르신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저소득청소년들을 위해 진행됐다.

복지관은 2월 3일 홀로 사는 박 어르신(74)에게 후원금(15만원)과 연탄 300장 및 번개탄을 전달했으며, 9일에는 서울메트로 후원으로 서울 광진구 지역 저소득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날 복지관에서는 '정월대보름 맞이' 나눔행사를 진행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라면 및 오곡밥, 떡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승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4~7	마일운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이기봉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이기봉	재학생/졸업생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한활안	30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4~7	김영렬	30

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7	마일운	30
범패실습 I	영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산재의례절차 II	상주권공과정	금	오후4~7	이기봉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1~7	한해사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화	오후1~4	한활안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4~7	김영렬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약간명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2009년 1월 19일 ~ 2월 28일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2급 정표고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2008년 본교주관 해외공연 : 일본오사카한국문화원 초청 시연, 중국하북성 백림선사 영산재 시연, 통영 임란 호국영령천도 영산대재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 FAX 02)392-3239 /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동물 생명권 확보 불교 앞장서자"

한국불교학회,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 워크숍

그저 살인을 즐겼다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씨 이야기가 연일 매스컴마다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다. 범행현장마다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씨의 범행에는 잔인 · 잔혹 등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그의 살인행위는 자신의 욕구를 그릇된 방법으로 풀어낸 결과다.

'일체중생'에는 사람 뿐 아니라 동물, 식물 등 유정물이 모두 포함된다. 주인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 도살장 ·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들. 주변의 동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또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고 개선을 위해 실천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2월 3일 서울 불광사에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을 주제로 겨울 학술 워크숍을 개최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월 3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겨울워크숍의 발표 및 논평자들. 왼쪽부터 조성택 교수, 허남결 교수, 우희종 교수, 안성두 교수.

행사에는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를,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불교정신과 동물의 생명권'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허남결 교수(동국대)와 조성택 교수(고려대)가 참석했다.

우 교수는 "우리 사회 속 동물학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내는 거울"이라며 "생산성이라는 탐심(貪心), 육식에 깔려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진심(嗔心),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빚어내고 있는 결과에 대한 무지라는 치심(癡心)의 반영이 바로 우리 사회 속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불자들 중에는 동물의 생명권이나 불살생계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식물도 생명이니 먹지도 말고 죽어야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처님의 상의상존하는 연기법에 따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육식문화를 포함한 동물의 생명권 문제에 흑백의 이분법적 오류를 떠나 생명존중이라는 가치관에서 접근하자는 말이다. <화엄경>의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 一切塵中亦如是)'처럼 티끌에 온 우주가 담겨있고 동시에 온 우주 역시 티끌임을 안다면 생명존중을 항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희종 교수는 탐진치의 해결을 인식과 가치기준의 전환으로 제시했다. 깨달음을 인식의 전환 등으로 설명해온 그간의 주장에 비춰볼 때 결국 육식문제 해결법도 수행이다.

우 교수는 "동물생명에 대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운동을 통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 불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며 "'소욕지족'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문화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동물학대 문제는 개인윤리가 아니라 집단윤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범불교적 차원에서 '동물의 생명권 확보를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동의했다.

안성두 교수는 "육식을 하고 안하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 더 고결한 선택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은 육식을 하라고도, 금하지도 않았다. 육식의 허용 여부에 집착하는 것이 육식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능가경> 등 대승불교에 이르러 일체중생에 대한 대비심을 강조하며 육식을 금할 것을 제안하게 됐다.

안 교수는 "동물학대는 먹이사슬의 한쪽 끝에 선 인간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두 교수는 이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공장식 집단사육을 피하고, 도살할 때 고통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시도 △동물공장에서 사육한 고기 먹지 않기 △남은 음식 최소화하기 △육식문화의 한계와 파괴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등을 제안했다.

한편 우희종 교수와 조성택 교수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문화운동 제안에 한국불교학회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위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관성 없는 영문표기 바로잡아야"

장은화 국제포교사 '불교문화' 2월호에서 지적

국보 제206-2호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는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할까?

문화재청 영문홈페이지(english.cha.go.kr)에는 'National Treasure No. 206-2 Hwaeomgyeonggwanjajaebosa-lsoseolbeommunbyeolhaengso(Avatamsaka sutra)'라고 표기했다. 한글 명칭을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로 옮기고 괄호를 달았다. 괄호 빼고 글자 수가 무려 51개. 외국인이 알아보기 쉬울 리 없다.

국제포교사로 활동 중인 장은화씨는 <불교문화> 2월호에 연재중인 '불교문화재 영문안내판 바로잡기'에서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의 문화재 표기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에 발음 안내 같은 것도 찾을 수 없다.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기는 아이러니"라며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문화재의 영문표기는 국가기관이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불교문화> 2월호에는 불교문화에 관한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려있다.

장은화씨는 "문화재 명칭은 한 사물을 지칭하는 한 개의 단어가 아닌 다양하고 잡다한 설명어구가 응집된 표현"이라며 "번역된 명칭만으로도 대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불교문화재의 바른 영문표기를 위해 △로마자의 음가 표기 대신 한글 명칭의 의미 전달 △불교계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화씨는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는 'Special commentary on Avalokitesvara Bodhisattva Dhama Talks in the Avatamaka Sutra'로, '목조삼존불감(Mokjosamjon bulgam)'은 'Wooden cabinet enshrining a Buddha triad'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시설물 무단 침입방화 대응훈련

문화재청, 숭례문 화재 1주년 맞아 수원화성서 진행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숭례문 화재 1주년(2월 10일)을 맞이해 문화재시설물 무단 침입방화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2월 4일 수원화성 행궁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훈련은 문화재청 수원화성사업소,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중부소방서, 무인 경비업체 등이 참가했다.

합동훈련은 안전경비인력이 중요 목조문화재 내 무단침입자 최초 발견시 초동대응 조치하고, 이후 출동한 무인 경비업체, 경찰관, 소방관이 합동으로 무단침입자를 제압, 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홍두식 재난관리총괄담당(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은 "이번 합동훈련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현장에 배치중인 안전경비인력과 경찰서, 소방서, 무인경비업체가 유기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훈련을 통해 사회 · 개인적 불만을 문화재 방화로 표출하려는 의도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무단 침입자에 의한 문화재 화재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무단침입방화 대응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옥천암 '보도각 마애보살' 불사 마치고 점안

2월 12일 천일기도 입재

옥천암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3년 여의 긴 불사를 마치고 새 옷을 입는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2월 12일 오전 10시 '보도각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1000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이날 점안식에는 증명에 설정 스님(화계사 회주), 법주에 원명 스님(조계종 어장)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말~조선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은 5m 규모로 커다란 바위(화강암 바위 전체 높이 10m)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흰색 호분이 두껍게 칠해져 있어 '백불(白佛)' 또는 '해수관음'이라 불린다. 보살좌상의 양 무릎이 심하게 훼손돼 복원작업을 진행해 왔다.


2월 12일 점안 예정인 서울 옥천암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

한편 점안식과 함께 입재하는 1000일기도는 참가자가 각자 100일 동안 절과 염불, 주력 등을 정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일기도는 10회에 걸쳐 천일동안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395-4031

김진성 기자

'전자불전' 10집 발간

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콘텐츠 연구소(소장 보광)가 발행하는 <전자불전> 제10집이 최근 발간됐다.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간된 제10집에는 △대장경과 교판(지창규 교수, 동국대) △디지털 대장경의 미래와 고려대장경의 지위(오윤희 소장, 고려대장경연구소)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정승석 교수, 동국대)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위원, 동국역경원) 등이 게재됐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 21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2008년 불교학연구회 학술행사에 발표된 논문들과 함께 남궁선 박사(동국대)의 '발우공양법의 수행 및 생태적 고찰' 등 18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한편 우제선 교수(동국대)는 <불교학연구> 신임 편집위원장에 선임됐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원통보전 전면해체 복원

9억8000만원 규모

보물 제516호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이 전면 해체 복원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월 28일 충북 보은군과 함께 원통보전의 지붕과 기둥, 벽체 등을 해체하고 부식된 목부재를 교체해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9억800만원 규모의 이번 해체 · 복원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통보전은 554년(신라 진흥왕 14년) 건립돼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됐다. 현재의 보전은 벽암 대사가 1624년(조선 인조 2년) 복원한 정사각형 1층 건물로, 지붕 중앙에서 4면으로 동일하게 경사진 사모지붕이 특징이다. 보전 내에는 2.8m의 목조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현재 불전 서쪽 기둥이 심하게 부식되고 나머지 기둥도 변형된 데다 1970년대 초 덧씌운 외벽 단청도 탈색된 상태다.

김진성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승가학과 (2년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스님들께 수행의 바쁜 일정 속에서 불교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이론과 의식을 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3기 승가학과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강의와 교계 최우수 교수진으로 스님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들을 선정하였고 2009년 원전강독과 훨씬 보강된 불교의식 교육을 선보일 본 대학에 스님들께 입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불교경전개요. 근본불교사상. 초발심자경문. 법화경강의. 불교의식	인도불교사. 대승기신론. 법화경강의. 불교의식
2학년	중국불교사. 유식 · 중관학. 법화경강의. 금강경 강화. 불교의식	화엄사상. 천태소지관(원전강독) 법화경 강화. 불교의식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 졸업자격 : 50%이상 출석한 분만 졸업가능.(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 출석체크)

▶ 강의 시간 (1학년1학기)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 20분				법화경 입문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2교시	오후 3시30분 ~ 5시				불교의식	근본불교	

■ 신입생 모집 : 총 60명 ■

구분	주간반 30명	인터넷반 30명
수업료	53만원(한 학기 분)	55만원(한 학기 분)
	입학금 10만원(입학시 1번만 납입)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 (단, 은사 추천 시)

▶ 특 전 : 1)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2)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추천

불교학과 (6개월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일반불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라는 교육이념 아래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3기 졸업생 2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 불교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본 대학에 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일깨워 줄 소중한 인연도량에 입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 교과목 소개 - 6개월 과정

교 과 목	강 의 소 개
근본불교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서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한국 최고의 교수님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불교신행강좌	이론적으로 배운 불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보현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입각하여 배우는 강좌
불교문화와사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자, 영어, 포교대화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제시

▶ 강의 시간표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2시 50분					근본불교	불교신행
2교시	오후 3시-3시 50분						불교문화와 사회

■ 신입생 모집 : 총 120명 ■

구분	주간반 60명	인터넷반 60명
수업료	18만원	20만원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가능 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바른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

■ 교수진 소개 ■

교 과 목	교 수	소 개
법화경 강의	홍파학장큰스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수료, 현 서울불교문화대학 학장
	박 종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동국대학 사범대학 부고 교사역임.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역임, 현 동산불교대학 교수
초발심자경문	운산 스님	전 강원 강사, 원전강독 강의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 · 박사 학위. 신락원(信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의식 강의	혜담 스님	1992년 인간문화재 정지광 스님 법상좌 범패, 장엄부문 문화재 이수자
	종일 스님	1967년 월하스님 문하 입산, 1979년 통도사 강원 졸업. 1999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 지정.
불교경전개요	이평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학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학과 이사장 역임
근본불교, 금강경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박사 수료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중국불교사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경대학 대학원인도 · 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유식 · 중관학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박사 수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 불교 전공
불교학과 신행강좌	여여 스님	불교학과 불교신행, 불교문화와 사회 강의
특 강	교계 최고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09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반명함판) 2매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입학일시 :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 처 :
1) 교학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우) 110-550)
2) 연락처 : 본 대학 교무처 ☎ 02)763-3001 / Fax. 02)763-5851
3) 인터넷자료 http://www.seoulbcc.kr 입학원서다운 가능
4) E-mail - yeodiamond@naver.com

일주문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

덕숭총림 원담문도회 대표 설정 스님은 3월 7일 수덕사(주지 응산)에서 제3대 방장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041)337-6565



설맞이 안양교도소 대중공양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위원장 현성 스님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26일 안양교도소 전 재소자에게 떡국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무비 스님은 1월 23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인드라망공동체 2009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월 7일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2009정기총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조계사 논산훈련소 방생법회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2월 10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있는 호국연무사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법진 스님(선학원 이사장)은 총 상금 1400만원의 '선리연구원 학술상'을 2월 26일까지 공모한다. (02) 734-9653



태고종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태고종립 삼보승가대학 학장 보경 스님은 전통문화전승관에서 2월 16일 오전 11시 제1기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오후 2시 전법사 수료식을 개최한다.



태고종-베트남 불교총련 자매결연

태고종 총무부장 묵원 스님은 2월 11~16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상호 불교문화교류 협정을 맺는다.



군불총 창립9주년 대법회

김태영 합참의장은 2월 20일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지혜로운여성 2009 정기총회

(사)지혜로운여성 이은영 이사장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 및 상담소 운영기금 마련 간이바자회를 연다.

"음다 넘어 선차의 정신문화로 도약해야"

창립 30주년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



1979년 1월 20일 한국 다도(茶道) 중흥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차인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92년부터 17년간 회장 소임을 맡아 단체를 이끌어 온 박권흠(77) 회장은 "그동안 전국에서 300여 지회가 생길 정도로 차문화가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다도가 음다(飮茶)문화를 넘어 선차(禪茶)와 같은 정신문화로 질적 도약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월 3일 종로구 경운동 차인연합회 다실에서 인터뷰를 가진 박 회장은 "지속적인 차인 양성을 통해 전통 차(茶)문화가 각 가정마다 보급돼 국민정신 순화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명맥이 거의 끊어진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온 차인연합회는 1979년 사단법인 창립을 기념한 첫 사업으로 한국 다도의 소의경전이나 다름없는 <동다송(東茶頌)>의 저자 초의(草衣: 1786~1865) 선사가 주석했던 해남 대흥사 일지암을 복원했다. 이후 '차의 날(5월 25일) 제정 선포'(1981), '하동 쌍계사 김대렴공 차시배지 추원비' 건립(1981), 매년 차의 날 '올해의 명차' 및 '올해의 명다기 품평대회' 개최(1993), 격월간 회지 <차인> 발간(1982), 청소년 차문화대전 개최(1993), 한국다도대학원 설립(1993), 국제차문화연토 서울대회 개최(1996), '올해의 차인상' 시상(2001), 팔도차문화 큰잔치(2005) 등을 통해 차문화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사명당기념사업회 회장 겸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경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불국사 조실 월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심 깊은 불자이기에 선차(禪茶)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누구보다 깊다. 때문에 차인들의 성금으로 복원한 일지암이 대흥사 선방으로 변모한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 회장은 "선방 운영도 좋은 일이지만, 모든 차인들의 정신적인 고향 일지암이 다시 차의 성지로 돌아오면 포교차원에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또 "대흥사 경내 동다송비에 기록된 '명원 김미희 선생이 일지암을 복원하였듯이'라는 대목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했다. 박 회장은 "일지암 복원은 한국차인연합회 차인들의 성금으로 이뤄졌으며 그 경위를 일지암 앞 비석에 새겨두었다"며 "'김미희 선생이 일지암을 복원하였듯이'를 '복원에 참여하였듯이'로 고쳐주시면 된다"고 정중히 요청하기도 했다.

희수(喜壽)의 고령임에도 한국 선차문화의 중흥과 사명 대사 추모사업, 다도 교육, 서화(書畵) 작업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5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박 회장은 "건강 비결이 차 마시는 데 있다"며 거듭 녹차를 권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문화관광벨트 조성"

미당 시문학관 이사장 법만 스님

시인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 전북 고창에 선운사와 미당 시문학관을 잇는 불교문화관광벨트가 들어선다.

미당 시문학관 이사장 법만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 · 사진)은 미당 서정주의 시 문학을 포함한 불교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친일 시비도 있으나 1000여 편이 넘는 작품 가운데 미당의 불교적 가치관은 친일 행적과는 별개"라며 "친일시비로 그의 업적이 평가절하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창 선운사는 생전의 미당 선생이 자주 찾으며 시혼(詩魂)을 닦았던 사찰이다. 절 입구에는 미당의 육필이 새겨진 〈선운사 동구〉시비(詩碑)가 서 있다.

법만 스님이 구상중인 불교문화관광벨트는 공동체문학관 건립 및 문인마을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스님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백일장, 학술대회 등을 펼치는 미당문학축제를 열어 지역문화 행사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만 스님이 벤치마킹한 것은 인제 백담사. 스님은 "백담사는 만해 스님을 주축으로 불교문학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며 "선운사를 미당 서정주와 함께 하는 불교문화도량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문화관광벨트 사업 외에도 미당의 스승인 박한영 스님(1870~1948)의 기념관 건립도 계획 중이다. 올해는 석전 스님 열반 6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뇌경색·소장암·당뇨까지…

생명나눔 2월의 환우 조원석씨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안해본 일 없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뇌경색에 소장암, 이제는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2월의 환우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고통받는 조석원(57)씨를 선정했다.

환경미화원이던 조씨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007년 12월 겨울, 새벽일을 하던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뇌병변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2008년 5월 소장암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11월에 다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무릎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곧 허벅지 이하를 절단하는 추가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씨의 부인은 남편의 간병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식당일을 하다 2006년 목 디스크 수술과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조씨 부부는 2008년 6월부터 국가보조금 70만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의 수술과 치료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조씨 부부가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02)734-8050,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지구촌공생회 케냐에 핸드펌프 8기 완공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월 26일 케냐 마사이족 올롤로필(Olorropil) 마을에 핸드펌프 8기를 완성했다. 10개월간의 난공사 끝에 완공된 이번 펌프로 2400여 마사이족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노덕현 기자

안일사 주지 선광 스님 대구모범시민 표창



대구 안일사 주지 선광 스님은 2월 2일 대구 남구청(청장 임병헌)에서 열린 '대구 변화의 날' 행사에서 대구모범시민 표창을 받았다. 선광 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법왕사 쌀 100포 수성구청에 전달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월 23일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100포를 수성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법왕사는 매년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몇차례씩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금강종 신년 하례법회 봉행



대한불교금강종(종정 무학당)은 대구 인각사에서 2009년 1월 16일 종단 간부들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무학당 스님은 "종단 화합과 기도 정진으로 어려운 나라경제를 일으키라"고 법어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설명회'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2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진행됐으며 22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 7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6개월 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6개월 과정)

■ **지도교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9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모집인원 – 0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범패 · 의식과정 – 화요일 , 목요일 (주 2회), 오후 3시 ~ 5시
작법 · 무용과정 – 수요일 (주 1회), 오후 1시 ~ 오후 3시
• 접수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과 함께한 대중공양 현장

"정진으로 응공 되시옵소서"



"공양을 베푼 것은 복이 매우 많다. 비구들이 너에게 한 덩어리의 밥만을 먹더라도 그 복덕이 한량 없느니라."(사분율 제13권)

부처님은 공양의 공덕을 묻는 재가신도에게 이렇게 설하셨다. 불가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복전(福田)으로 불리는 큰 공덕 중 하나다. 특히 부처님 당시 3개월 안거기간동안 걸식조차 못하는 수행자들에게 올리며 시작된 대중공양은 '해제날 갖은 음식을 베풀면 지옥 아귀중생도 구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공덕이 한량없다.

이처럼 불교만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 정월 대보름 해제일을 앞둔 1월 30일 재가신도의 대표단체인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 조계종의 대표적 참선도량인 희양산 봉암사(鳳巖寺)를 찾아 대중공양을 봉행했다.

부처님의 성도가 있게 한 '수자타의 공양'처럼 대중공양의 깊은 뜻과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평시 일반인의 출입을 엄금하는 특별선원 봉암사도 문을 열었다.

세속과의 인연이 쉽지 않은 사찰로 수많은 대중들이 일주문 어귀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길. 불교인재개발원 최재동 이사 등 임원진과 신도 50여 명은 새벽같이 준비해 먼 길을 달렸다. 삼동 기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봉암사 일주문을 지나 겨우내 내린 잔설이 쌓인 희양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대웅전에 이르렀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니 조용히 해주시고, 사찰 전경은 담지 말아주십시오."

카메라로 경내를 담으려는 경솔한 기자의 마음을 원주 스님이 조용히 타이른다.

신도일행이 경내를 둘러본 지 얼마 후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대웅전에서 나와 선방으로 이동한다. 가지런한 뒷모습에서 행선(行禪)의 향기가 희양산 꼭대기까지 퍼지는 듯하다.

재가자들은 경내를 잠시 둘러보고, 봉암사 계곡을 따라 백운대(白雲臺)에 위치한 마애보살좌상을 참배했다. 흰 구름(白雲)처럼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바위 위에서 정성스럽게 참배하는 모습에는 추위가 범접치 못한다.

특별선원 '특별히' 문 열고 수행복전 일궈

안양에서 온 구본진 (51)씨는 "봉암사에 네 번째 대중공양을 왔다. 수좌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어 대중공양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의 방문에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은 법공양으로 답례했다. 스님은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배슬여빙 무연화심 아장여절 무구식념'(拜膝如氷 無戀火心 餓腸如切 無求食念; 무릎이 에어내도 불 그리워 말고, 주린 창자 끊어져도 음식생각 말듯 수행에 전념하라는 뜻) 구절을 인용하며 "경제난으로 봉암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이 힘들지만, 스님들은 어려우면 공부를 더 잘 하니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스님들이 선방에 공양 올리는 것 또한 재가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올 한해 힘들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덕담하고,

항상 모든 일에 복이 가득하라는 '동지만복(動止萬福)'이라는 휘호를 선사했다.

법회 후에는 최재동 이사가 보시금을 전달했다. 한 신도는 배웅 나온 한 스님께 예쁜 바랑도 선물했다.

봉암사를 처음 찾았다는 황원기 박사(50, 과거사정리위 민족독립조사국 조사관)는 "수행결사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한 역사적 현장에 직접 와보니 감회가 새롭고, 현 법전 종정 스님을 비롯한 종정 5명과 총무원장 스님 7명 등 오늘날 큰 스님을 배출한 현장에 오니 그 기를 받는 듯하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곡절이 있지만, 묵묵히 수행하는 선승들이 있기에 내실을 기할 수 있었던 불교계. 한국 불교계는 사리와 같은 선승들의 정진과 함께, 수행을 뒷받침하는 보살들의 신심이 함께 해 존재할 수 있었다. 재가자들의 실천을 화두로 던지며 희양산의 저녁은 깊어갔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일승묘법 활짝 피도록"

삼광사 신임 주지 화산 스님 취임

35만 불자의 부산 대표 천태종 사찰 삼광사가 제10대 주지로 화산 스님을 맞았다.

삼광사는 2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제10대 주지스님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육법공양, 법어봉독, 직인전달, 취임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새 주지 화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동식 KBS부산총국장 등 정관계인사 및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참석해 3층 규모의 지관전을 가득 메웠다.


부산 삼광사 제10대 주지로 취임한 화산 스님.

정여 스님은 "삼광사는 신도 수만 35만 명이 넘는 부산 불교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새 주지로 오신 화산 스님의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종단이 한마음으로 2009년을 부산불교 중흥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축하했다.

이어 화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이 우리 중생들에게 큰 의지처가 된 것처럼, 신명을 다해 같을 길을 걸어 35만 삼광사 불자들의 마음에 새겨두고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중창이념을 받들어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힘써 부산에 일승묘법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한 제10대 주지 화산 스님은 1996년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감사와 2001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청주 명장사, 서울 명락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천태종 총무원 책임노전과 14대 종의회 법제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1월 3일 삼광사 주지 임기를 마친 前 주지 영제 스님은 서울 관문사 주지로 취임했다. 이날 부득이 참석치 못한 前 주지 영제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삼광사 불자들을 만난 것은 참으로 큰 복이기에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가슴에 새겨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언제나 삼광사 불자다운 뜨거운 불심으로 천태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원 기자

"학사관리 등 종무지침 준수하지 않았다"

조계종, 부산불교교육대학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 취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이하 포교원)이 포교사고시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취소했다.

포교원은 1월 16일 기존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취소하고, 1월 24일 교계신문을 통해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공고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진구 부전동에 위치, 2002년 4월 23일 조계종으로부터 신도전문교육기관 최고 등급인 '갑종 제2002-7호' 인가를 받았다.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으면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부산불교교육대학 또한 2008학년도까지 우수한 포교사를 배출해 부산경남지역 명문학교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1월 16일 포교원은 공고문을 통해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준수해야할 대학 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으로 부득이 본종 종법령에 의거 2009년 1월 16일자로 기존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포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인가가 취소된 1월 16일 이후 2009학년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조계종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불교대학이라는 명분 등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신입생을 받은 경우에는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교육생으로 인정되지 않고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7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교사양성 교육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가 취소를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포교원 쪽에서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자비이고 또 부처님 법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강선태 학장은 2월 2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현모 총동문회장은 "어떻게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 문제를 방치했는지 의아하고, 한때 최고였던 우리 대학의 명성에 오점이 돼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 측에서 반성하고 자성해 다시 인가를 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2008학년도 재학생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18기 재학생 김모씨는 "함께 공부한 대부분의 학우들은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했는데 더 이상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면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며 "입학 당시 200여 명이던 학생들이 백중기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2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즈음 약속했던 강사진의 70% 이상이 교체되고, 여래정사라는 학내 사찰이 들어서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명문 불교대학이다. 사진은 부산불교교육대학 수업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심해, 학교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다시 한번 취득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명문 불교대학이란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염불공양 원력담긴 장학금 전달

부산 염불공양회 창립 15주년 총회

부산 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법명 성심행)는 2월 2일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가정 학생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이번 정기총회는 염불공양회 봉사자 및 후원회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09년 정기총회, 장학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0명에 각 30만원, 대학생 4명에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이 전달됐다. 하정선 회장은 "소정의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염불공양을 하는 엄마들이 주는 장학금인 만큼 원력이 담겨있어 타 장학금에 비해 남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불자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 염불공양회는 1995년 염불을 통한 봉사를 목적으로 발족, 400여 명의 회원 모두 여성 불자로 구성돼 현재 무료장례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통도사서 선보인 야콘환·즙 '인기'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에서 작년부터 야콘 재배

양산 통도사의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대표이사 정우)이 처음 출시한 '야콘환, 야콘즙'에 대한 불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통도사 영농조합이 첫 출시한 야콘환과 야콘즙의 원료인 야콘을 수확하는 농감 보근 스님.

통도사는 2008년 봄부터 영축산 자락인 통도사 경지 내 반야암 일대에서 야콘 재배를 처음 시작해, 10월초 '야콘환'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야콘즙'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특히 '야콘환'은 야콘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하고, 잎과 뿌리의 유효성분을 적절히 배합하기 위해 잎 40%, 뿌리 40%, 다시마 10%, 검은콩 10%를 배합해 환으로 개발했다. 야콘은 고구마처럼 단맛이 나고 배 맛처럼 시원하고 수분이 많다. 주요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 인뉼린, 폴리페놀 등이며 알칼리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어린잎은 샐러드용으로 이용하고, 수확기의 잎은 차로 이용하며 대표적인 요리로는 야콘냉면, 야콘국수, 야콘호떡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런 야콘은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이 첫 번째 상품화한 작물로 재배는 비교적 쉽지만, 싹을 틔우고 수확 후 겨울철 보관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하다.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의 '야콘환' '야콘즙'은 통도사 만세루와 육각정, 서울 조계사, 표충사 등에서 판매중이며 향후 판로를 늘려갈 계획이다. (055) 384-9458 박지원 기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할 터"

'거창군 삶의 쉼터' 2대 관장 선용 스님



경상남도 거창지역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시설 '거창군 삶의 쉼터'는 1월 20일 초대관장 심우 스님과 제2대 관장 선용 스님(아림사 주지·사진)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양동인 거창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용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재가복지사업에 중점을 둬 '찾아오는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을 친부모 형제처럼 받들며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20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거창군 삶의 쉼터'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며 지금까지 애써준 초대 관장에게 감사드린다"며 "2대 관장으로 취임하신 선용 스님이 본 관이 명실공히 거창지역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개관 1주년을 앞둔 '거창군 삶의 쉼터'는 현재 노인 1300여 명, 장애인 300여 명의 회원이 이용중이다. 올해를 성장 기점으로 '거창군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 취임한 관장 선용 스님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지원 기자

대한불교 무량종

승려(사미.사미니) 법사 득도희망자 모집공고



미타종지 근본 도량 대한불교 무량종 지리산 총본산 금강계단 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하고자 **승려(사미. 사미니)법사.득도 희망자 방부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하오니 뜻있는 분은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1.불심이 견고하며 민.형사상 결격 사유가 없고 득도 자격을 가진자로서 승려나 법사 과정을 희망하고 정상적인 승적을 갖고져 하시는분.
2.사설 사암(寺庵)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단등록을 못하였거나 출가 수계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승려. 포교법사 자격을 얻어 출가하고저 하시는분.

■ **모집인원** : 00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 **면 접** : 2009년 3월 18일 오전 11시

■ **면접장소** : 무량종 총본산 종무소(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 **교육기간** : 1차 – 2009년 3월 18일(수) 부터 ~ 3월 24일(화) (7일간)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주민등본 1통. 여권사진 3장.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준 비 물** : 법복. 장삼. 목탁. 요령. 필기도구. 세면도구 ■ **교 육 비** : 300,000원

■ **접수문의** : **055)882-1599** (총무원) / **055)883-7771, 7790** (총본산)

불기 2553(2009)년 2월 1일

대 한 불 교 무 량 종 총무원장 보 경

용산희생자 추모 시국법회

광주 금남로서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국법회가 2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기에 앞서, 1월 31일 광주 금남로에서 '용산철거민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봉행됐다.

행사에는 광주 비구니 회장 상운 스님(흥룡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정선 스님(대광사 주지), 일면 스님(금선사 주지) 등 스님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남도 발전기원 대법회 봉행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공동 주최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등 전남지역 조계종 4개 본사협의회는 2월 5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정 발전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 종회의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 회장),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등 300여 스님과 박준영 도지사(전남도), 송석태 회장(전남도청 불자회)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지 복원에 불교계 참여토록 하겠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서 간담회


2월 2일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 복원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구를 불교계와 상의 없이 출토해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가 1월 22일 문화재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익산불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연등회(회장 최문순)가 문화재청에 사과요구 질의서를 보내는 등 불교계 항의가 거세지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익산지역 불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월 2일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복원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와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 전주 전북 포교사단(단장 김진수) 임원 등 지역불교계 관계자를 비롯해 김완주 도지사(전북도), 김봉건 소장(국립문화재연구소)이 참석했다.

우성 스님은 "미륵사지 발견 유물은 문화재이기 이전에 불자들에게는 성보"라며 "사리구 발견시 불교 전통이운의식도 없이 발굴 작업이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익산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학계 및 민간 협력추진위원회 구성시 불교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내 문화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기상 국장(전북도 문화예술국장)은 "이번 성보발견을 계기로 발견유물을 전북도에 보관 · 전시하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 역사문화적 가치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역사교과서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미륵사지의 전반적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 관련전문가및 민간협력추진위원 구성하겠다"고 익산 미륵사지 관련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선 1월 30일 익산불교사암연합회(주지 우성 · 백운사 주지) 등 익산지역 불교계는 '익산미륵사지석탑 성보발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익산불자들은 "미륵사지 석탑 발굴 사리구 등의 발굴시 불교계 의견수렴과 참여가 배제된 점,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해 불교적인 전통의식도 없이 급하게 언론에 공개한 점, 공개현장에서도 일반인과 언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탑 위에 함부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된 점 등은 불교계와 불자들을 우롱한 행위로 명백한 훼불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무 문화재청장과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성명서 발표가 있자, 김봉건 소장은 일부 사암연합회 스님과 신도회 박중근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보존처리 후 일반 공개에 앞서 불교전통 이운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흰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佛 불광승복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달 가사불사
주문 받습니다

가사불사
승복일체
수 련 복
장삼불사
단 체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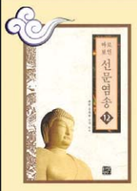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1-29 103호 한빛아크빌
02)383-3681 / 011-879-3681 윤병대 합장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반여기도등잔

특허 10-2008-0128283



비바람이 불어도
세상을 밝힙니다.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으름 청소걱정 NO!!

소자본 고소득 창업희망자
대리점·영업사원모집

금강정사 · 금산요
054)473-5805 / 010-3805-3527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120회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2월 14일(토) 저녁 9시~
2009년 2월 15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장갑2개,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결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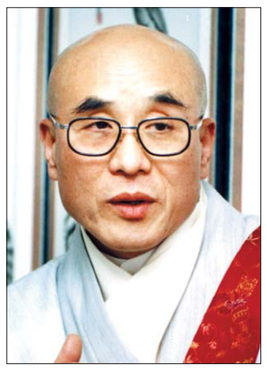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교육·포교사업, 복지활동 강화할 것"

태고종 2009 주요 종무정책 발표



태고종은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불교대학, 삼보승가대학, 태고총림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강원, 전법사 교육원의 기반시설을 정비 · 확충하는 등 종도 교육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 · 사진)은 종도 교육사업 강화 등 올해 주요 종무사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시 · 도교구별, 사찰 단위별로 수행과 연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 강화 △종단 차원의 승려 법계별 연수교육 확대, 전법사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제도 확립으로 종도 의식수준 향상 및 포교활동에 기여 △중앙승가전문강원의 제도를 정비하고 활성화해 인재 양성 △종단 승려의 체계적인 종단관 확립 및 자질 향상을 통한 종단 위상 제고 △각종 교육행사시 외부 전문인 초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포교활동 및 복지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전국 시 · 도교구 종무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희망 나눔' 포교활동을 전개, 소년소녀가장 ·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각 지역 단위 사찰별로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도법회도 봉행한다. 또 1사찰 1선행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영산재 해외공연 확대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문화 · 해외 교류사업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제3회 국토순례대장정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분야별 '명인 지정제'를 실시해 전통 민족문화 유지 · 계승활동도 추진한다. 봉원사 연꽃축제, 법고대회,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펼친다.

태고종은 이외에도 △종단 정체성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한 활동 △지역 불교 활성화 사업 △태고총림 선암사 성역화 및 율원 활성화 사업 등을 2009 핵심 종책사업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회정 정사 불기소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2일 진각종에서 체탈도첩된 최세정 · 손개락 · 손덕호씨가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를 상대로 낸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농림촌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위조했다고 주장하나 농림촌은 인감도장 교부에 앞서 홍천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을 종단에 위임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홍천 부동산 매각대금 횡령에 대해서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천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해 진각종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매각대금 50억원은 당초의 낙찰금액 43억 5580만원 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인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들이 이를 50억원에 매각한 것을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총무부장 효심 정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전 종도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불법적으로 종단에 해종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생활불교 실천 도량으로 운영"

영제 스님 관문사 주지 취임

총무원장의 주지겸직이 관례이던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 새 주지 스님이 취임해 눈길을 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2월 1일 관문사에서 제5대 주지 영제 스님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스님들과 박성중 서초구청장, 이동우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는 △국운융창 발원 △신도회장 개회사 △신임 주지 약력 보고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제 스님은 취임사에서 "관문사는 법회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종합불교회관"이라며 "생활 · 대중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관문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모든 신도들이 불교 생활화 실천을 통해 대중화를 일군다는 각오로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천태종 주요 수도권 전법도량 관문사는 "서울에 큰 천태사원을 세우라"는 상월 대조사 유촉에 따라 1998년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창건됐다. 기도와 입교법회를 마친 불자만을 신도로 인정하는 등 높은 수행력과 신심을 갖춘 불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상월 대조사가 1971년 재가불자안거 시 당부한 뒤 유명무실해진 '관세음보살 100만 독송'을 여법하게 회향해 수행 분위기를 쇄신했고, 신도회 산하의 다양한 신행단체를 구성하는 등 도심형 포교활동에 매진해왔다. 2007년부터는 중국 북경 영광사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해외 포교에도 앞장서 왔다.



2월 1일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봉행된 제5대 주지취임법회에서 이금복 신도회장(사진 오른쪽)이 영제 스님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관문사 주지는 총무원장이 겸임했던 것이 관례였기에 이번 영제 스님의 주지취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총무부장 무원 스님은 "이번 인사는 총무원장스님이 종단 전체를 아우르는 종무행정에 힘쓰고, 종단 부장스님들이 서울지역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아 원활한 종무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이번 영제 스님 주지취임은 천태종이 수도권 도심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월 4일 발표된 천태종 인사에서 영제 스님(교정부장) 외에도 경천 스님(사회부장)과 무원 스님(총무부장)을 각각 서울 성룡사와 명락사 주지로 발령하는 등 총무원 부장스님 3인을 서울지역 사찰주지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관문사의 새 주지스님 취임이 수도권 일대 관음정근 수행과 포교의 새 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관음주송 통해 지혜로운 법우로 거듭나자"

천태종 전국청년회, 학생회·어린이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

천태종 청년 및 지도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2월 1일 단양 구인사에서 '전국청년회, 학생회 · 어린이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날 법회는 총무원장 정산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을 비롯한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법회에 앞서 종정 도용 스님은 삼보당에서 청년회원 및 지도교사와 대화를 갖고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 불교의 깊은 진리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정산 스님은 법회에서 "여러분이 천태종 입문 당시의 첫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 · 보살의 마음"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대승보살행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2월 1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 '전국청년회, 학생회 · 어린이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

오순학 중앙청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불자들이 관음주송을 통해 묵묵히 마음의 밭을 가는 지혜로운 법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불자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지구별로 연 2회 연합법회와 체육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날 법회에 참석한 전국청년회원들과 지도교사들은 도용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천태종 대덕스님에게 신년하례인사 후 적멸궁을 참배했다.

김진성 기자

태고종 중앙강원 '삼보승가대학'으로 변경

대교·사교·초심사집 과정 모집 16일까지

태고종 승려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해오던 중앙승가전문강원이 삼보승가대학(학장 보경)으로 명칭변경하고 학인모집 특전을 확대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명칭변경 및 특전확대는 타강원과의 차별성을 두고 교육의 문을 보다 확대개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보승가대학은 3월 16일 입학 및 개강하는 대교 · 사교 · 초심사집과정 학인을 모집한다.

<화엄경>을 1년(2학기)동안 교학하는 대교과정은 주2회 수업하며, 응시자격은 △중앙강원 · 선암사강원 · 보덕사강원 사교과정 졸업자 △종단 종덕법계 이상 수지자 △타종단 승려로서 승납 20년 이상자 △기타 불교학과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다. 대교과정 졸업자 중 기법계 수지자가 상위 법계에 응시할 경우 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교과정은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을 2년(4학기)동안 교학한다. 주2회 수업하며, 응시자격은 △중앙강원 · 선암사강원 · 보덕사강원 사집과정 수료자 △동방불교대학 졸업자 또는 종단 구족계 수지자 △타종단 승려로서 승납 15년 이상자 △기타 4년제 정규대학 불교관련학과 졸업자다. 사교과정을 마친 승려들에게는 중덕법계가 수여된다.

초심 사집과정은 2년(4학기) 과정으로 <치문> <서장> <도서>를 교학한다. 주2회 수업하며, 응시자격은 △기본교육 이수 대상 사미(니) △승납 10년 미만 종도로서 희망자 △타종단 승려로서 승납 10년 미만자다. 초심사집과정을 수료하면 선덕법계가 수여된다.

각 과정의 입학을 원하는 대상자는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kr)에서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2월 16일까지 총무원에 우편 ·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1학기당 80만원이며, 초심사집 과정자 중 전승관 입방자(10명 이내)는 수강료 전액 장학 혜택 받을 수 있다. (02)739-3450(내선 113번)

김진성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3월 2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❷

"꽃 피고 물 흐르듯 살아보자"

[원문]
장상명주일과한(掌上明珠一顆寒)
자연수색변래단(自然隨色辨來端)
기회제기친분부(幾回提起親分付)
암실아손향외간(闇室兒孫向外看)
–가야산 해인사 명부전

[번역]
손바닥 위의 영롱한 한 개의 구슬
색은 자연을 따라 변함이 없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친절히 알려 주었건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밖에서만 찾네.

[선해(禪解)]
인간의 삶은 유한(有限)하고 자신이 살아온 길에 따라 부침(浮沈)이 심하다. 하지만 자연은 천년이 지나도 그 빛깔을 결코 잃지 않는다. 자연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무수히 많지만 그 이치를 잘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이다. 자연의 발성법(發聲法)은 무념 무심(無念無心)이다. 진리를 그냥 밖으로만 드러내고 있을 뿐, 그저 침묵하기만 한다.

자연의 발성법은 무념 무심, 진리 그냥 드러낼 뿐
부처님과 항상 같이함에도 업연으로 진체를 못 봐

봄이 되면 잎이 피고, 여름이면 짙푸르고, 가을이면 남김없이 자신의 몸을 지우는 잎, 겨울이면 새로운 잎을 틔우기 위해 인내하는 나무, 이렇듯 자연은 진리 그 자체이며 이를 인간은 깨쳐 알아야 한다. 자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삼독(三毒)과 오욕락(五慾樂)에 젖은 인간들은 잘 모른다. 허나 자연은 세세생생(世世生生) 영원하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나는 역사에 대한 짙은 의미를 체감(體感)했다. 역사란 하나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장대한 역사 앞에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시냇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

옛 백제의 고읍(古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천 년 전에 만들어진 국보급의 영롱한 '사리장엄구(砂利莊嚴具)'가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그 형체가 변변치 못해 겨우 시멘트로 덧 씌워진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하나의 볼품없는 석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석탑이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던 게다.

늘 그렇듯이 자연이 주는 위대한 힘을 오늘 나는 목격했다. 이런 현장을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운이다. 사리금제호 표면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과 세공기법은 백제금속공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한다. 가히 한국 불교의 전통성이 새삼 드러난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7세기에 세워진 석탑이니 140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게 아니다. 인간의 삶은 겨우 백년도 살지 못한다. 아니 죽어 그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육신이다. 하지만 사리금제호는 무려 1400년이란 장대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후세에 발견된 것이다.

가히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가야산 명부전에 새겨진 주련(柱聯) '손바닥 위의 영롱한 한 개의 구슬/ 색은 자연을 따라 변함이 없어라'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 또한 천년의 국보에 새겨진 문안(文案) 또한 가히 불세(佛世)의 내용이다.

'가만히 생각하건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感應)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王宮)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舍利)를 남겨 삼천 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니 마침내 오색(五色)으로 빛나는 사리(舍利)를 7번 요잡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하다'라고 적혀 있다. 실로 가슴 뭉클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충만하여 안 계신 곳이 없다. 시방(十方)과 상생(相生)을 초월해 사람은 물론, 모든 풀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입지 않은 게 없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모든 역사를 고스란히 가슴 속에 품는다. 부처님의 법신 자체도 그 속에서 남아 흐른다. 때문에 재재처처(在在處處)가 불찰불신(佛刹佛身)이오, 삼라만상이 청정법신(淸淨法身)이며 어느 곳 어디엔들 상적광토(常寂光土)가 아닐 수 없으며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지혜가 암둔하고 업장이 후중한 까닭에 부처님과 항상 호흡을 같이하고 동정(動靜)하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이 곁에 있는 걸 잘 모른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진체(眞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지없는 업연(業緣)의 소치 탓으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불신(佛身)은 법계에 충만하고 모든 중생들 앞에 항상 나타난다. 또한 인연법에 따라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항상 부처님이 계셔야 할 보리좌(菩提座)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 부처님은 우리의 주변에 항상 계시면서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쯤에서 원효 대사의 말씀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땅에 왜 부처가 있어야만 하는가? 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처님이 우리들 곁에 있어야만 하는가? 원효 선사는 부처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는 부처의 세상에서는 결코 필요 없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필요한 것이다."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언(法言)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중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불국토(佛國土)에서는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를 두고 사바세계에서는 석가모니불이요, 미륵세계에서는 미륵용화불이라고 한다. 바로 이 고통 받는 세간에 부처가 필요하다. 묘(妙)한 이치이다. 1400년 전에 세워진 석탑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옥과 극락이 마치 딴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찰나 사이에 갈라진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하나에 달려 있다. 자연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를 가르쳐 주었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간파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진리를 구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우치(愚癡)의 소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꽃은 피고 물은 흐르듯이 그저 자연이 던져주는 진리에 순응하여 몸을 기대고 사는 게 바로 부처의 삶이며, 자연이 우리들에게 던져 주는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깔을 가진 영롱한 옥(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중생들은 이를 깨달아야만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

"내게 묻는 것이 그대 마음"

[원문]
問曰 若不立文字 以何爲心 答曰汝問吾 卽是汝心 吾答汝 卽是吾心.

여쭙기를, "본 바탕자리는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어 따로 언어나 문자를 빌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하셨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라!"

[해설]
삼처전심(三處傳心;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마음(법)을 전했다는 일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가섭 존자에게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앉게 한 일은 가섭 존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대중에게 꽃을 들어보일 때 가섭 존자가 그 참뜻을 알고 빙그레 웃어 답을 하자 다시 제자를 인정하셨습니다.


보응 스님 作 달마도(백양사 소장).

<법화경>을 설하실 때 천상에서 꽃비가 내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많은 꽃 가운데 한 꽃을 잡아서 대중을 상대로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단순히 '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꽃의 참뜻을 일러라'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죽비를 들어보이면서 '일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사들이 그렇게 하죠. '일러라!' 그럼 여러분들은 '일러라!' 할 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지난 호에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뜻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면 제가 이 죽비를 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한소식을 했다고 소문이 나자, 한 스님이 찾아가서 대나무로 엮은 토시를 보이면서 "일러라!" 했을 때, "토시라고 해도 맞지 않고 토시가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죽비를 보이며 "일러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이때 용(用) 차원에서 묻는 거냐, 체(体) 차원에서 묻는 거냐 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체'라는 것은 우주의 실상(實相)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그 체에서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러라!" 했을 때는 이 죽비의 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비의 본래자리를 일러라!" 하고 묻는 겁니다.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본래자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 스님처럼 '토시의 본래자리를 일러라' 한 건데 입을 열어 설명했기 때문에 '그르친 자리'이고 본래자리에 대한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못받은 거예요.

이 죽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러라!" 했을 때, 입을 떼면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모양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 욕심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이 아닌, 텅 빈 것입니다. 마음에서 보면 텅 비어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과학에서도 증명했듯이 일체 현상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 물질을 분석해 들어가니 에너지와 파동으로 이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실상자리, 마음의 자리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모양이 있어야 하고, '없다'고 하면 아주 없어야 되는데 있기는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마음은 다 있지만, 그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편리한대로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실상자리, 본래 그 자리는 표현할 수도, 규정지을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언어나 문자를 빌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렇게 달마 스님에게 제자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라."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통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고, 대답하는 것도 마음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옵니까?" 하고 물으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달마 스님의 마음이나 조주 스님이 거쳐했던 뜰앞의 잣나무라고 한 답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스님이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른 똥 막대기다" 했단 말이에요. '똥 막대기'나 '부처님의 마음자리'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 한 그대로 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체'의 입장에서는 바른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스님이 주장자를 보이면서 대중에게 "일러라!" 하거나, 주장자를 땅! 땅! 땅! 세 번 치고 일러라 할 때, "일러라!" 하는 것은 '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입을 떼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삼배를 하던지 같이 할(喝)을 "악!" 하던지 하면 답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비에 대해서 일러보거라!" 하면 '체'가 아니라 '용'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들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 안경이나 죽비나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 어떤 질문이라도 답이 나가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金 仙 양 생 법

" 정통 선도의 법만을 지속적으로 전수하여온 금선학회에서 제9기 백일 축기 금선 양생법 특별반 을 모집합니다."

깨달음은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육체는 즉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함으로써 얻습니다.

유불선(儒佛仙) 은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깊은 공부와 수련을 해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큰 깨달음을 얻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참선 수련을 해도 우리 육신의 오비(奧秘)와 정신세계의 상관을 알지 못하고는
법륜(法輪)을 얻기는 참으로 힘들고
수련(修鍊)으로 극복 못한 육체의 체내 잡념은 깊은 삼매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이 침잠하여 명경지수(明鏡止水)의 혜명을 여는 공부로 가야 합니다.

◆ 수행 과정 중 주화입마로 상기증(참선으로 인한 부작용), 몸의 불편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수련인 여러분들을 위한 성명쌍수(性命雙修)수련의 좋은 기회를 경험하여 보십시오.

수 련 일 정	2009년 2월 20일 ~ 5월 31일까지 (100일간), 3월 1일 ~ 5월 31일까지 (90일간)
수 련 장 소	세계금선학회 본원 (사당역11번출구 150M. 은혜빌딩 6층)
수 련 내 용	1.금 선 공 법 : 금선 오행 기공, 금선 관법, 명상, 묘유주천, 소주천, 대주천 ,양신 ,구년면벽 2.금선 양생법 : 영보필법, 수도전지, 대성첩경, 혜명경 3.수진도 내경도
자 격	• 정통 선도 공부 수련을 원하시는 분. • 좀더 깊은 경지의 수행을 원하시는 수행자. • 진정한 건강을 원하시는 분. • 수행 과정 중 주화입마 상기(참선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

** 금선학회 발전에 국내외 지도자로서 기여코자 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 금단의 땅으로 구도여행을 떠납니다.

7月 3日 백두산출발 ⇨ 태산 ⇨ 무당산 ⇨ 무이산 ⇨ 종남산 ⇨ 화산 ⇨ 티벳라싸 ⇨ 수미산 ⇨ 구계왕국 ⇨ 네팔카투만두 ⇨ 포카라 ⇨ 룸비니 ⇨ 인도델리 ⇨ 아그라 ⇨ 라닥 ⇨ 다람살라 ⇨ 델리 ⇨ 서울 ⇨ 국내수련 천일을 수련합니다.

세 계 金 仙 학 회 ■ 교육문의 : 02)512-7057, 7233 / 010-2208-6608 www.kumsunacademy.org 금선학회.net

참선은 쉽고 어려움 초월한 생명 그 자체

명정 스님(극락선원장)



경봉 스님 선과 차 맥이어… '삼소굴' 추울까봐 매일 장작불

"찻물 온도가 우리 체온과 비슷해야 차의 참맛 알 수 있지"

밤새 달빛 내려와 노닐었던 마당을 스님 한 분이 대빗자루로 쓱쓱 쓸고 있다. 굴러다니는 한두 잎의 가랑잎을 쓸어낸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속 무언가를 쓸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인은 열반에 든지 오래건만 삼소굴에서 아침 연기가 피어오른다. 근대 한국 선종에 우뚝 솟은 큰 봉우리인 경봉스님께서 머물렀던 삼소굴에 생전처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누군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부지깽이로 장작불을 채근해 보았다. 아궁이 입구를 막아놓고서 삼소굴 툇마루에 앉아보았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온 몸을 감싸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경봉 스님 가신지 오래지만 미닫이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시면서 "여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하고 물으실 것 같다.

효상좌로 이름 난 명정 스님은 추운 겨울이면 삼소굴이 행여나 추위에 떨까 걱정되어 아침저녁으로 불을 때워 다습게 한다. 명정 스님은 경봉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줄곧 곁에서 시봉을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으며, 지금도 극락암에 머물면서 경봉 스님이 남기고 간 정신과 유물을 지키고 있다.

명정 스님은 차의 대가이자 선객으로 널리 알려져 있건만 자신의 그런 명성보다는 '경봉 스님의 상좌'라는 말 듣기를 더 좋아한다. 경봉 스님의 선풍과 차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명정 스님의 생각이다.

금빛 아침 햇살이 창호문을 비추고 있다. 명정 스님께서 끓는 물을 화로에서 내려 놓은지 한 시간여가 지났다. 차는 뜨거울 때 마셔야 되는데 스님은 어쩌자고 찻물을 저렇게 식히고 있는지 객의 마음은 걱정스럽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명정 스님은 몇 뭉치나 되는 경봉 스님의 사진을 낱낱이 보여주신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경봉 스님의 사진집을 출간해 근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명정 스님의 발원이다. 경봉 스님은 19세부터 85세까지 66년 동안 일지형식으로 쓴 일기를 남겼는데, 이 일기에는 당시의 사회상과 한국불교가 그대로 담겨있어 중요한 유물로 남았다. 경봉 스님의 사진 또한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를 아우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명정 스님은 다관에 찻잎을 듬뿍 넣으면서 "차는 뜨겁게 마시는 것이 아녀. 물의 온도가 우리 체온과 비슷해야 차의 참맛을 알 수 있지"라고 하신다. 우려낸 차는 색과 향이 진하다. 입안에 감도는 맛이 진하다 못해 알싸한 맛이 느껴진다. 하지만 명정 스님의 차를 마시고 나면 잡스런 맛이 없는 담백함에 반하게 된다. '한 잔의 차에 선가(禪家)의 살림살이가 모두 들어있다'는 말이 있듯이, 명정 스님께서 우려낸 차맛에는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만큼이나 지중한 수행과 시간이 녹아있다.

"다기는 작은 것으로, 마음 씀도 7세 이전으로, 물도 적게, 온도도 뜨겁지 않게, 찻물도 몇 방울로, 이렇게 내 뜨락을 적시며 자신에게로 회복(廻復)해 가는 것이지."

짙은 한 잔의 차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해탈시켜 주는 선가의 음료인가 보다. 다선일여(茶禪一如)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은사 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슬픔은 가슴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깊었지만 드러내 놓고 울 수도 없는 일, 그래서 한 마디 여쭈었다.

"스님께서 가시고 나면 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모습입니까?"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경봉 스님은 웃으시면서 이 한 말씀을 남기고서 원적에 드셨다. 화두와도 같은 경봉 스님의 이 한마디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정 스님께 물어 온단다. 명정 스님 왈 "조주 화상 시절 같으면 '차 한 잔 마셔 보면 안다'하면 될 터이고, 운문 스님 같으면 '떡이나 먹게'라고 한 마디 툭 던지면 되는데 그런 시절도 아니니 답하기 곤란하지. 선구(禪句)는 설명하면 사구(死句)가 되고 또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벌써 허물이 설악산만큼이나 커지는 이 집안의 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이해할지…"

명정 스님은 궁색하지만 답변을 준비해 보았단다.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하는 말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대로 알아야 해. 세상의 비밀이란 남이 모르게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부처님의 비밀은 몽땅 드러내어 귀를 뚫고 말해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모르는 것이니 오늘 밤 삼경에 대문 빗장을 한 번 더 만져보게."

명정 스님의 답변 또한 어렵기 매 마찬가지다.

"선문에 원앙수출종군간 막파금침도여인(鴛鴦繡出從君看 莫把金針渡與人)이라는 말이 있어. 원앙새를 수놓아 보일지언정 바늘까지는 주지 말라는 뜻이지. 원앙새를 수놓는 것이 일호(一好)의 끝 경지야. 그런데 그 일호는 자기가 미치고 환장해서 헤매고 땀 흘리며 찾는 보물이지 바늘을 챙겨 준다고 해서 수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 바늘을 줘봐야 쓸데가 없는 거지."

공부라는 것은 손안에 쥐어 줄 수도 없지만, 설령 품안에 넣어 준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이다. 명정 스님은 무슨 말씀이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시지, 직설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경봉 스님의 유품으로 당대의 선지식들과 서간으로 선문답을 주고받았던 편지와 66년간 기록한 일기는 몇 가마니가 되었다.

"한 삼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초서체로 쓰여진 스님의 글을 파고들었지. 내 책상 앞이 둘러 꺼졌어.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나 이게 무슨 뜻인고, 의자에 앉아 꽤나 끙끙거렸지."

명정 스님은 불가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초서 번역에 아주 능하다. 경봉 스님은 일찍부터 명정 스님의 한문 실력을 간파했다. 경봉 스님께서 어느 날 다른 절의 낙성식 글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때 명정 스님이 덧붙인 몇 마디가 스승을 놀라게 했으며,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면서 상좌의 글솜씨며 한문 실력을 인정했다. 경봉 스님은 당신의 책과 일기 등 책갈피 안쪽마다 '증 명정선자(贈 明正禪子)'라는 글과 함께 게송까지 덧붙여 남겨놓았다. 명정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경봉 스님 말씀>, <경봉 일지>를 비롯하여 당대의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서한집 <삼소굴 소식> 등을 출간했다. 유난히 기록을 꼼꼼하게 했던 경봉 스님의 글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명정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경봉 스님의 고졸하고도 담백한 문장이 명정 스님의 손끝에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극락암의 수행 가풍과 선향을 맛보게 하였으며, 몇몇 사람들은 출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인연을 지었다.

차를 우려내는 명정 스님의 손길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은 286컴퓨터처럼 더 느릿느릿하다. '이 산중까지 와서 객진번뇌(客塵煩惱)와 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언제 마음공부 할라나?' 그런 일갈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은사님은 뜻이 통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눈 밝은 납승이 찾아오시면 '시자야, 염다래(拈茶來) 하라.'고 이르셨어. '차 다려오라'는 말인데 그것이 그렇게 멋스럽게 들리데. 동도동격(同道同格)의 눈 열린 이에게 최상의 대접은 일완청다(一椀淸茶)지."

명정 스님은 눈 밝은 이, 눈 어두운 이를 가리지 않고 누가 와도 차 한 잔을 내놓으니 조주 스님의 청다(淸茶)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명정 스님은 극락암에 붙박이처럼 있으면서 경봉 스님의 시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거철이 되면 걸망지고 선방을 오갔으며 그런 운수납자의 생활이 40여 년이 넘는다. 명정 스님께서 한 마디 툭 던지는 말씀이 바로 선어가 되고 선시가 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사요소요(師了燒了)라. 죽어서 화장막에 가서 태워 버리면 한 줌의 재가 되리니 너의 주인공은 어느 곳에 있는가? 선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선은 학문일 수 없고, 오히려 이지(理智)가 침몰된 뒤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어느 선원에서 경봉 스님께 '영산회상의 꽃을 들어 보인 도리'와 '조주의 앞니에 털이 난 것' 그리고 '서산의 고기에 뿔이 난 도리'를 물어왔다. 여기에 경봉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였다.

몇 군데나 이렇게 물었나/ 일구(一句)도리를 해결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밝고 원만한 생각이 극락"

하지 못했구나/ 고인들이 씹던 지게미를 탐하지 말라/ 보검으로는 송장을 베지 않노라/ 미소(哂)

"옛 도인들은 한 가지 이치로 넉넉하게 통하는 도리를 즐겼던 분들인데, 그 도인들이 씹던 지게미를 가지고 번거로이 묻는 것은 허물이 크다는 말씀이지.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으면 구태여 말을 궁리해가며 선문답을 할 필요가 없어. 이 도리는 말이나 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사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한 푼어치도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극락암에 오면 고즈넉한 산사의 풍광에 반하게 되고 어쩐지 참선이나 명상수행을 통해 도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명정 스님께 불쑥 묻는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 정신집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선조 때의 청매 조사는 고요한 산중 선방에서 나와 일부러 시끄러운 장터로 공부하러 다녔어. 사람들이 붐비는 장바닥 한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순일하게 잘 되면 '오늘은 장을 참 잘 보았구나' 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오늘은 장을 잘 못 보았구나' 하며 자기의 공부를 점검했어. 청매 조사는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선을 했지."

인간의 업식(業識)은 수만 년 열심히 본능적으로 그 밑 빠진 독을 채워 왔기에 그 업식을 바꾸려면 극심한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단다.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일수록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단련하는 데 진정한 묘미가 있는 것이란다. 명정 스님은 말미에 "그렇다고 참선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야. 참선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지"라고 덧붙인다.

"사람은 옹골 찬 신념이 있어야 해. 신념이라는 것은 행선지요, 표지판이야. 만약 행선지가 없는 차(車)라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얼마나 무모하게 헤매고 다니는지를 생각해 보면 행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이 신념이란 진리의 이상향으로 향해서 가는 원동력인 것이야."

산중에 계시지만 산 아랫동네의 소식을 훤히 꿰고 있는지라, 명정 스님은 민중들의 삶이 어렵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셨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 마음에 따라 거지도 되고 왕자도 되며 생각에 따라 지옥과 천국이 판이하게 벌어져. 희망에 부풀어 밝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며 생각하는 발상부터 무언가 다르고 차이가 나지. 아무리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참고 견디어 밝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머지않아 축복이 오리라는 신념을 지니고 살아야지. 하루 종일 퍼붓는 소나기는 없으니까."

경봉 스님은 극락암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대문 밖을 나서면 돌도 많고 물도 많으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물에 미끄러져 옷도 버리지 말고 잘들 가라" 는 말씀을 하셨다. 명정 스님은 "마음속으로 밝고도 원만한 생각을 지닌다면 거기가 바로 극락인 것이니, 다시는 극락암을 찾지 말라"고 이르신다. 스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산목련 꽃향기를 들으러 와야지요.

향기 소리 깊은 곳에 차 한 잔 마시러 와야지요.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명정 스님은 1959년 해인사로 출가, 1960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의 시자가 되었다.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40년 넘게 운수납자(雲水衲子)로 평생을 참선 수행에 전념해 왔다. 현재 영축총림 극락선원 선원장으로 있다. 편저서로는 〈경봉 스님 말씀〉 〈삼소굴 이야기〉 〈경허집〉 〈한암집〉 〈신심명〉 〈茶이야기 禪이야기〉 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0〉 일붕 서경보 스님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126개나 받고 선필(禪筆) 100만장, 시비 757개, 동상 95개를 세우고, 159개국 5,000개 단체에서 세계법왕으로 추대하고, 112개국 1,046개 단체에서 존자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일붕 스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 전권대사로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매일 같이 책을 엮어 저서가 1,042권이나 되고, 수계불자가 6,832명이나 된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왕관만도 다섯 개나 되었다.

스님은 1996년 4월 24일 인천불교삼장대학(종립대학)에서 창립법어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4월 4일 의령 낙성식에 참석하고, 13일 서울삼장대학 졸업식을 보고, 18일 초청법회를 하신 후 24일 인천에 내려가니, 83세 노인으로서는 과로가 되었던 것이다. 스님은 26일 입원하시며, "아무래도 내가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인천대학 학장은 한정섭 법사께 부탁하라"하여, 그 후 3년 동안 인천대학 일을 본 일이 있다. 스님과의 인연은 1960년에 동국대학교 시절부터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김대은 스님께 여러 차례 들었다.

"경보 스님은 제주도 분이다. 1914년 서귀포에서 태어나 32년 산방굴사에서 스님이 되었으나, 도서지방에서는 불교를 바로 배울 수 없어 35년 육지로 올라와 전주 위봉사 춘담 스님에게 '일붕'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전주 교도소에 갔다가 대은 스님을 만나니 감방 안에서 쓴 원고를 조건 없이 주시면서 "서울에 가서 큰물에 놀아야 한다" 하여, 개운사 대원암 박한영 스님을 뵙고 동국대학에 들어가 불교학을 전공한 것이 해인대학, 동아대학 교수가 된 계기가 됐다. 1958년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깨닫고 45세의 늙은 나이로 10대 어린이들과 영어공부를 하였다.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불국사 주지, 동국대 불교대학장으로 있을 때 외국 손님들을 잘 알아 접대하고 또 상호교환하여 교환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얀마 상가대학에 간 것이나, 독일 함부르크대학, 스리랑카 골롬보대학, 영국 런던대학에 유학하고 교환교수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대은 스님 말씀 따라 영어를 잘 한데다가 외교를 잘 한 영향이 컸다. 언젠가 한번 법왕청에서 공양청을 하여 가니 스리랑카 스님 몇 분과 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보 스님상(제주 광명사).

"내가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 때문이다. 독일 광산에 많은 광부들이 가 있고 간호원들이 와 있었는데 몇일부터 어느 대학에서 불교강연대회가 있다고 신문기자가 미리 와서 내 사진을 찍어 신문에 냈는데, 머나먼 나라에 와서 한복 입은 스님을 보니 고향생각이 나서 수백명이 모여 왔어요. 그래서 모두 글씨 한 장씩을 써주고 격려하였더니, 또 다른 신문에 선필에 능한 대선사가 왔다고 대서특필하여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불교법왕이 된 이후부터는 회색빛 장삼을 벗고 노랑색 가사를 입었다. 이것은 동남아 일대 사람들이 모두 노랑가사를 입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 인도불교가 황색가사를 많이 입은데 원인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콜롬비아대학 교환교수로 갔다가 캘리포니아대학 강사가 되기도 하고, 워싱턴대학, 하와이대학 교수로 있다가 백림사에 선종대학을 세우기로 하였다.

1990년 제17차 WFB대회 때는 김광애 박사와 박동기 · 전판근 · 정철 호법단장의 노력에 의해 35개국 8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 장장 9일 동안의 행사를 원만히 치뤘다. 복장도 의식(儀式)도 달랐지만 국제보살계와 판차실라를 통해 세계불교가

세계평화 · 화합 위해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

일불제자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인류를 기아와 무지, 병고액난으로부터 구하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을 강조했으니 1700년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포교한 사람이 많지만, 일붕 스님이 씨를 뿌려 송산 스님이 가꾸어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으로 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 볼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을 아시면서도 왜 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를 설명해 놓고, "녹야원에서 쿠시나가라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했다" 하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3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학과 관련한 자유주제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3) 선정 인원과 상금 : 우수상(1명) 500만원,
(3명) 1인당 300만원
4)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4) 이력서(주소 · 전화번호 · 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5) 제출기한 및 발표
(1) 제출기한 : 2009년 2월 11일 ~ 26일 오후 5시까지
(2) 선정 및 통보 : 2009년 3월 10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3) 논문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09년 5월 (예정)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09년 6월
6) 주의사항
(1) 선정자는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2)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1) 발표주제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3)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연구방법론
(4)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2) 발표문 분량 : A4 7~8매
3) 발 표 자 격 : 박사과정 이상자
4)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5) 특 전
(1) 발표비 : 1인당 30만원
(2)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3)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9657
팩 스 02)734-9622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
연구원 메일 seonhakwon@paran.com

(재) 선 학 원 한 국 불 교 선 리 연 구 원

공생선원 봄 개강



혜거큰스님께 듣는 능엄경
• 법 사 : 혜거큰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3월 5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선문촬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3월 3일 참선반 / 3월4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밝고 원만한 생각이 극락"

하지 못했구나/ 고인들이 씹던 지게미를 탐하지 말라/ 보검으로는 송장을 베지 않노라/ 미소(哂)

"옛 도인들은 한 가지 이치로 넉넉하게 통하는 도리를 즐겼던 분들인데, 그 도인들이 씹던 지게미를 가지고 번거로이 묻는 것은 허물이 크다는 말씀이지.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으면 구태여 말을 궁리해가며 선문답을 할 필요가 없어. 이 도리는 말이나 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사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한 푼어치도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극락암에 오면 고즈넉한 산사의 풍광에 반하게 되고 어쩐지 참선이나 명상수행을 통해 도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명정 스님께 불쑥 묻는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 정신집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선조 때의 청매 조사는 고요한 산중 선방에서 나와 일부러 시끄러운 장터로 공부하러 다녔어. 사람들이 붐비는 장바닥 한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순일하게 잘 되면 '오늘은 장을 참 잘 보았구나' 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오늘은 장을 잘 못 보았구나' 하며 자기의 공부를 점검했어. 청매 조사는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선을 했지."

인간의 업식(業識)은 수만 년 열심히 본능적으로 그 밑 빠진 독을 채워 왔기에 그 업식을 바꾸려면 극심한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단다.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일수록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단련하는 데 진정한 묘미가 있는 것이란다. 명정 스님은 말미에 "그렇다고 참선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야. 참선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지"라고 덧붙인다.

"사람은 옹골 찬 신념이 있어야 해. 신념이라는 것은 행선지요, 표지판이야. 만약 행선지가 없는 차(車)라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얼마나 무모하게 헤매고 다니는지를 생각해 보면 행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이 신념이란 진리의 이상향으로 향해서 가는 원동력인 것이야."

산중에 계시지만 산 아랫동네의 소식을 훤히 꿰고 있는지라, 명정 스님은 민중들의 삶이 어렵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셨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 마음에 따라 거지도 되고 왕자도 되며 생각에 따라 지옥과 천국이 판이하게 벌어져. 희망에 부풀어 밝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며 생각하는 발상부터 무언가 다르고 차이가 나지. 아무리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참고 견디어 밝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머지않아 축복이 오리라는 신념을 지니고 살아야지. 하루 종일 퍼붓는 소나기는 없으니까."

경봉 스님은 극락암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대문 밖을 나서면 돌도 많고 물도 많으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물에 미끄러져 옷도 버리지 말고 잘들 가라" 는 말씀을 하셨다. 명정 스님은 "마음속으로 밝고도 원만한 생각을 지닌다면 거기가 바로 극락인 것이니, 다시는 극락암을 찾지 말라"고 이르신다. 스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산목련 꽃향기를 들으러 와야지요.

향기 소리 깊은 곳에 차 한 잔 마시러 와야지요.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명정 스님은 1959년 해인사로 출가, 1960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의 시자가 되었다.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40년 넘게 운수납자(雲水衲子)로 평생을 참선 수행에 전념해 왔다. 현재 영축총림 극락선원 선원장으로 있다. 편저서로는 〈경봉 스님 말씀〉 〈삼소굴 이야기〉 〈경허집〉 〈한암집〉 〈신심명〉 〈茶이야기 禪이야기〉 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0〉 일붕 서경보 스님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126개나 받고 선필(禪筆) 100만장, 시비 757개, 동상 95개를 세우고, 159개국 5,000개 단체에서 세계법왕으로 추대하고, 112개국 1,046개 단체에서 존자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일붕 스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 전권대사로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매일 같이 책을 엮어 저서가 1,042권이나 되고, 수계불자가 6,832명이나 된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왕관만도 다섯 개나 되었다.

스님은 1996년 4월 24일 인천불교삼장대학(종립대학)에서 창립법어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4월 4일 의령 낙성식에 참석하고, 13일 서울삼장대학 졸업식을 보고, 18일 초청법회를 하신 후 24일 인천에 내려가니, 83세 노인으로서는 과로가 되었던 것이다. 스님은 26일 입원하시며, "아무래도 내가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인천대학 학장은 한정섭 법사께 부탁하라"하여, 그 후 3년 동안 인천대학 일을 본 일이 있다. 스님과의 인연은 1960년에 동국대학교 시절부터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김대은 스님께 여러 차례 들었다.

"경보 스님은 제주도 분이다. 1914년 서귀포에서 태어나 32년 산방굴사에서 스님이 되었으나, 도서지방에서는 불교를 바로 배울 수 없어 35년 육지로 올라와 전주 위봉사 춘담 스님에게 '일붕'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전주 교도소에 갔다가 대은 스님을 만나니 감방 안에서 쓴 원고를 조건 없이 주시면서 "서울에 가서 큰물에 놀아야 한다" 하여, 개운사 대원암 박한영 스님을 뵙고 동국대학에 들어가 불교학을 전공한 것이 해인대학, 동아대학 교수가 된 계기가 됐다. 1958년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깨닫고 45세의 늙은 나이로 10대 어린이들과 영어공부를 하였다.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불국사 주지, 동국대 불교대학장으로 있을 때 외국 손님들을 잘 알아 접대하고 또 상호교환하여 교환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얀마 상가대학에 간 것이나, 독일 함부르크대학, 스리랑카 골롬보대학, 영국 런던대학에 유학하고 교환교수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대은 스님 말씀 따라 영어를 잘 한데다가 외교를 잘 한 영향이 컸다. 언젠가 한번 법왕청에서 공양청을 하여 가니 스리랑카 스님 몇 분과 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보 스님상(제주 광명사).

"내가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 때문이다. 독일 광산에 많은 광부들이 가 있고 간호원들이 와 있었는데 몇일부터 어느 대학에서 불교강연대회가 있다고 신문기자가 미리 와서 내 사진을 찍어 신문에 냈는데, 머나먼 나라에 와서 한복 입은 스님을 보니 고향생각이 나서 수백명이 모여 왔어요. 그래서 모두 글씨 한 장씩을 써주고 격려하였더니, 또 다른 신문에 선필에 능한 대선사가 왔다고 대서특필하여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불교법왕이 된 이후부터는 회색빛 장삼을 벗고 노랑색 가사를 입었다. 이것은 동남아 일대 사람들이 모두 노랑가사를 입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 인도불교가 황색가사를 많이 입은데 원인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콜롬비아대학 교환교수로 갔다가 캘리포니아대학 강사가 되기도 하고, 워싱턴대학, 하와이대학 교수로 있다가 백림사에 선종대학을 세우기로 하였다.

1990년 제17차 WFB대회 때는 김광애 박사와 박동기 · 전판근 · 정철 호법단장의 노력에 의해 35개국 8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 장장 9일 동안의 행사를 원만히 치뤘다. 복장도 의식(儀式)도 달랐지만 국제보살계와 판차실라를 통해 세계불교가

세계평화 · 화합 위해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

일불제자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인류를 기아와 무지, 병고액난으로부터 구하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을 강조했으니 1700년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포교한 사람이 많지만, 일붕 스님이 씨를 뿌려 송산 스님이 가꾸어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으로 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 볼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을 아시면서도 왜 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를 설명해 놓고, "녹야원에서 쿠시나가라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했다" 하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3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학과 관련한 자유주제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3) 선정 인원과 상금 : 우수상(1명) 500만원,
(3명) 1인당 300만원
4)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4) 이력서(주소 · 전화번호 · 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5) 제출기한 및 발표
(1) 제출기한 : 2009년 2월 11일 ~ 26일 오후 5시까지
(2) 선정 및 통보 : 2009년 3월 10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3) 논문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09년 5월 (예정)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09년 6월
6) 주의사항
(1) 선정자는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2)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1) 발표주제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3)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연구방법론
(4)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2) 발표문 분량 : A4 7~8매
3) 발 표 자 격 : 박사과정 이상자
4)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5) 특 전
(1) 발표비 : 1인당 30만원
(2)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3)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9657
팩 스 02)734-9622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
연구원 메일 seonhakwon@paran.com

(재) 선 학 원 한 국 불 교 선 리 연 구 원

공생선원 봄 개강



혜거큰스님께 듣는 능엄경
• 법 사 : 혜거큰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3월 5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선문촬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3월 3일 참선반 / 3월4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⑥

마음속 상상하는 관법이 수행의 으뜸

此十二息 皆從觀想心生 今略明十二息對治之相 上息治沈重 下息治虛懸 滿息治枯瘠 焦息治腫滿 增長息治羸損 滅壞息治增盛 煖息治冷 冷息治熱 衝息治壅塞不通 持息治戰動 和息痛治四大不和 補息資補四大衰 善用此息 可以遍治衆患 推之可知

열두 가지 호흡은 상상으로 관찰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대략 열두 가지 호흡으로 병을 대치하는 모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상식(上息)은 몸이 무겁게 가라앉은 병을 다스리고, 하식(下息)은 몸이 허공에 뜨듯이 허한 병을 다스리고, 만식(滿息)은 몸이 수척하고 바짝 마른 것을 다스리고, 초식(焦息)은 종기가 가득한 것을 다스리고, 증장식(增長息)은 몸이 파리하고 체중이 줄어든 것을 다스리고, 멸괴식(滅壞息)은 몸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다스리고, 난식(煖息)은 냉병을 다스리고, 냉식(冷息)은 열병을 다스리고, 충식(衝息)은 기가 막혀서 소통하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 지식(持息)은 몸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고, 화식(和息)은 지수화풍 사대가 조화되도록 다스리고, 보식(補息)은 사대가 쇠약해진 것을 보호한다.

이 열두 가지 호흡을 잘 사용한다면 모든 병환을 두루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중음신(中陰身)이 최초 일념으로 태속에 들어갔을 때는 보식(報息)을 한다. 태속에서 어머니의 호흡을 의지해 아이가 점점 크게 자라나 바람 길이 매끄럽게 성취되면 아이의 호흡 출입은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다. 태어나면 어머니와 처소를 달리하여 각자의 호흡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식이라고 한다.

호흡을 의지한다 함은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령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지는데, 이것이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난 호흡의 하나의 예다.

앞에서 육기(六氣)는 보식에 상상을 더하였고, 지금 열두 가지 호흡은 호흡을 의지하여 상상을 함께 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호흡은 동일하지 않다.

앞에서는 다섯 가지 색깔을 따라서 오장에 병이 일어났지만 여기에선 오장을 의지해서 병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호흡을 의지해서 병을 치료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열두 가지 호흡을 할 때에 각각 마음속에 상상을 따라서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힘써야 될 것은 반드시 모든 병의 근원을 자세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행자가 호흡을 할 때에 절대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두고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점이 가장 요긴하다.

부처님의 올바른 지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그림자로 인해 생긴 병은 그림자 봐야 나아

有師言 善用假想觀 能治衆病 如人患冷 想身中火氣起 卽能治冷 此如雜阿含經治病秘法七十二種法中廣說

앞에서 호흡은 상상을 함께 하여 많은 종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가상관(假想觀)으로 병을 치료해야 한다.

어떤 스님은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관법을 훌륭하게 사용한다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옛날에 치명적인 종기를 앓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했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종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팔에 조그마한 부스럼이 너의 생명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마땅히 그 부스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그 소리를 듣고 병자는 지극 일심으로 작은 부스럼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지속하였더니 큰 종기가 완전히 치유되었는데, 이것은 상상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마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냉병을 앓는다면 마음속으로 불기운을 상상하면 냉병을 치료할 수 있고, 열병을 앓는다면 밖으로 시원하고 맑은 바람을 받아들인다고 상상하면 열병이 치료될 수 있다.

'잡아함경' 에서는 칠십 두 가지의 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밝히고 있는데, 낱낱이 모두가 관심방편으로서 치료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함경'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사위국에 이름이 신거라는 장자가 있었다. 그 집안에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생김새가 극도로 추악하여 항상 집밖에서 잡초를 뽑거나 물을 긷는 등의 가장 하천하고 힘든 일만 해왔다.

어느 날 여종은 홀연히 야외로 나아가 샘물을 보았다. 샘물가에는 나무가 있었고 나무위에는 단정한 여인이 목을 매 죽어있었는데, 샘물 가운데 죽은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여종은 그것이 죽은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그림자라고 여겼다. 여종은 나무위에 있는 시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면서 '내 모습이 단정해 그의 부인이 되거나 어린 딸이 되고도 남는데 어떻게 나에게 항상 천한 일만 시키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물 긷는 항아리를 깨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배 휘장 속에 말없이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집 주인은 그녀가 미쳤다고 여기고 그간의 일을 여종에게 물었다. 여종은 앞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에게 '내 모습이 이처럼 단정한데 무엇 때문에 우대를 하지 않느냐' 고 하였다. 주인은 말을 하지 않고 즉시 거울을 비춰보게 하였더니 여종은 거울 속엔 추악한 모습만 보이는데도 믿지 않고 거울이 추악하다고 하였다.

주인은 우물가에 죽은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종을 우물가로 보내서 죽은 여인의 그림자가 샘물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자기의 용모가 단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였다. 이로 인해 여종은 그동안의 일을 확실히 알고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림자를 보는 것으로 인해 병이 일어났다면 역시 그림자를 봐야 만이 병이 낫는다는 점이다.

옛사람은 매화열매의 신맛을 상상하며 목마름을 그치게 하였고, 하얀 모래를 곡식으로 상상하여 주린 배를 채웠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상상으로 관찰하여 이뤄진 모습이다.

청정한 수행자라면 상상으로 수행하는 법을 갖춰야만 가장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에서 부처가 되며 모든 부처님의 올바르고 보편한 지혜가 모두 마음의 상상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상상할 때에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삼십이상 팔십종호가 된다. 상상에 진실이 있고 텅 빈 곳에 실제가 있다. 올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 자기가 이미 연꽃 속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불하면 결정코 성불하게 된다. 따라서 수행을 하는데 있어 상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최상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해탈론(解脫論)

삼법인(三法印) ②

삼법인과 연기법은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로 상통합니다. 즉 연기법으로는 삼법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삼법인으로는 세간 일체법을 정확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목적은 유정세계를 개발 인도하여 모든 중생이 무아법성(無我法性)의 이치를 깨달아 궁극적으로 정각을 증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삼법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간의 일체는 무상이고 무아임을 관찰하였다면 자신도 무상이고 무아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뻐하고 슬퍼했던 일들은 일장춘몽에 불과하고, 과거의 화사했던 소년시절은 바로 오늘의 늙은 자신일 것입니다. 찰나찰나 무상하게 변화하면서 그 변화가 필경 공적의 세계로 환멸해야만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선 일체법은 모두 공적이라고 설파하고 있는데, 이 공성(空性)이 바로 일체만법의 진실한 성품입니다.

이처럼 공적이 모든 중생들의 진실한 실체라면 살아 있다 해도 기뻐할 것도 없고 죽었다 해도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관찰해야만 생사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는데, 이를 불교에선 열반경계라고 합니다.

삼법인은 사물의 진상을 실체 그대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수행실천의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법인 낱낱의 심오한 의미는 하나의 법인마다 정각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령 무상을 의지해서 깨달으면 그것은 삼해탈문(三解脫門) 가운데서 무원해탈문(無願解脫門)이 되며, 무아를 의지해서 깨달으면 공해탈문(空解脫門), 열반적정을 의지해서 깨달으면 무상해탈문(無相解脫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셋을 합일하면 현세의 무상을 관찰하여 그것은 무아임을 깨닫고 바로 즉시 열반적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제법문은 중생들의 이고득락법을 인과관계로 추구하여 제시했으나 세간의 문제는 단순하게 사제인과론만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를 초월하려면 우주일체의 사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야만 하는데, 우주일체의 사물은 결코 원인없이 찾아오지 않듯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결과 역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십이연생론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십이인연관을 통해서 세상이 모두 무상한 인연관계성이고, 그것이 있다 해도 무아임을 간파했다면 현실에 미혹하지 않고 무상한 생사인과를 초탈하여 열반적정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법인이 나란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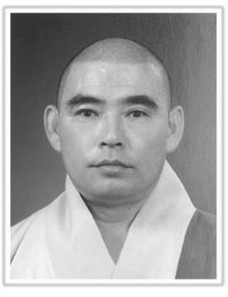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화,수,목 (숙식가능)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렵니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일본에 가 있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관부연락선을 타고 귀국했다. 남영도 26세의 청년이 돼 관부연락선을 탔다. 누가 보더라도 남영은 멋을 한껏 낸 청년신사였다. 그는 흰 양복 상하의에 가을햇살을 받아 번들거리는 백구두를 신고 있었다. 남영은 귀국하는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중절모를 손에 든 점잖은 신사가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유학생 같구먼.”

“견문을 넓히고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만.”

“공부하는 목적도 그런 게 아닌가.”

중년신사는 남영을 유학생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조선인 출신의 교토대학 교수였다. 그도 역시 교수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영은 중년신사의 신분을 알고는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드러냈다.

“일본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조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라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을 가지요.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하하하. 세속의 욕망을 초월한 길을 가겠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중년신사는 남영에게 호감이 가는지 자꾸 질문을 던졌다.

“일본에서는 무슨 공부를 했는가.”

“무슨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고 옳은 삶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 일본어로 된 여러 서적을 읽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겠군.”

“동양철학 중에서도 불교서적을 많이 탐독했습니다.”

“사숙했던 선서(禪書)가 있다면.”

“<선관책진(禪關策進)>을 보고 느낀 바가 컸습니다.”

<선관책진>이란 명나라 말기에 운서 주굉(雲棲株宏)선사가 60여 명의 선사들이 실제로 참구하고 깨친 경지를 모아 편찬한 선(禪)의 입문서를 말했다. 남영의 의지는 확고했다. 귀국하면 부모에게 인사드린 뒤 곧 출가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었다. 남영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입산 출가의 길이었다.

중년신사는 더 질문할 것이 없는지 침묵했다. 남영은 뱃머리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았다. 배는 크고 작은 파도를 가르며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대해로 들어섰는지 검푸른 파도가 높게 일었다. 구릉처럼 몸집이 큰 파도들이 연달아 배를 밀어붙였다. 파도가 하얗게 갑판을 타고 넘기도 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모두 객실로 들어갔다.

승객을 가득 태운 배는 목적지를 향해 쉬지 않고 항해했다. 남영은 3등 객실에 앉아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 한번 정해놓은 길을 바꾸지 않고 가는, 아무리 큰 파도가 가로막더라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되리라고 다짐했다.

남영은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뱃전으로 나갔다. 파도는 여전히 무섭게 달려들었다. 남영은 일본 임제종의 고승 일휴(一休)선사와 몰락한 남조(南朝) 왕후였던 선사의 모친이 남긴 유언서를 떠올렸다. 일본 고승전집을 읽던 중 일휴 선사 편에서 선사의 모친 유언서를 읽고는 도 닦을 마음이 간절해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을 굶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해 무위(無爲)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바라건대 너는 속히 출가승이 되어 너의 불성(佛性)을 밝게 깨닫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는 장차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대장부라면 불조(佛祖)가 다 너의 심부름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책을 내려놓고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부처님께서 사십구년 설법하고서 단 한 자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응당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알아야 할 것을 안다면 무익한 망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9월 1일

추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만약 네가 어떤 방편설만 의지한다면 너는 단지 한 마리의 무지한 벌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팔만 장경을 다 외우고도 자성(自性)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이 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남영은 이를 악물었다. 일휴 선사의 모친이 환생하여 자신에게 당부하는 말 같았다. 일본의 한 자취방에서 일휴 선사의 모친 유언서를 보았을 때나 지금이나 발심이 울컥 솟구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생을 무지한 벌레처럼 살지 않으려면 자성을 보고 깨달으라는 일휴 선사 모친의 당부가 또다시 남영의 심혼(心魂)에 불을 붙였다.

남영이 가고자 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니 경전은 물론 동서양의 어떤 철학 서적 속에도 그 길이 있을 리 만무했다. 어떤 성인이나 위인도 답해줄 수 없는 자성(自性)을 보고 닦는 길이었다. 다만, 그 길의 방향을 암시해주는 게송 하나가 남영의 가슴속에 말뚝처럼 박혀 있을 뿐이었다. <선관책진> 책장을 넘기면서 무심코 보았던 게송이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으되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도다.
我有一卷經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

게송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남영이 입산 출가해 깨닫고자 하는 구경(究竟)이었다.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의 경전, 펼치면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큰 광명을 발하고 있는 자성, 말하자면 남영의 출가란 그것을 보고 닦고자 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남영은 고향에 도착한 날부터 자신을 붙잡으려는 부모와 부딪쳤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 마당이 두 배나 넓고, 공동우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을 한 채 사드렸지만 남영의 부모는 남영에게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 남영을 서둘러 결혼시키려고 했다.

남영은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서옹(西翁) 선사에게 받은 <금강경>을 읽으며 번민하는 마음을 비질했다. 남영이 교토에 머물고 있을 때 서옹은 이미 출가승이 돼 있었고, 임제종 계통의 일본 절에서 유나(維那) 소임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남영은 부모의 강권으로 두 번이나 선을 보았지만 출가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처녀를 구하러 다녔다. 남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난감했다. 선을 본 처녀의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도 못할 짓이었고, 처녀의 혼인길을 애꿎게 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남영은 부모가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우스꽝스런 꾀를 냈다.

“어머님, 비구니스님이라면 결혼하겠습니다.”

남영의 말에 어머니가 반색하며 물었다.

“어디에 사는 비구니스님이냐.”

“백양사 암자에 있습니다.”

부모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백양사로 달려갔다. 그러나 남영과 결혼할 비구니스님은 백양사 어디에도 없었다. 백양사 비구니스님들이 크게 소리내어 웃는 바람에 창피만 당했다. 마침내 부모는 남영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는 몹시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남영은 마음이 상한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출가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남영을 어르고 달랬다.

“결혼한 뒤에 출가하면 안 되겠느냐. 백양사를 가게 다가서서 합장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스님이 되려고 왔습니다.”

스님은 남영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흰색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남영을 반겼다.

“잘 생각했다. 왜 중이 되려고 하느냐.”

“남의 처녀 망치지 않으려다 보니 일이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중이 되고 싶다는 말이냐.”

“참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마. 내 상좌 해라.”

그러나 며칠 후, 남영은 대처승 일봉(一峰)에게 실망했다. 자신에게 계를 준 일봉은 절골에 마누라와 자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남영은 한 노스님을 붙들고 ‘우리나라에서 도 닦기에 어느 곳이 가장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스님은 ‘해인사에 도인이 있지’ 하고 대답했다.

남영은 일봉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 주기로 한 날 미련 없이 해인사로 도망쳤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어떤 대사가 남영 업어가는 꿈 세 번이나 꾼 모친 인연이라 여겨 어렵게 출가 허락해

서옹 스님 방황하는 남영에게 ‘금강경’ 주며 번민하는 마음 다스리게 해

보니 결혼한 뒤 스님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

“그럴 생각이었다면 일본에서 출가했을 것입니다. 결혼한 일인(日人) 스님들도 참선 공부는 역시 우리나라 절에서 해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것입니다. 해방 전해에 귀국하신 서옹 스님도 <금강경> 한 권을 주시면서 참선하라고 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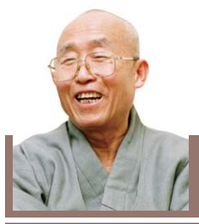
부모는 더 이상 남영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못했다. 더욱이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 어떤 대사가 남영을 업고 가는 꿈을 세 번이나 꾸었다.

“여보, 아무래도 남영이가 스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사가 남영이를 업고 가는 꿈을 세 번이나 꾸었어요.”

“아무래도 남영이가 스님이 될 인연인 것 같소.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남영이를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남영은 부모에게 출가를 허락받고는 백양사로 올라갔다. 한 스님이 법당에서 염불을 끝내고 나오면서 얼굴이 상기된 남영을 맞이했다. 남영은 스님에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3>

이토록 많은 세상 언제 생겼을까?

(715호에 이어서) 이러한 세계마다에 이름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사바세계(娑婆世界)라 한다. 현재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의 교화하실 국토이지만 다른 불국토 역시 그와 같은 공간에 숱한 중생이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국토(國土)를 의보(依報)라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정보(正報)라 하니, 국토의 예정은 거기에 태어날 동업중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두가 정토의 배성이 되기를 발원하라는 것이 이 국토설의 취지이시다.

이토록 많은 세계들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일체유심조(一切惟心造),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불교의 대의이니, 답은 그 근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례, "나보다 먼저 생겼고, 나보다 더 큰 우주를 내가 만들어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하고 달려든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인 동시에 불교의 맛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먼저 나라는 말의 정의를 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이 육신뿐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동작이 모두 나라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오늘의 나가 아니라 지난날 나의 뿌리인 무명(無明)의 소치라는 것이다.

무명이란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다는 말로서 어리석음[癡]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나의 무명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 이 세상도 만들어내고, 이 몸도 받아서 여기까지 깊숙이 빠져 들어왔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난날 무명에 끄달리지 않았더라면 이 몸뚱이나 이 세계라는 틀 안에 갇혀서 살 것이 아니라 훨씬 자유로운 세상에서 즐겁게 살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무명에 의해 이 세상이 생겼는가. 무명은 어두운 것이어서 항상 밝음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무명의 어두움이 밝음을 상대하려는 반대개념이 '에너지화'해서 부단히 마찰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람이다. 이 바람의 둘레와 두께가 점점 커지면서 넓은 우주공간에 세력권을 형성하니, 그 두께와 지름이 무지하게 큰 원판(圓板) 같은 우주정거장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풍륜(風輪)이다. 풍륜은 계속 움직임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마찰이 생겨 열이 일어나서 불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하나의 원판으로 변하여 풍륜위에 포개지니, 그것이 화륜(火輪)이다.

화륜의 뜨거운 열기와 풍륜의 찬바람이 맞부딪쳐 서로 겨루니, 증기가 발생하여 물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크게 세력을 형성하여 화륜위에 포개지니, 이것이 수륜(水輪)이다.

수륜이 차츰 오래되자 바탕인 풍륜의 영향을 받아 수륜의 표면이 식으면서 퇴적층이 생기는데 수륜의 열기와 풍륜의 힘으로 높낮이가 생기니, 이것이 지륜(地輪)이며, 아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와 산하와 바다이다.

요즘 세상에 이 같은 지구과학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나, 어떤 위대한 신인이 장난처럼 이것저것 주물러서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과학적인가.

과학적이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속마음은 중생들의 마음이 맑으면 극락이요, 마음이 흐리면 지옥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려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의 보름달을 두 사람이 바라보는데 슬픈 사람은 달도 슬프다 하고, 즐거운 사람은 달도 즐겁다 하는 것과 같다.

봉선사 조실

오늘의 '나'는 '무명'에 갇혀 몸과 세상을 만든 것

역자 책을 말하다

법구경 이야기1 · 2 · 3 무념 · 응진 역|옛길 펴냄|각 권 2만5000원





법구경 주석서

시대 초월한 '삶의 안내'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대승불교와 남방불교와 차이점이다. 남방불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서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나 불필요한 의식이 모두 배제된다. 예불시간에는 삼귀의를 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자애경>을 외우며, 모든 중생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자애의 염을 보낸다. 붓다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남아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한다.

대승불교는 의식이 많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자주 열리며, 염불, 주력, 기도, 108참회, 사경, 참선 등 수행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또한 새로운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대인의 주의를 끌려는 많은 노력을 한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그리고 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신도수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일어날까?

남방불교는 의식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제사도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고, 오직 위빠사나 수행만 하는데도 온 국민이 불교신자이며 어디에서나 탑과 사원을 볼 수 있는 불국토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스승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의 원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방편이 아니라 바른 법으로 신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근본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중에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불자들에게 근본불교를 알리는 것은 비구의 의무이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이 <법구경> 주석서이다. <법구경> 주석서는 남방의 스승들이 법문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며, 초급 빨리어 교재이고, 불자들의 기초교리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법구경> 번역서들이 많이 있지만 <법구경> 주석서에 대한 번역서는 앞서 두 번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 두 번역서는 주석서에 대한 완역이 아니고 요약본이다. 여기서 <법구경>과 <법구경> 주석서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구경>은 게송 모음집이고 <법구경> 주석서는 게송을 읊게 된 배경 이야기이다. <법구경> 주석서는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주석서가 곧 부처님 일대기이며 초기불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법구경 이야기>는 법구경 주석서 (Dhammapada aṭṭhakahatā)를 우리나라 최초로 완역한 책이다.

또한 <법구경 이야기>에는 주석서에서 제목만 언급하고 있는 <자따까(전생담)> <담장밖경> <자애경> <화살경> <행복경> <보배경> <늙음경> 등을 삽입했다. 해제에서는 붓다의 개념과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붓다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시의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들에 대해 자세하게 각주를 달았다. 또한 아비담마(논장)에서 설명하는 불교 세계관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주석서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 즉 몸의 32부분에 대한 명상, 까시나 명상 등과 같은 사마타 수행과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위빠사나 수행이 등장한다. 주석서에 나오는 수행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석서를 통독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얻지 못하고 껍질만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빠사나에 대한 수행법을 부록에 첨가했다. 솔직히 나는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아니고 수행자이다. 그리고 이런 수행법을 모두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덧붙일 수 있었다.

<법구경 이야기>는 고대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과 관련해서 붓다께서 내리신 가르침이지만, 시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며 삶의 안내서이다. 지혜로운 이라면 삶의 어려운 문제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성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소중한 책을 만났다면 더 이상 방일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항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이 책이 독자들의 삶에 커다란 이익이 되기를….

무념 스님

포교현장의 감동과 깨침 갈피갈피 담아



삶에서 깨치는 금강경
장인석 지음| 정우서적 펴냄|1만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43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여주 신륵사 상임포교사로 활동 중인 장인석 포교사가 삶의 갈피갈피에서 얻은 감동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모두가 함께 <금강경>을 읽고 그 공덕을 나누길 바라는 저자의 원력은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처럼 얽매임 없는 자유를 선사한다.

일선포교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스스로의 깊은 연륜이 베인 <삶에서 깨치는 금강경>을 통해 '내가 발하는 마음, 내가 유지해야 하는 마음, 내가 다스려야 할 마음'을 당부한다.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가짐, 나의 실천으로 보리심을 일으켜 바라밀을 이루길 바라는 저자의 축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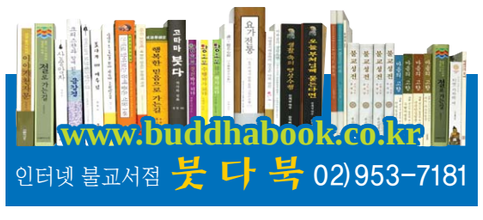
대승심(大乘心)과 믿음으로 해석한 <금강경> 전체 32분(分)은 발심 수행자들에게 확고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7	인과경	현담	선
8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강명희	불광출판사
9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10	삶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양우회	양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만해 스님의 색다른 초상화 전시
3월 10일까지 명인박물관서



선사이자 독립투사,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을 동양화로 그린 일제강점시대의 초상화(사진)가 선을 보였다.

명인컬렉션(대표 이무웅)은 2월 1일~3월 10일 서울 가회동 명인박물관에서 '근대유화 특별전'을 열고 만해 스님과 유관순, 최시형 천도교 교주,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비롯한 조선시대 및 근대유화를 전시중이다.

기존의 만해 스님상과 얼굴 모습과 표정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이번 '만해 초상화'에 대해 명인박물관 이무웅 관장은 "낙관 및 도장이 없어 정확한 작가를 알 수 없지만 기법으로 볼 때 당대 초상화의 대가였던 최석지 선생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02)766-0272

김성우 기자

'해동 유마' 완당 거사의 삶 조명 행사 잇따라
유홍준 前문화재청장 · 한승원 소설가, 추사의 구도예술 소개

김정희, 삶 자체가 구도의 여정

'난초 그리지 않은 지 20년, 우연히 그렸더니 하늘의 본성이 드러났네/ 문 닫고 찾으며 또 찾은 곳/ 이것이 유마의 불이선(不二禪)일세/ 만약 누군가 억지로 (그림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유마 거사의 말 없는 대답으로 거절하리라.'

완당 거사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걸작 난초그림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에 적힌 글이다. 완당은 이 글에서 서도(書道)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대승불교의 대표적 각자(覺者)로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능가하는 유마 거사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서도가 극치에 이르면 '그림이 곧 완당이요 완당이 곧 그림'인 불이(不二)의 경계에 들게 된다. '서화의 이치가 곧 불교의 선(禪)과 통한다'고 했던 완당은 서선일여(書禪一如)의 경지를 마침내 일궈냈고, 그 성취에 스스로 놀라워했던 셈이다.

'해동의 유마'라 불릴 만큼 선에 대한 안목이 높았던 완당 거사, 다성(茶聖) 초의 선사와 교분을 나누고 조선후기 사상계와 예술계를 풍미한 추사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문화행사가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봉은사에서 잇따라 열렸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월의 포럼주제로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정하고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명지대 교수)을 초청, 2월 3일 우리함께빌딩 선우법당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유홍준 교수는 조선후기 문화를 일신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초의 선사와 막역한 관계로 지내고 말년에는 봉은사에 기거하며 선지식 대접을 받았던 완당과 불교와의 인연도 함께 소개했다. 유 교수는 "글씨의 묘(妙)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 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드는 엄청난 노력으로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한 완당이야말로 진정 입고출신(入古出新: 옛 것을 소화해 새 것을 창조함)을 감당할 수 있는 당대 동양 최고의 서예가였다"고 소개했다.



완당 거사의 선사상이 엿보이는 '불이선란도'(손창근 씨 소장).

한편 서울 봉은사는 2월 4일 보우당에서 소설가 한승원씨를 초청, 완당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추사>의 낭독회를 개최했다. 소설 <추사>는 한승원씨가 추사의 발걸음을 뒤쫓고 그의 삶과 예술, 구도행을 통해 인간존재의 근원을 탐구한 장편소설이다.

한승원씨는 "추사는 50대 후반부터 제주도 유배 9년, 북청 유배 2년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끊임없이 욕망을 버리며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 쓰는 일에만 전념해 마침내 '글씨가 시이고, 시가 그림'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제주도에서 완성된 문인화의 최고봉 '세한도(歲寒圖)'에 그려진 늙은 소나무 아래 집 한 채에 대해 '그 집은 마음을 하얗게 비운 유마 거사처럼 사는 한 외로운(마음이 空寂한) 사람의 집'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 씨는 "추사에게 있어 시 짓고 글씨 쓰고 난초 치는 일은 몸과 마음에 얽혀 있는 탐욕과 오만과 조급성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을 호수처럼 맑은 선정에 드는 일이었다"며 완당의 삶 자체가 구도의 여정이었음을 암시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교사진협, 청소년디지털사진 공모전
봉축위와 공동으로 3월 31일까지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조현숙)는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제3회 청소년디지털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는 불자들의 신행,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법회 등 불교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점 이내 응모가 가능하며 홈페이지(www.buddhaphoto.org)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상식은 4월 13일 오후 6시 서울 예총회관 갤러리에서

한암예술단, 창작뮤지컬 '백설공주'
한암아트홀에서 제6회 정기 공연

어린이 불교 연극단체인 천안 한암사(주지 원철) 한암예술단이 2월 22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한암사 내 한암아트홀에서 제6회 정기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 올릴 창작 뮤지컬 '백설공주'는 원철 스님이 2005년 2월 창단한 한암예술단이 올해 처음으로 여는 무대다. 원철 스님이 극본 및 작사를, 임용호씨가 작곡을, 차경희씨가 연출을, 김소진 · 박혜진씨가 안무를 각각 맡는다. 원철 스님은 "인간의 욕망이 부서질 때 보다 성숙해지는 만큼 관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불교적 시각으로 본 '깨어짐의 미학'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상이 내포된 연극 및 뮤지컬 교육을 위해 조계종 최초로 창단된 한암예술단은 40여 단원들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 청소년 뮤지컬 공연, 국악공연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미래 불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041)592-4747

김성우 기자



한국 독립영화 사상 최대 기록인 10만 관객을 돌파한 '워낭소리'의 한 장면. 주인공은 최원균 할아버지다.

이충렬 불자감독의 '워낭소리' 세대 막론 '눈물바다'

심우도 주인공이 된 할배와 소의 말없는 법문

이충렬(43) 불자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세대를 초월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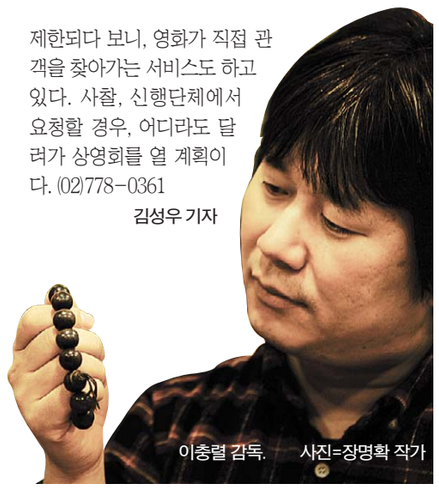
'워낭소리'는 2월 3일 개봉 20일 만에 한국독립영화 사상 최대 기록인 10만 관객을 돌파하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입소문으로 영화 상영관이 40개관까지 늘며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진정성이 어떤 극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영화의 스토리가 노년 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눈물짓게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든에 가까운 할아버지 농부와 그의 부인이 30년을 키워 온 마흔 살 된 늙은 소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늙음과 이별을 그린다. 주관객층은 농촌 향수를 지닌 30~40대이지만,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년 동안 경북 봉화의 산골 하눌마을에서 절제와 기다림으로 주인공들을 카메라에 담아낸 이충렬 감독은 "전남 영암, 고향마을 절에서 매일 아들을 위해 불공을 올리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본성(本性)을 찾아나선 심우도(尋牛圖) 속 주인공 처럼 욕심 내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으면서 작업에 임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작비가 부족해 조계종 총무원에 지원을 청했지만 퇴짜를 맞아 카메라 두 대로 지루한 촬영에 임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신 '기다림'과 '느림'의 의미를 배우고 '덜어내는' 연습도 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감사히 여겼다. 이 감독은 "기회가 닿는다면 바람이나 설해목 처럼 불교의 정적인 정서속에서 일상과 내면을 말없이 그려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받은 '워낭소리'는 극장이 제한되다 보니, 영화가 직접 관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사찰, 신행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어디라도 달려가 상영회를 열 계획이다. (02)778-0361

김성우 기자



이충렬 감독. 사진=장명확 작가

열린선원 새봄맞이 불사안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저잣거리포교원인 저희 열린선원의 새봄맞이 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인연 있는 사부대중의 무루동참을 기원합니다

❶ 동안거 업장소멸 지장기도 회향 법회

3개월간의 지장기도를 회향하는 법회를 한글법요집에 따라 불자님들과 함께 마무리하며 법현스님의 법문도 함께합니다.

◆ 때 : **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 내 용 : 지장기도 회향 ◆ 동참대상 : 기도입재자 및 기도법 배우고 싶은 이 누구나

❷ 새봄(立春)맞이 우리부처님 씻어드리기(浴佛)법회

◆ 때 : **2월 21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 내 용 : 3존불 및 가족 원불 목욕 후 불공 ◆ 동참대상 : 누구나

새봄을 맞이하여 작년처럼 원불부처님에 앉은 먼지를 모두 동참한 불자들이 직접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립니다. 열린선원에서는 이날 입춘첩을 나눠드립니다.

❸ 제11기 열린불교아카데미(4개월 과정) 개강

◆ 기 간 : **3월 7일(토) ~ 6월 20일** (강의시간 토요일 오후 3시 30 ~ 오후 5시 30)
◆ 내 용 : 부처님의 생애,불교기초교리,불교의 수행법,템플스테이,수계 [**6월 6일 ~ 7일 1박 2일 템플스테이 예정**]
◆ 강 사 : 법현스님과 훌륭하신 스님 및 법사님
◆ 교육준비 : 10만원(템플스테이 포함)
◆ 동참대상 :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을 걷고 싶은 이

※ 열린선원의 새벽예불은 새벽 5시에 봉행합니다

◆ 위 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6호선 구산역 뒤) 역촌중앙시장 2층
◆ 전 화 : **02)386-4755, 4720**
◆ 인터넷 : http://cafe.daum.net/buruna21
www.opentemple.or.kr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⑮ 인사동 사모곡1

동태찌개와 홈리스아저씨와의 추억

인사동 네거리 한복판에서 살던 때가 있었다. 5층짜리 건물 맨 위층에 세 들었는데, 실내를 개조해 사무실 겸 살림집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5년 남짓을 살면서 인사동과 낙원동 골목 구석구석에 단골 맛집과 찻집이 생겨났다. 단골집을 팔 바구니에 쥐 뒤나들 듯하며 살가운 인연들도 지어졌다.

이번 호부터는 그 시절에 인연 지은 맛집과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낙원동 아구찜 거리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허리우드 식당'의 이야기다.

옛 허리우드 극장 근처에 위치한 허리우드 식당의 동태찌개 맛은 죽인다. 가격은 3500원. 청국장과 김치찌개도 인기인데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사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3000원이었는데, 친구랑 오랜만에 들렀더니 500원이 올라있었다.

"요즘 물가를 어디 감당할 수가 있나. 500원 올린 지가 일 년은 됐을 건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야?"

입술에 늘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식당 한 쪽에 있는 커다란 밥통 옆에서 돈세기에 바빴던 주인아줌마가 고맙게도 얼굴을 알아본다. 처음엔 그 아줌마의 걸쩍지근한 입담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 입담이 찌개의 보조 양념임을 알게 됐다. 그곳 손님들은 그러한 주인아줌마의 살천스럽지만 정겨운 입담의 아이러니에 길들여진 단골이다. 평균연령층은 젊으면 50대에서 6, 70대의 노년층이라 손님상의 대부분은 주야로 소주나 막걸리가 곁들여진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떠오르는 추억이 많다. 가장 기억나는 일은 홈리스아저씨와의 일이다. 초겨울 저녁나절로 기억난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태찌개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중인데, 한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아저씨가 들어선 순간, 종업원은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남루한 차림의 아저씨는 주뼛거리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종업원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계속 성화를 했다. 하릴없이 혼자 밥을 먹으려던 중에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종업원을 살짝 불렀다.

"저 아저씨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요. 크게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찌개나 끓여주세요. 밥값은 제가 낼 게요."

조곤조곤 속삭인 말에도 아저씨의 귀는 밝아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밥은 그만두고 1000원만 달라고 했다. 행색을 보아하니 가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옷차림은 깨끗한 편이지만 분명 몇 끼 굶었을 테고, 1000원의 용도는 십중팔구 소주를 사 먹기 위함이렷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저씨에게 가장 필요한건 따뜻한 밥 한 끼일 터.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내 마음은 단호했다.



낙원동 아구찜 거리에 위치한 허리우드 식당. 동태찌개가 일품이다.

"제가 밥은 사드릴 수 있는데 1000원은 드릴 수가 없어요. 1000원 드리면 소주 사마실 거잖아요."

"그건 상관 말고 1000원만 줘요. 밥값보다 1000원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밥은 얼마든 사드릴 수 있는데 1000원은 못줘요."

1000원만 달라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는 아저씨나 굳이 밥을 사겠다는 나의 황소고집이나 막상막하였다. 그렇게 잠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아저씨는 결국 "에이 씨"하며 가게를 나가버렸다. 홈리스 아저씨가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 얼마 전 한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머리통을 후려쳤다.

"가령 너무나 고통 받는 사람이 자기를 죽여 달라고 애원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자비일까? 자기 생각 따위는 죽이고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때론 자비가 아닐까?"

한겨울의 추위라도 녹일 듯 동태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모처럼 들러 그 겨울 저녁을 떠올려본다. 1000원만 달라고 사정하던 그 아저씨를 행여나 다시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소주잔도 함께 기울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심신건강 心身健康

㉒ 탄수화물 중독증 신드롬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당신도 탄수화물 중독증?

탄수화물은 많이 먹을수록 더욱 배가 금방 고파지고 또 다시 시장끼를 느끼기 마련이다. 때문에 단음식에 집착하거나, 밥을 먹고 나서도 곧 간식을 먹어야 되고, 자꾸 군것질을 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심하게 나른하고 힘이 없는 경우 당신은 탄수화물 중독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균형 있는 식사 보다는 빵, 쿠키, 도넛, 청량음료 등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런 음식에 집착하는 증후군을 일컬어 "신드롬-엑스 (SYNDROM-X)"라고 한다.

양질의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귀한 영양분이지만, 과다 섭취는 인슐린을 지나치게 분비시키므로 결국 당뇨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장병,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데 인슐린의 지나친 분비가 체내 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키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서를 보고 당신도 탄수화물 중독증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탄수화물 중독증 질문서)

1. 아침식사를 제대로 한 날은 식사를 하지 않은 날보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훨씬 더 배가 고프다.(6)
2. 나는 오후 3, 4시쯤 되면 피곤해지고 배가 고픔을 느낀다.(2)
3. 과식을 한 후에는 매우 피곤하거나 활동이 매우 적어진다.(1)
4. 나는 가끔 계획했던 일이나 약속 등을 저녁 식사 후 게을러져서 취소하곤 한다.(4)
5. 나는 일단 정제된 설탕이 함유된 음식(스낵, 전분, 케이크 등등)을 먹으면 전혀 먹지 않았을 때보다 계속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5)
6. 나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괜히 피곤해지고 불안하거나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두통이 생긴다. 그래서 간단한 스낵 종류를 먹으면 좀 나아진다.(3)
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3)
8. 나의 식단에는 설탕이나 과당이 포함된 음식이 많다.(1)
9. 나는 나이가 듦에 따라 쉽게 체중이 늘어난다.(3)
10. 내 친척중에는 비만인 사람이 있다.(3)
11. 내 생활은 활동적이지 못하다.(3)
12. 나는 스트레스를 매우 잘 받는 편이다.(3)
13. 나는 전에 고지혈증(높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이 있다고 진단 받은 적이 있다.(5)
14. 나의 부모님 중 한분 또는 양쪽모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 또는 중풍을 앓거나 앓으신 경우가 있다.(4)
15. 나는 여성 호르몬 치료나 변비치료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혈압강하제, 고지혈증강하제, 당뇨, 소화 불량 또는 속쓰림 때문에 약을 복용한 경우가 있다.(4)

13점 이하: 의심스러운 탄수화물 중독증
14~22점: 경증의 탄수화물 중독증
23~35점: 중증의 탄수화물 중독증
36~50점: 아주 심한 탄수화물 중독증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 중독증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⑰



가남은 밀림의 독기가 서린 곳에서 자라

이렇게 어렵게 자라난 가남향의 수지 부분은 침향보다는 우선 목질이 조밀하다. 가남의 목질구조는 천년을 산다는 우리 주목나무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침향은 수지분포가 편중돼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이는 것이 많은 반면, 가남은 수지가 고르게 목질에 분포된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또한 침향은 상처치료를 위해 발생시키는 수지의 양이 많지만, 가남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그 수지의 양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상처 치료를 위한 수지의 생성에 쓰다 보니 성장속도는 더욱 더디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생성되는 수지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어서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수지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남나무에 있는 수지는 침향나무의 수지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산되므로 더욱 농축된 형태로 고르게 분포되고 그 수지의 양도 더 많게 된다. 가남이 물에 가라앉는 것이 침향보다 많은 까닭이다.

침향이나 가남이나 기본적으로 물에 가라앉아야 한다. 그러나 물에 가라앉지 않는 침향이나 가남도 많은데 그 이유는 충분한 시간 즉, 수지만 남고 목재는 썩어 없어질만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심마니들에게 채취돼 세상에 나오기 때문이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가남이나 침향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수지의 함량이 물에 가라앉는 것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되는 가남향은 침향과는 또 다른 등급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가남은 그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베트남 어로는 끼박(KY BACH), 끼탄(KY THANH), 끼휀(KY HUYNH), 끼학(KY HAC)이 그것이다. 이중 끼박은 회색계통의 색을 지니고 있으며, 끼탄은 밝은 검푸른색을 띠고 있고, 끼휀은 노란 크롬색을 띤다. 끼학은 검정 타르색을 띠며 다른 가남보다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이중 베트남 사람들은 끼박을 최상등품으로 여기지만 끼박은 일 년에 몇 ㎏가 생산되지 않는 가남향 중에서도, 모든 침향을 통틀어서도 가장 구하기가 어렵고 희귀한 향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10년 전부터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된 향이다. 그래서 요즘 베트남에서는 가남을 분류할 때 끼박을 제외한 3가지로 구별을 한다.

한편 가남은 살아있는 나무에서 채취한 가남과 죽은 나무에서 채취한 가남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살아있는 나무에서 채취한 가남도 거의 구하기 힘들다. 사람이 접근 가능한 밀림지역에 있는 가남은 이미 거의 채취가 끝난 상태이고, 정말 깊은 밀림에나 가야 살아있는 가남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다.

깊은 밀림은 아주 노련한 심마니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맹수와 독충은 기본이고 그 밀림에 서려있는 독기가 인간의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02)3663-6777 (계속)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 기 사 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6주 24시간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 교육을 받으려면 유마로 가라" 할 만큼 유마최면연구소의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 20회, 인원 10명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空을 넘나 드십시오!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뭇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른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화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이름 모를 병,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 전통따주기 개요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감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9. 2. 21(토) 오전 9시부터 ~ 2. 22(일) 오후 1시까지
(2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요망)
(2)수강료 : 34만원 (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동양구운마늘환으로 활기찬 생활을!
마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여 드시기 편리한 100% 마늘환입니다
강한 살균력과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지혈증등의 성인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간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준다.
2.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3. 면역력을 키워 체질개선에 효과적이다.
주문 전화 080-323-7575 동양물산
인터넷:http://gk24.co.kr, 한글주소:건강24시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퇴마 심령 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불사 상담
단청, 탱화, 개금, 신축
저렴하게 불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화공기능 보유자 1403호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16-2번지
011-9387-151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경면주사 판매
수비법제품
019-254-6320
다음카페 : 대삼물산

혜 선 철 학 원
1.2009년에 나의 운세는?
2.새롭게 다시보는 현재와 미래
3.진솔한 상담으로 마음이 안정
전화하십시오
02)996-1589
019-254-1589
하나입금(211-910130-65607)구자숙

인 연
사찰이나 불자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포교사 자격, 1종운전면허소지)
60세 남 연락주세요
011-296-3612

경북지역 천년 고찰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527-0637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죽림선원
010-3047-0233

노후에 삶을 아름답게 함께하실 스님 또는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능력대로 시주금 받고 종신재
010-9367-5982

비어있는 사찰 관리하여 드립니다 비구입니다
011-850-0176

산사에서 천일기도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1-696-8500

평생 도반 경치좋고 아늑한 암자터를 소유하고 있는 오행,뜸,벌침,역학에 능한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통나무 황토집을 지으려 합니다 조금만 협조하시고 함께 살 아가실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조용한 산속암자에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이나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연락주십시요
010-9929-95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주 암자
054)772-4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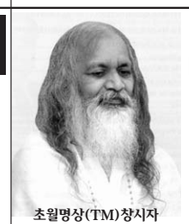
비구니 노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1인1실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남 양산
055)375-0142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부전, 노전자리 원합니다
010-8537-010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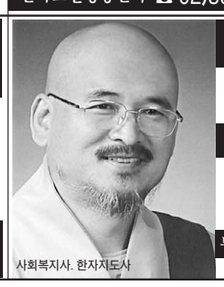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깨어있는 휴식이 곧 깨달음이다" - 능엄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두뇌의 질서성, 집중력, 창의력 증가 / 노화역전 /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한국초월명상센터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예약제)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2/16(월) 18:30 [개강 강사 : 이선종 선생]
• 2/19(목) 18:30 개강 [강사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강수생은 관상, 주역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韓,中,日 명 리 연 구 원
격국론 · 용신론 · 조후론 · 육효 · 기타
어떤 것이 줄기이고 가지인가?
어떤 것을 버리고 선택할것인가?
어떻게 시간비용을 절약할것인가?
〔 2月 28日 土요일 설명회와 토론회 마련 〕
대전광역시 042)628-2191, 010-5858-1191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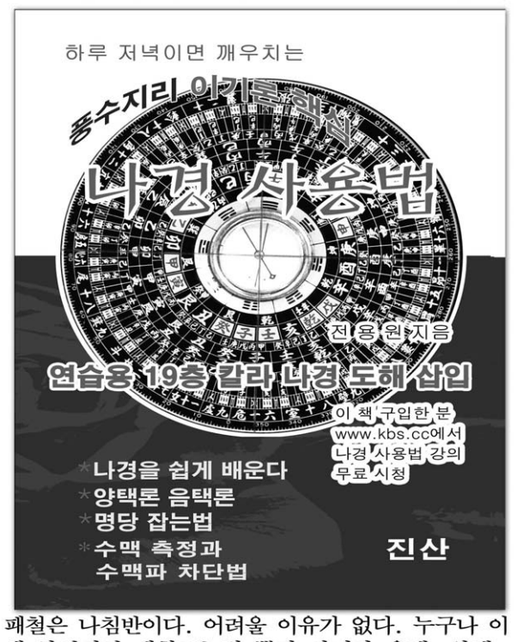
한 국 불 교 대 학 신 입 생 모 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승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국불교불광종입종환영
종단이념학협회속협회소속업는스님법사보살철학사입종환영
신당 법당 명산에 빌어도 조상 칠성 풍파로 가정 우환 고통받는분 상담환영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산신불공 · 지장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병시식법
누구라도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배울수 있는 각각 단권으로 출판된 불공책
스님 법사 보살 철학사 불자님께 필요한 책 (농협:150022-51-167171 한국불교불광종)
사무실관리 PC가능 40세이상 여, 공양주 구함 숙식가능 급여 상담후 결정
053-561-4440, 011-9422-1885 주소 : 대구시서구내당 2,3동923-142

패철 보는 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천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기문명리학강의안내

[사주, 작명, 택일, 풍수, 단시, 병방]

교육 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문의 02-961-0870~2)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문의 031-201-3377)

개강일시 2009년 3월 15주 과정
• 매주 수요일 (서울) : 기초반 (오후 7시 - 9시)
• 매주 목요일 (서울) : 고급반 (오후 7시 - 9시)
• 매주 금요일 (수원) : 기초반 (오전 10시 - 12시)
• 매주 금요일 (수원) : 고급반 (오후 13시 - 15시)

원서접수 2009년 2월 1일 부터 - 2월 28일까지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인터넷 접수
수강과목 기문명리학(서울·수원), 사주명리학(서울초급)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민강기문명리원장
02)3476-3433,3430
www.gimun.net 대표

기문명리학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통의 특수 비법을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수 천년을 진해온 학문인 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학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들,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 종교사업 운영이나 사주상담원을 하는 분들.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10-2376-3433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떻게 해 줘야 하는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등을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 · 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 「효사것」 밖에 없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活人 전문가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육임1년신수비결(09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개정판)/성명학/월영도/매화역수/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등 15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서 효사 「육임강론」 上 · 下(완결판)을 强推합니다.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의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60갑자 각 순별6권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A4 좌정용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각 육임활용서 학습서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에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 · 「완결판」으로 간행했음을 전국 현인 기사 이인 제위께 이렇게 옹색하게나마 알려(선언) 드립니다』

서울 지역 02)833-8683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 지역 051)908-8683 담당 진민경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안지역
● 법당 : 21평
● 요사 : 3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2억8500만원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4억5천만원 (세 1억 월150)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름다운 절
● 대지 : 약 740평
● 목조법당 30평, 산성각(목조2동)
● 요사채(30평)2동,노천입불
● 심야전기,앞마당 잔디밭 조성완벽
● 남향, 6m도접, 텃밭 일부
● 가액 : 3억6천

지리산 천왕봉 및 마당 넓은 절
● 대지총평수 : 2100평
● 법당30평, 요사채 방8칸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 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양도가 :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 임대 구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가액 : 평당 30만원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 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010-5501-315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부 산 대 사 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 20년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2~3분거리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방2,주방,욕실,거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
● 위치 : 서울 은평구
● 전세 : 3,000만원
●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에 한함
011-9128-2069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 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시유지 600평사용 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율하역 5분거리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60평
● 법당1, 방3, 주방, 욕실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509-067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북 길음동 전철역 바로 앞 2층
● 평수 : 37평(실평수)
● 점안식 안했음.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산신탱화
● 방2개,공양간,욕실,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별도 2500만원
010-2665-2393

사 찰 안 내

● 위치 : 송파 하남방향 20분거리 야산 및 대도로변 유원지 입구
● 대지 133평, 건평 70평
● 2층 대웅전, 1층 요사채
● 동굴산신각, 무허가 건물(약40평)
● 마당 1000평이상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8억 9천만원
016-286-5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방 2개,주방
● 전세 1,0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0-4427-2256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부천시
● 평수 : 110평
● 법당 : 약 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3억 1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최고의 요지
● 법당 30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800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5200만원
010-2069-082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평수 : 71평(3층건물 중 2층)
● 구조 : 법당46평, 방3, 주방1, 화장실2, 욕실1
● 보증금+시설비 : 3200만원 월 62만원
● 타지역 불사 관계로 급 양도 시설 A+급. 천일기도중
011-9906-0366

천하 명당 팔공산 대도량터 안내

● 부지 2,730평(부족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최대 6,000평까지 가능) 사찰부지 허가 필
● 전기, 지하수지하 암반 100미터) 개발 완료
● 신축 사찰 공사중(대웅전 33평, 기타 용도 80평.현 80% 공정)
● 도심에서 2~30분 거리. 민가와 약 1킬로 떨어짐.
● 수행처로 명상 수련원, 선방, 불교 테마공원 등등 불교 특화 사업 가능한 곳.
● 가격: 답사후 인수할 인연자에게 최대 조정해 드림
연락처: 주인직) 010-4512-081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 법당 40평
● 요사(2층건물)
● 공양간 별도로 있음
● 가액 : 3억 6천만원
010-8853-38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 3천
010-5430-3963

명당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진동
● 평수: 5000평
● 대지: 600평,슬라브 40평
● 산중턱위치,동남향
● 주인직접매도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854-1991

사 찰 임 내

● 위치 : 부산 강서구 강동동
● 대웅전 30평, 부처님 칠인불, 산신각, 주차장 완벽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829-11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공부하면서 조용히 생활하고 싶은 분 절터 암자터 있습니다

● 400평, 600평, 800평
010-2020-5742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상가 4층중 4층, 아파트 대단지 밀집지역, 최고위치
● 평수 : 54평
● 거실,법당,요사채,원주실,목욕실
● 가액 : 1억 5천만원
● 주지스님 불사 관계로 급매
010-3443-2859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읍에서 10분거리 산밑
● 건평 30평(창고있음)
● 건물등기 있고, 1년 도지세 3만원
상수도(우물있음),텃밭있음
● 가액 : 2천3백만원
043)834-9108
010-4860-63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중산동 (중산근린공원 부근)
● 7층건물 중 3층 약 109평, 법당, 방5개, 사무실, 주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1-268-0727

사찰 암자 펜션 부지 안내

천하절경 풍수지리 명당

● 위치 : 춘천시 남면 발산리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강촌 IC 진입로 부근
● 지역 : 관리지역
● 지목 : 전면적: 645평
● 특징 : 마을에서 200M거리 야산밑 남서향, 서축완료, 도로포장.전기유(有)
● 가액 : 평당 5만원
011-9797-3830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20평, 요사30평, 대지 150평
● 가액 : 9천5백만원
※ 현대식 적벽
● 인근국가 공단 100만평 공사착공 500년된 나무, 전망좋음
011-811-54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 -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370평 ● 대지 : 90평
● 법당 : 10평 ● 법당 : 18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대원정사 극락원
● 총대지 378평, 법당목조단청32평, 산신당 용왕당,종각, 칠층석탑,석조약사여래입불상
● 요사채 30평,반지하 100평
● 성산일출봉이 보이며 관광일 주도로변에 위치
● 급 양도가 : 3억 3천
064)702-9982
011-858-88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사상 시외버스터미날 2분거리 덕포지하철 바로 앞(교통 최요지)시장인접
● 25평, 시설일체완비(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 사정으로 급안내
051)301-1211

천하절경 명당터

영서북부지방 강원, 포천 경계지락인 화악산 자락에 창건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당터 고찰을 뜻 있는분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강원, 포천 - 화악산 자락)
● 교통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춘천 30분거리
● 현 불자수 : 약 500여명 ● 사찰연혁 : 300여년
● 전체면적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 전각 : 대웅전, 명부전, 무량수전, 산신각, 용왕각, 종각
● 부대시설 : 주지접견실, 요사채1, 요사채 및 공양실3, 석등6, 석탑1, 미륵석불1, 관음석불1
● 현사찰가액 : 현 시가 30억이상의 가치
● 실제매도가액 : 17억(절충가능)
017-373-5998 (주지스님 직)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 5층건물중 3층 약 50평(포교당 옆 대형마트)
● 큰법당1, 방2, 주방1, 주차 최고 양호
● 보증금 4천만원 관리비포함 월 200만원
● 시설(특)A급,시설비는 최저 답사후 결정
● 동으로 조성된 불상최고 A급 3자1/2
● 불기에 필요한 대북+경상+에어컨+불기 그릇포함. (약 6천만원)일체를 무료로 드립니다
● 미국이민 관계로 급양도
011-9129-900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 2동(초량시장 내)
● 3층 건물 중 3층(50평), 법당, 삼존불 거실, 방 2개(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이천동 ● 법당 12평
● 삼존불, 영가단, 신중단
● 마당 허공 약사여래불. 거실, 방1, 부엌
● 역학 상담, 사찰운영 하실수 있는 스님 적합
● 전세금 3천 6백만원
053)475-8292/011-535-5709

관 절 염 좌골신경통 일상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그만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에서 해방되십시요.

선착순으로 30명만 초대합니다.

(전화상담가능)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6번지

타워클리닉 3층 **한솔한의원**

031)555-7780,5780 / 010-3939-285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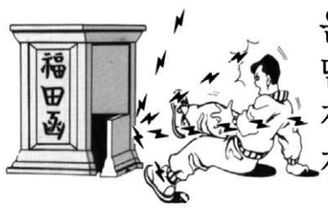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범패 2기생 : 교육과정 1년
※ 영남범패 1기생 : 교육과정 6개월(고급반)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조석예불,각단예불,각청(불공)시식
2.천도의식 : 49재,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4.서울범패개강일 : 3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5.영남범패개강일 :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자 격 : 승 · 속 관계없음
7.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8.수업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별도

접수연락처 전화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휴대전화 011-819-7464 총무국장(지공스님)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 자 정 보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큰대로 번화가
- 평수 : 210평,잔디 마당 연못(小)
- 법당 : 삼존불,탱화,산신각,지장전,스님방1,찬방1,욕실2개
- 요사채 : 방4개 마루(식당)大1, 황토방1, 창고2, 황장실2
- 가액 : 보증금1400만원 월 80만원,급이전관계로 양도함
  시설비 3800만원

010-8736-0089

사찰안내

- 위치 : 남양산 대사찰(부산근교) ●대지 1500평
- 법당 35평 5포(보일러시설,에어컨 완비)
  입상불 및 3000불전(현재접수중)
- 종각 :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완비
- 삼성각 : 칠성불, 산왕불, 나반존자
- 요사채 : 100평, 2동, 방10칸, 전체심야전기보일러
- 공양간 별도 30평, 완전시설. 산세수려, 큰계곡
- 가액 : 15억

010-9797-5477

사찰(급)안내

- 경북 영양읍 상업지역 최요지에 있는 사찰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주변 입지조건 : 정류장, 재래시장, 주차장, 보건소, 병원, 약국, 슈퍼 등
- 모두 사찰 주변에 위치한 명당 도량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세요
- 대지 130평, 대웅전 42평,상가30평
- 가액 : 3억 5천 일부 후불가능 스님직

011-538-2211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강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 수강료 : 수강완료까지 100만원(6개월)

육임CD판매

-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재승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재어부)…
-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판매가 : 150만원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00쪽 (정가 : 30,000원)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命理學 수강생 모집

금번 석충원에서는 사주 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하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입문반
3개월 매주, 월 · 목요일 15시 ~ 17시(2시간)
☆10명 수강료 - 월 10만원

◆ 연구반
6개월 매주, 화 · 금요일 15시 ~ 17시(2시간)
☆10명 수강료 - 월 10만원

◆ 실전반
3개월 매주,수요일 15시 ~ 18시(3시간)
☆5명 수강료 - 월 20만원

◆ 접수기간 : **2009년 2월 21일 까지**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선착순)
◆ 개강일시 : **2009년 2월 23일(월요일)** 부터

연락처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5-43 석충원
전 화 : **032)330-4684, 503-4684**

석충원 원장 明陽 이태영

웃음보살 불등거사 〈34〉

구성 : 김흥인



스스로 거짓을 드러낸 도적 〈백유경(百喩經)〉



옛날 국고에서 옷을 훔쳐 도망가다 잡힌 도둑에게 국왕이 출처를 캐물었다. 그는 말했다. "이 옷은 우리 조부 때 물건입니다." 왕은 그 옷을 다시 입어보라고 했으나 그는 입을 줄을 몰랐다. 왕은 이를 보고 그에게 말했다. "만일 그것이 너의 조부 때부터 내려온 옷이라면 입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입을 줄 모르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 옷은 도둑질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부처님과 같고 보배 창고는 법과 같다. 또한 어리석은 도적은 저 외도들처럼 부처님 법을 훔쳐 듣고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펼 때 아래위를 모르는 것처럼 법의 모양을 모른다. 그것은 마치 저 도적이 왕의 옷을 얻고도 그 입는 방법을 알지 못해 뒤바꿔 입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눈 속에서 팔을 잘라 바치다 입설제요(立雪齊腰)



고판화박물관수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입설제요(立雪齊腰)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달마 대사에게 혜가 스님이 결연한 수행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잘라 바치기 직전 눈 속에서 달마의 승낙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혜가 스님은 속성 희(姬). 초명 신광(神光). 허난성(河南省) 뤄양(洛陽) 부근 무로(武牢)에서 출생했으며, 중국 선종(禪宗)의 제2조(祖)로, 젊어서는 노장(老莊)과 유학을 공부했으나 후에 출가했다. 520년 선종의 개조(開祖)인 달마(達磨)의 제자가 돼 6년간 수행한 끝에 스승의 선법(禪法)을 계승했다. 달마의 제자가 됐을 때, 눈 속에서 왼팔을 절단하면서까지 구도(求道)의 성심을 보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전설로 유명한데, 이것은 후에 혜가단비(慧可斷臂)라는 화제(畵題)가 됐다. 중국영화를 보면 소림사 스님들이 한 손에는 봉을 들고 한 손으로 합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한쪽 손이 없었던 혜가 스님을 기리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전해져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달마는 눈 속에서 승낙을 기다리던 신광 스님을 돌아보며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묘도는 비록 광겁을 부지런히 정진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이다지 미미한 노력과 작은 효과로 문득 대법을 구할 수 있겠느냐?' 신광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칼로 스스로 왼쪽 팔을 잘라서 달마 스님 앞에 갖다 놓았다. 이때 달마 스님이 다시 말했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최초에 구법하셨을 때는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팔을 끊었으니 그 구도 정신이 있다 할 만하다.' 이에 신광 스님이 다시 여쭈었다. '제 마음은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 스님이 말했다. '마음을 갖고 와라! 그러면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에 신광 스님이 말했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말했다. '너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일은 이미 마쳤다.' 이로 말미암아 신광 스님은 깨달음을 얻게 됐고 달마 스님은 그의 이름을 '혜가'라고 지어주었다." 자신의 팔을 잘라가면서도 수행하려는 혜가 스님의 결연한 수행의지가 한없이 그리운 시대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싸리 끝대궁에 앉은 잠자리

아니 저 좁아터진 尖端에다
禪房을 열다니!

간댕간댕하면서

무량법열의 경지에 든
저것 좀 보게나

–상희구/시집〈숟가락〉에서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길을 묻는 이에게

제718호 현대불교
2009년 2월 11일(음력 1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인생이 한 철이에요! 좀 너그럽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도, 인간의 수명도 모두 사는 데까지는 그냥 살 거다 이겁니다, 사는 날까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사람도 사는 날까지 여여하게 살다가…, 나는 간다 뭐 어쩐다 표시로써 3·4·5년씩 또 1·2년씩 아프게 만들어서 온통 바깥으로 소문을 죄 내고 이렇게 해서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 벗기 전에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와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재차 그냥 세상으로 나가죠. 이렇게 좋은 법을 어찌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픈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정말 죽는다고 했을 때의 고통, 죽지 않아도 항상 고통을 받으면서 지겹게 아픈 사람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럭하고 살면 뭘 합니까? 이럭하고 살면 뭘 하느냐고 입으로다가 몇 번씩 외우면서도 그걸 겪어야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나 지겨워서 때로는 약을 먹고라도 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럭하면 뭐 합니까?

생시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꺼풀을 벗으려면 미리 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이사 가려면 집 먼저 사 놓고 이사를 가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옷을 훌렁 벗고서 그냥 가면 아픔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거고, 그게 다 업이니까요. 또 자기 차원을 마음대로,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 자꾸 할 필요도 없지만 말입니다.

질문 없어요? 오늘은 질문하는 날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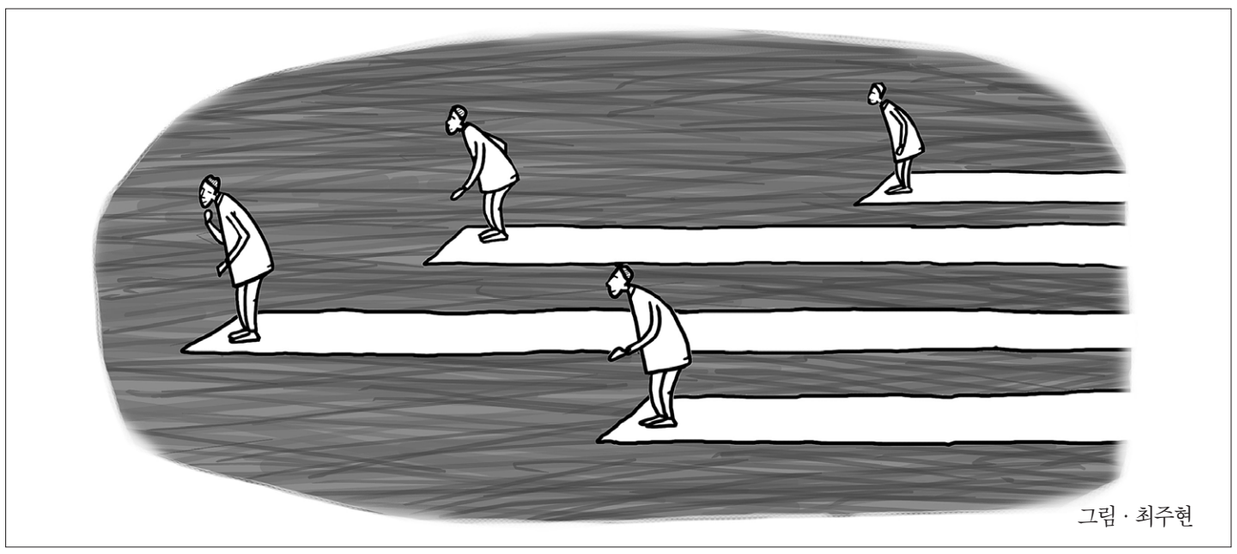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작은 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생사윤회를 하는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큰스님 댁의 몸뚱이도 생명체가 더불어 공생으로 같이 사는 한 개체예요. 개체이기 때문에 선이다, 선이 아니다 이런 것이 둘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악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작용하는 거를 용무라고 그랬어요, 용무! 공법이죠,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둘 아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선심(禪心)이라고 그러죠, 선심! 선심으로써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나오셔서 포교활동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생사에 윤회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큰스님 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또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없고, 했다는 것도 없어. 지금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없다 이 소리야.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항상 그냥 둘이 아닌 까닭이야. 이 한 지구덩어리 안에는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쫙 있고, 또 우주에도 별성과 더불어 블랙홀이랄까 이런 큰 별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작은 별을 낳고 큰 별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자꾸 껍데기를 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살이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수명이 길고 짧고 이런 게 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이 없다 있다를 말할 수 없는 거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 봐. 댁의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있지 않지. 더불어 같이 있는 그 생명들 때문에 자기가 움죽거리게 됐고,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먹게 됐고, 만나게 되고, 가고 오게 되고 그런 것이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물 한 컵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을 먹었다고 할 텐가, 내가 물을 먹었다고. 그래서 깨달음도, 윤회도, 윤회라는 언어도, 팔자 운명도 다 없어.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려고 나는 뜨듯한 방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추운 데 섰으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몸둘 바가 없었어. 따로따로 본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좀 먼저 추운 데서 살았었고, 허허허…, (대중 웃음) 여러분은 좀 나중에 추운 데 섰을 뿐이야. 그런 걸 생각한다면 모두 측은하고 친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한마음으로 묶어져서, 그 아름다운 자비로써 마음의 향기를 뿜고서로 응(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나 혼자만 일생 동안을 내내 뜨듯한 방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속임수나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 온 누리가 나를 다 그냥 짓이겨서 가루로 만든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이야.

내가 그전에도 추운 데 있으면서 뭣을 생각했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악하고 선한 것도 없었지. 그렇게 알고 나서는 밤새도록 너무 많이 울었어. 또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냥…, 그건 내가 말 못해. 허허허…. 그렇게 겪어 나오고,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서 죽어 넘어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면서 공부하던 그 스님네들이 길을 가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쓰러졌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서 그분들을 다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 '이 고생하고 못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리라.' 이렇게도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루가 됐어. 허, 정말 죽어서 가루가 됐다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가 있듯이,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하듯이, 가루가 돼서 일체를 다 두루 뿌려서 해도 그 자리에 떡 하나는 되남듯이 말이야. 그 뜻을 알겠어? 그러니 그거를 스스로 알게끔 공부 열심히 해.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사회자 한 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큰스님 예, 질문하시게 하세요. 이래도 일 초 저래도 일 초인데요, 뭐.

질문자2(남) 강릉지원에서 왔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손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쥐어 주셔서 늘 감사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문제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꿈을 꾸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한 3, 4일 지났는데 묘 자리에서 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장을 하겠다고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관 주위에 금붙이가 쫙 돌아가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팠다고 해서 다시 되묻으며 보니까 그 주위에 붉은 꽃들이 쭉 보였습니다. 그러고 한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불심이 참 돈독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법을 함께 만나지 못했던 거를 제가 아쉽게 생각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공원묘지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공원묘지에다가 장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얘야, 내가 너희들 산소 마련한 곳에 가 봤는데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별일 없이 세월이 지났는데 작년쯤부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자꾸 보이고, 어느 날은 또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에 살던 그 농촌집 밭에 물이 가득하면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큰일났다고 그랬더니 비가 점차 멎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15년 가까이 자주 꿈꿔지는 바람에 제가 늘 '주인공! 일체제불과 조상님이 한마음인데 이 시봉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너는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런 관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안양 문예회관에서 큰스님께서 법문하신 이후에 저희 지원장 스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10여 년 지난 이후에 자주 일어나는데 그 해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관은 하지만 뭔가 잡히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한생각이 탁 떠오르는 건 아니고, 그냥 조상님들을 위해서 재를 좀 올려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좀더 관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또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에 '너만이 그것을 이 아둔한 시봉자에게 분명히 알려 줄 수 있잖아.' 하는데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뜻하지 않게 돼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그 숙제를 그냥 놔둘까요, 어떡할까요?

질문자2(남) 그래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스님 댁이 형성되기 전은, 바로 전에 살던 자기 조상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지금 사는 거는 바로 자(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죽어야 본다' 이러죠? 그럼 그거를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한 도리를 알면 죽은 것이다'라는 거요. 공한 도리를 알면 죽었고, 또 어머니가 죽었다 이랬죠? 어머니가 죽은 거는, 하늘과 땅이 전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생(生)하죠.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런다 그랬죠? 다 돌아가셨으니까 천(天)·지(地)·

☞26면으로 계속

통도사에서 배우는 인도문화

산스끄리뜨(범어) 기초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내 서축암 도응 스님이 인도 등 외국에서 20여 년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문화의 관습과 언어를 겸한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산스끄리뜨어나 팔리어 원전을 연구하기 위한 분들과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산스끄리뜨(범어) 기초 배움방**을 마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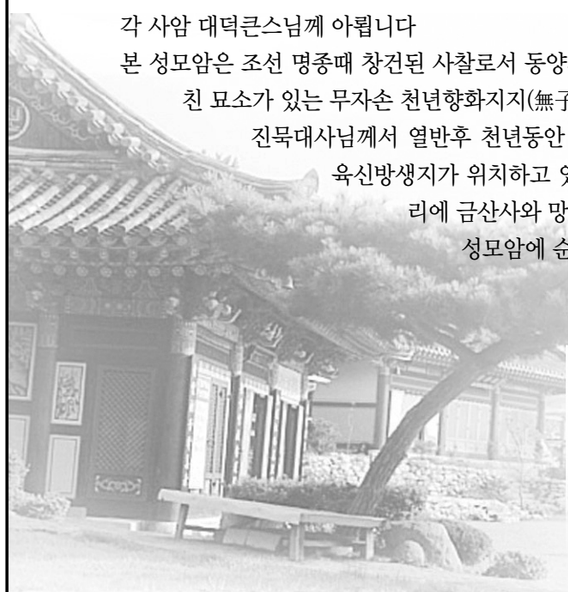
▶ 내 용 : **산스끄리뜨(범어) 기초강의** (인도문화와 접목한 강의)
▶ 대 상 : 산스끄리뜨(범어)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 교 재 : 범어 연습장 (도응 스님 편찬)
▶ 강 사 : 서축암 감원 **도응 스님**
▶ 모집인원 : 약간명
▶ 기 간 : **6개월 과정**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주 1회, 3시간 강의)
▶ 개 강 일 : **2009년 3월 7일**
▶ 입 학 금 : **10만원** ▶ 장 소 : **통도사 내 서축암 배움방**

ॐ संस्कृत शिक्षा पत्रम्

• 문의전화 • ☎ (055)381-9666 •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buddhanews.com

너 나가 없이 하나로 초월해서 돌아가기에 하나님!

☞25면에서 계속

인(人)이 그대로 다 죽었으니 자기는 살아날 가망이, 새싹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문이 좀 열린다 이 소리죠, 그게.

그걸 왜 부모에다 들이대고 뭐가 안돼도 조상의 탓, 뭐도 조상의 탓으로 자꾸 돌리세요? 자기 조상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여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것도 꿈이요, 꿈에 가르치는 것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다 생시다 할 거 없이 그런 꿈이 꾸어지면 제사 지낼 걱정 하지 말고요, '아하! 이게 나의 채찍이로구나. 아, 이거 문이 좀…. 이제 두 분 다, 자기와 자기가 다 죽었으니까, 둘 아니게 죽었으니까 문이 좀 열리게 되나 보다.' 하고, '아휴!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제가 늘 공부에 진전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뭔가 조금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누구나가 다 먹고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런데 댁이 교수 자리가 나지 않아서 참 힘들다고 그랬죠? 그거를 더퍽 부처님께서 해 줬어 봐요. 댁이 지금 샛눈이라도 떠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겠나.

질문자2(남) 네. 그간에 제가 해 왔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아상과 아만이 너무나 가득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강릉지원 법형제들이 다시 한 번 각자 공부를 다지기 위해서 '재건회'라는 이름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우리 법형제의 어떤 분이 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빗대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아상이었으며 그거를 내려놓고 죽이자고 하는 작업을 이때까지 했지만 아직도 스스로 봐도, 어떤 때는 너무나 팔뚝 같은 게 올라와서 감정을 주체 못한다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꽤 여러 해를 다니면서도 만날 이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아주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오는 게 기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하여튼 사람마다요.,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극치적으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모두. 좀 너그럽게 하시고요. 인생이 한 철이에요, 한 철! 우리가 인생 한 철을 그냥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또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것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 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젖혀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몽땅 그냥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냥.

그저 라면 한 그릇 먹으나 밥 한 그릇을 먹으나 하루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 그릇 떠다 주나 눌은밥을 반 그릇 갖다 주나 나 먹기는 똑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별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해 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 먹자 이러는 마음이 파란을 일으켜요.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또 가면 가는 것 잡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생긴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그저 집이 돼 주면서 끝없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나를 보고 살아라. 나같이만 살면 뭐가 걱정이냐?' 하죠. 산은 산대로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묵묵히. 그런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한 철 날 놈의 거. 한 철 동안 공부하시는 게 세세생생으로 돌아가고, 세세생생에 돌아가는 그 자리의 권한으로 가신 위의 조상들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의 자식들도 다 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자에게) 편안히 앉으세요. 다리 아프실 텐데, 누가 뭐 다리 안 아프게 해 줄 사람 있어요?

>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은 게 없으니

질문자3(남) 저는 전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선원에 온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턴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여기 와서 삼귀의나 청법가, 산회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엄숙한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저만 그렇게 흐느끼고 울 수도 없어서 곤란한데, 눈물 흘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큰스님 네. 전자에 이런 공부를 좀 하신 거죠. 누구나가 다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전자에, 댁의 몸을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거를 정신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당신 자체는 몰라도 자기 주인공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흥겹고 흐느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댁에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본인이죠.

'죽으면 우리가 뭐 아나?' 이러지마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차원에 따라서 사람을 모두 다스리고 부리기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해서 나오는 대통령도 있지만, 부모들이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정성으로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와 모든 것을 좀 돌아다볼 줄 알아야만이 또 뒤가 길죠. 그렇지 못하면 뒤가 없어요. 뒤가 짧아요. 그냥 끊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도리를 알아서 그저 못사나 잘사나, 먹으나 못 먹으나 주인공에 놔야죠.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은 게 없듯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 마음, 그 뿌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거니까 그 주어진 데다가 도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체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개무량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려. 그래, 그저 울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세요. 허허허…. (대중 웃음) 우는 건 댁에서 우는 게 아니라 눈만 빌려 주고 마음만 빌려 줬을 뿐이에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요, 한마디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외국에 가 봐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막히면 경전을 찾더군요. 나 그런 거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수많은 선지식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 그렇게 불법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경전이라는 거를 내서, 우리들이 그래도 그 껍데기나마 보고 마음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살면서 네 종교, 내 종교 따지고는 있지만, 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 하더라도 차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따로따로 모두 있듯이, 동서남북이 따로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밖으로 찾기는 하지만 내일 살 걱정 안 하고 그냥 한데 모으는 마음은 있거든요. 타의에서 구하지만 하나님으로 한데 모으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모은 마음, 한울님, 하나님, 하늘님 이런 것이 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비롯하고, 주님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냐? 한 생명이 전부 같이 모여서 사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들을 다스리는 주처가 나로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님자를 붙여서 주님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 너 나가 없이 전부 하나로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바깥에서 찾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로 뭉쳐 놓고 찾지 않습니까? 우린 뭡니까? 부처, 칠성, 산신 할 것 없이 쭉 늘어놓고는 온통 그냥 따로따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탄압을 받으면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 놓고 그렇게 방편을 쓴 것이 여직껏 내려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는 왜 그렇게…. 그것이 이익이 남으면 이자를 주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안 걷혀서 애를 쓰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한다고 하는데요. 난 여러분이 용돈 쓰라고 갖다 주는 거 모아서 불교방송국에 냈거든요, 텔레비전 방송에다. 그런데 아이구, 내가 거지라면 거지 왕초가 해 줘야, 허허허…. 그런데 부처님이 거지 왕초라면 그냥 여러분은 거지의 새끼들이죠. 하하하…. 그 새끼들이 다 왕초의 지나온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 대(代)에 해결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어렵다는 것이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그거를 좀 사 주면, 뭐 사 준다고 해야 돼요? 팔아 준다고 해야 되나? (대중에서 '주식'이라고 말을 함) 주식을, 응! 주식을 좀 신청하면 그네들이 좀 덜 힘들 텐데, 불교방송국의 그 원장 스님인가? 아, 그분이 내게 그러는 거예요. 불자들이 주식을 신청하라는데도 이렇게 이러니 이거를 어떡하면 좋으냐고요, 한탄을 하세요.

> 그저 못사나 잘사나 먹으나 못 먹으나 주인공에 놔야죠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굶고 그럴 때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쌀 한 움큼씩, 조금 덜 먹고는 한 움큼씩 모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좀 하고, 좀더 여유가 돌아가는 집은 '거기다가 그냥 예금해 놔야겠다.' 이러곤 그냥 거기다 한 구좌 예금해 둔다면 아무 때라도 찾는 건 찾는 거니까요. 잘되면 찾는 거니까. 우리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찾지 않겠습니까? 한 3년만 지나면. 그러니 그저 학자금 넣은 셈만 치고 모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합니까? 이익하고 이익지 않고 그걸 떠나서 한마당에서 한도량에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요만한 데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원에서 지원 스님네들이 "스님,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그래도 거기 넣고 또, "어디 가실 때 용돈 하세요." 그래도 거기 넣고, 뭐 치과에 가는 데도 돈 내는 거 있으면 난 주지한테 얻어 쓰고, 요거는 또 요렇게 넣고, 하하하…. 그렇게 알뜰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쓰고 저런 데도 쓰고, 때로는 참 어려운 집 애들이…, 내가 불교방송국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돈을 못 내서 이제는 휴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저 모아 놨던 거 톡 털어서 주곤 하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스님, 나갈 돈도 없어서, 삼천만 원 가지고 세를 들었는데 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 글쎄, 쫄여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천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 이 애들하고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나도 입을 꽉 다물고 한참 있습니다. 펼쳐 봐도 뭐 아무 데도 도와줄 데가 없는 사람, 내가 봐서. 그거 어떡합니까?

또 때로는 시집 못 보낸다고 그럴 때는 "얘, 나 용돈 좀 쓰게 다오." 지원스님네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선 몰래 그냥 주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편안하자고 그러는 거지 남을 도와주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아, 우리 사무장님이 아시다시피,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교방송국에서, 어머니는 편찮아서 드러눕고 학비를 못 내서 신문팔이를 하는데 대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방송하는 것을 보면 아휴! 그게 남의 말 같지가 않습디다. 그래서 "단박 연락해라, 대학교 마칠 때까지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그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편안하려면.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있지만. 이번에 뭐 군대에 갔다면서요? 허허허….

하여튼 여러분도 십시일반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 보세요. 내 몸뚱이도 한 철 나면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고 또 나올 텐데, 뭘 그렇게 아끼면서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기도 굶으면서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빚져 가면서 시주하지 말고, 빚 얻어다가 시주하지 말고, 빚 얻어다가 뭘 하지 말고, 그저 여유가 없더라도 쌀 한 됫박 가지고 밥을 지을 거를 한 움큼 덜어서 하려면 해라 이런 거예요. 그 의미를, 뜻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한마음의 십시일반이 돼 봅시다.

※위 법문은 1996년 2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입심이 좋고 말을 잘해 타인이 쉽게 호감을 느낀다. △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다. △ 쉽게 지루해 한다. △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 남을 잘 속이거나 조종한다. △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고, 죄책감도 잘 느끼지 않는다. △ 감동하는 일이 거의 없다. △ 매사에 냉담하고 남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남에게 빌붙어 산다. △ 나쁜 행동을 자제하기 어렵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20문항 가운데 앞의 10문항을 쉽게 풀어 놓은 것이다. 사이코패스(psychopath)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극단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으로, 최근 부녀자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한다.

강호순의 행각은 힘없는 부녀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행동도 잔인하지만, 검거된 후 보이는 행동이 더욱 경악스럽다. 수사하는 형사들에게 범죄 전모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척하다가 농담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아들이 인세를 받게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위하는 자식들에게 전화 한 번 안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의 특징 가운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처음에는 남의 호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 인상이 좋으므로 저 사람은 착할 것이고,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짐작한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후광효과((後光效果, halo effect)'라고 한다.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속성에서 받은 인상이 다른 측면의 평가나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에 의해 매력적인 사람이 못생긴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나 자신감, 적극성, 지적 능력, 성실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강호순은 이런 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연기를 하듯 사람들을 대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대한 경찰들은 강호순은 "쇼의 명수"라고 표현했다. 강호순에게 변을 당한 부녀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를 따라간 것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이코패스가 강호순이나 유영철, 정남규 등의 연쇄살인범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성인의 약 1%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하며, 사회 · 조직 속에도 섞여 있어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도 사회에서 은밀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자비하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다. 이들은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 자기만 옳다고 본다. 자기만의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가 해가 되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 즉 사회 가치나 양심, 이상과 관련된 기능인 슈퍼에고(super ego, 초자아)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행히, 흉악 범죄로 자신의 극악한 정신병질적 성향을 행동화하는 사이코패스와 범행 유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팀이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2000년부터 가동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강호순 사건의 수사에도 이들의 활약이 컸다. 그러나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청소년 시기에 미리 발견하여 국가가 치료를 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서불대 연구교수

잘못된 '후광 효과'

社說

문경 국제선센터 건립의 의미

경북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인근에 국제선센터가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선센터는 불교계가 주축이 되어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경시가 봉암사와의 협약을 통해 건립을 하게 된다니 더욱 의미가 크다.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희양산파의 본찰이었던 봉암사는 현재 조계종 특별선원이다. 60여 년 전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이 선종의 기운을 집결해 용맹정진 결사를 함으로써 깨달음의 현전도량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선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봉암사 인근에 국제선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도 상당한 것이다.

문경시와 봉암사가 역사적 배경이 탄탄한 곳에 국제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물질문명에 사로잡힌 인류의 정신건강은 점점 중증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은 물론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마음의 종합병동' 그 자체다.

황폐해 가는 인류의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로 선수행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경에 들어 설 국제선센터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인류의 정신건강 회복 운동의 요람이 될 것이다. 국제선센터는 단순하게 한국불교의 선수행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상을 열어가는 터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불교 선수행법으로 인류를 구제하는 중요한 터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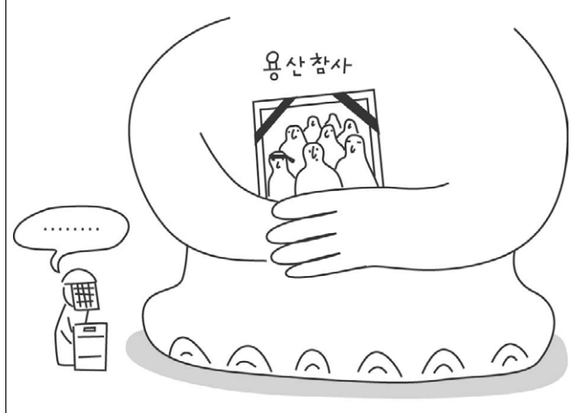
성보와 유물의 간격

'성보인가 유물인가?' 불자들은 불상이나 탑 불화를 성보 즉 공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문화재를 연구하는 학자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유물'로 여긴다. 이 차이를 불자들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수많은 성보들은 바로 경배를 위해 조성된 것이지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입장이나 행정적인 입장에서 마냥 불자들의 생각처럼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 없는 한계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성보와 문화재(유물)로 나눠 보게 되는 입장의 차이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이 그 자체가 하나의 도량으로 상징되는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종교적 위의나 의례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은 권위주의 행정에 다름 아니다. 석탑의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를 두고 보물찾기라도 한 양 발표하기에 급급했던 모양새도 불교계의 사리에 대한 신앙적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던 것이다.

조계종과 불자의원들의 모임, 지역 불교계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불교계도 향후를 대비해 문화재 관련 행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이 터진 뒤에 항의하고 사과 받는 것은 일이 터지기 전에 단단하게 관리 점검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용서로 아픔 없는 세상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수행 첫걸음은 스승 공경

2월의 테마-예경공양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우리 불자들도 소의 눈망울처럼 평화롭고 겸손하기를 기원해 본다.

한국인은 원래 물질에 크게 개의(介意)하지 않고 정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온 민족이었다. 대부분 스스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예전보다는 모두 잘 살고 있는 편이다.

서양에는 요즈음 "Money talks(돈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질의 가치를 위로 두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일년의 휴가를 대부분 불법수행(佛法修行)으로 채우는 부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야 욕계(欲界)나 색계(色界)중생이 순일(純一)한 정신만의 세계인 무색계(無色界)로 진화(進化)하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은 어느 날 아난과 함께 길을 지나다가 해골과 뼈들이 쌓여 있는 무더기에 절을 하셨다. 아난이 그 까닭을 물으니, "저들은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모두 나의 부모들이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절을 한다"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선종(禪宗)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 와서 중국인에게 가르친 수행가운데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理入)수행은 "모든 중생은 모두 본래 청정한 참된 성품(眞性)을 지녔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오랜 세월 번뇌와 욕망으로 그 참된 성품을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다만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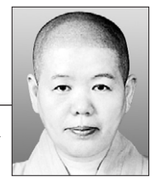
현재 살아 계신 부처님(生佛)으로 추앙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 존자는 일년이면 족히 10개월은 세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설법하시는데, 세계 어디를 가든 처음 만나는 사람조차도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곤 한다.

우리는 망각 때문에 가까운 인연과 금생(今生)에 대해 더욱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각기 다른 인(因, 遺傳子)과 연(緣, 環境)으로 형성된 하나의 결과(結果)물이다. 그러므로 다른 인(因)과 연(緣)으로 형성된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시비(是非)하는 자체가 바른 일은 아니다. 어느 때는 매우 참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들은 다만 나와 다를 뿐인 것이다.

불교수행의 첫 걸음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믿음에서 시작된다. 스승에 대한 믿음과 공경의 크기만큼 제자는 수행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3년은 겪어보고 스승을 정하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공경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나'라는 개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에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된다. 그래야 세세생생에 얽힌 업(業)도 풀려 해탈(解脫)도 가능하다.

부처님께 예경(禮敬)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남보다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인과경(因果經)>은 설하고 있다. 새해에는 부처님의 예경과 공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불자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해 본다.

운월 스님
동국대 강사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왕조 바뀌는 혼란기에 법등 지킨 傑僧의 법향



❺ 충주 청룡사지, 솔숲에서 600년 침묵을 듣다



눈 덮힌 보각 국사 부도밭 전경.

보각 국사 부도는 국보, 석등 · 탑비는 보물

고려말 4명의 왕 존경 받고 조선 태조도 국사로 모신 걸승

부도 대개는 왕명으로 설립… '종합예술'

"어떤 것이 당문구(當門句)인가?"
섬돌로 올라가 대답하되,
"좌 우 중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입문구(入門句)인가?"
문 안으로 들어가 대답하되,
"들어 온 후가 도리어 들어오지 아니한 때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문내구(門內句)인가?"
바로 대답하되,
"내외가 공하거늘 중간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370년(공민왕 19년) 7월 양주 회암사에서는 공민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부선장(功夫選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부선장이란 선종에서 승과(僧科)를 볼 때 선객을 모아 놓고 종사(宗師)가 격외도리를 물으면 그에 대해 답을 하는 일종의 담선 시험장이었습니다. 공부의 깊고 넓음을 테스트 하는 이 담선 법석의 종사는 그 유명한 나옹(懶翁 1320~1376) 스님이었습니다. 왕이 친히 왕림해 지켜보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종사의 질문에 활발하게 답을 해 올리는 선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왕이 밝지 못한 얼굴로 자리를 파하려 할 즈음에 늦게 도착한 한 선승이 나옹 스님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척척 받아 내는 장면입니다. 모처럼 베풀어진 법석에서 진리의 고갱이를 품은 눈 밝은 수행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그 썰렁한 분위기를 깨고 댓돌을 성큼 올라서면서 문 안으로 쑥 들어서면서 활구(活句)를 토해내는 선승을 향해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산이 어찌 산언저리에서 중지됐는가?"
"높음을 만나면 곧 낮아지고 낮음을 만나면 곧 중지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어디에 이르면 개천이 되는가?" "대해(大海)의 물이 땅 밑으로 흘러 개천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어찌하여 쌀로 짓는 것인가?"
"모래나 돌을 삶아서야 어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문답은 번갯불입니다. 물음을 받으면, 찰나의 막힘도 없이 튀어 올라 묻는 이의 급소를 압도해야 합니다. 묻는 이도 찰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답에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호랑이 아가리에 얼굴을 들이미는 꼴이 되고 맙니다. 선문답은 진검승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베느냐 네가 나를 베느냐. 이 한판 싸움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빛이나 기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고도의 수행을 통해 얻은 밝고 단단하고 환해 막힘이 없는 진리로써 그 칼을 삼는 것입니다.

임금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많은 선객들이 목구멍에 침을 꼴꺽 삼키는 가운데서 당대의 큰스님 나옹의 질문을 쓰억쓰억 베어 넘기는 스님은 환암 혼수(幻庵 混修 1320~1392) 선사입니다. 속성은 조(趙)씨이고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 진접면 내각리가 본향이지만 태어난 곳은 아버지의 근무지인 경북 예천 용궁입니다. 부친이 용궁에서 별세한 뒤 본향으로 돌아 왔는데 어려서 몸이 약하여 항상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점쟁이에게 물으니 "이 아이는 출가해 스님이 되면 영원히 병을 얻지 않고 건강해 마침내 큰스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친은 열두 살의 아들에게 출가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으므로 사슴의 어미가 새끼를 염려하는 것을 보고 감득해 사냥하는 것을 중지했더니라. 이는 네가 자인(慈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도리를 이미 강보(襁褓)의 시절부터 나타내 보인 것이니 하물며 점쟁이의 말도 그와 같음이랴."

환암 선사는 공민왕을 비롯해 우왕과 창왕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까지 4대의 왕으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은 당대의 걸승이었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도 그의 높은 덕화를 흠모해 폐조(廢朝)의 국사(國師)라 여기지 않고 그대로 국사의 지위를 유지해 주길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두 나라에 모두 다섯 왕의 존경을 받은 큰스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왕조가 붕괴되고 군력(軍力)에 의해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는 혼란한 시기에 승려로서 국왕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왕이 바뀔 때마다, 또 왕조가 바뀌었을 때 환암 선사는 진심으로 국사의 직인(職印)을 내놓으려 했지만 왕의 만류로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산야를 달리는 짐승들이 밤이 되면 깃을 접고 몸을 웅크려 잘 곳을 찾듯,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혼곤한 잠을 청할 한 칸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여서, 속진(俗塵)을 벗어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토굴 하나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환암 선사가 노곤한 깃을 접었던 곳은 당시의 수도 개성으로부터 제법 먼 곳이었습니다. 충북 충주의 청룡사 서쪽 기슭에 손수 암자를 짓고 '연회암(宴晦庵)'이란 이름을 달아 붙인 것입니다. 당초 범일국사가 개산한 사굴산문으로 출가했던 환암 선사는 젊은 시절 전국의 큰 절들을 두로 편력하며 수행하여 '산문의 2인자'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왕들의 부름을 받으면 간절하게 사양을 하고, 마지못해 궁궐로 갈 때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니 그 도행을 존경하는 사람은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았던 것입니다.

연회암, 암자 이름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선사는 왜 하필 어두운 밤, 그믐밤을 뜻하는 회(晦)자를 썼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미 절망으로 치닫는 시절인연을 선사는 일찌감치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연회암이 있었다는 청룡사는 지금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솔숲에는 텅 빈 절터의 허허로움을 위로해 주는 환암선사의 부도(국보 제197호)와 탑비(보물 제658호) 그리고 석등(보물 제656호)이 가지런히 서서 600년이 넘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날 오후에 달려간 환암 선사 부도밭. 석등과 부도 그리고 갓도 쓰지 않은 탑비가 설을 앞두고 내린 폭설을 머리에 이고 적막 속에 또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600년이 지나는 동안 청룡사가 흥해 수많은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는 홍복의 시절을 지켜보기도 하고 악연(惡緣)을 피하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는 장면도 목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석등도 부도와 탑비도 조금씩 바람이 돼 가는 동안 사람의 풍속과 기술은 급박하게 변하여 무인 카메라가 높다랗게 매달려 유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환암 선사는 조선이 건국되던 바로 그 해 1392년 9월 18일에 "나는 오늘 밤에 떠날 것"이라며 국사의 도장을 봉인케 하고 임종게를 남긴 다음 단정하게 앉아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려의 네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선사의 원적을 조선 태조도 몹시 애도했습니다. 태조는 보각(普覺)이라는 시호와 정혜원융(定慧圓融)이라는 탑호를 내리고 신하를 선발해 보내어 장례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또 다음해에 청룡사의 북쪽 봉우리에 부도를 세울 것을 명했으며 권근(權近)에게 비문을 찬하게 했습니다. 조선이 창업하던 당해 가을에 입적한 고려의 국사에 대한 태조의 극진한 예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환암 선사의 부도는 조선의 하늘이 열리고 처음으로 조성된 부도와 탑비입니다. 창업을 이룬 왕의 지극한 관심이 있었음은 아름답지만, 탑비는 전시대에 비해 화려한 귀부나 섬세한 조각의 이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4각의 지대석에 위쪽 모서리가 접힌 빗돌을 얹었을 뿐 특별한 공력을 들인 흔적은 없습니다. 부도의 조각은 담대하면서도 활달한 수법이 오히려 지나친 의욕을 어제할 수 없었던지 전체적으로 살이 붙은 느낌입니다.

부도는 대개 왕명에 의해 세워집니다. 9세기 중엽 이후 구산선문을 열어 선종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선사들이나 고려조의 큰스님들은 대부분 왕의 존경과 귀의를 받았던 시대의 사표였습니다. 그런 만큼 입적 이후 왕은 시호와 탑호를 내리고 관원을 보내 장례를 관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초기부터 중앙기구로 자리 잡았던 승록사(僧錄司)는 바로 왕사나 국사의 책봉과 의식에 관한 주관, 승적의 정리 등 불교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승의 입적 후 장례의 주관과 부도와 탑비 건립도 승록사에서 왕명에 따라 주관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큰스님들의 입적을 당한 왕은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시호와 탑호를 내렸으며 부도와 탑비 건립을 후원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부도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입니다. 당대의 명공(名工)이 선발돼 치석과 조탑을 담당해 시대를 대표하는 조형예술을 남겼습니다. 또 왕의 지목에 의해 문도들이 정리해 준 행장을 토대로 비문을 찬한 사람은 그 시대에 이름 높은 문장가였고 글씨를 쓰는 이도 명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며 빗돌에 새김질을 한 사람 역시 최고의 서각가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 수행자의 생애와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예술로 승화돼 후세에 전해집니다. 운수납자가 율무염주를 목에 걸고 천하를 떠돌다가 어느 산자락에서 입적하면 육신은 불과 물 그리고 바람과 흙으로 돌아가고 목에 걸렸던 율무가 싹을 틔워 다시 열매를 맺듯 부도 또한 한 수행자의 생애를 전하는 증언의 기표입니다.

기울어 가는 왕조, 흐려진 불법의 시대를 가슴 쓸면서 지켜낸 걸출한 수행자의 한 생애는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환암 선사의 부도와 탑비를 쓰다듬다가 돌아오는 길에 석종형의 부도 한 기와 석등의 부재들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거기서도 한 수행자의 숨결이 사르륵사르륵 눈 쌓이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